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0 8 Vol-224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비엔그룹과 함께하는

제3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지휘_ 오충근 (고신대 교수)

연주_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협연_ Sop.유미숙 (명지대 교수) / Ten.박현재 (서울대 교수) / Fl.박지은 (서울시향 수석) / Harp.박라나 (서울시향)

Program

W.A.Mozart / Flute and Harp Concerto in C Major K.299

모짜르트 /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다장조 작품 299

P.Mascagni / Intermezzo from Opera 'L'Amico Fritz'

마스카니 / 오페라 '친구 프리츠' 중 간주곡

G.Puccini / <Bimba dagli occhi pieni di malia> from Opera 'Madama Butterfly'

푸치니 / 오페라 '나비부인' 중 <매력으로 가득 찬 내사랑 그대 눈동자>

M.Ravel / La Valse

라벨 / 라 발스 외 수곡



2010. 9. 2(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BSO Members 악장-임병원 제1바이올린 이정미(부악장), 홍기정(수석), 황지원(수석), 김희진, 이은실, 지희원, 손소영, 서영희, 이지윤, 손주연, 김주은, 박완서, 김푸름 제2바이올린 김정은(부악장), 배연주, 조영숙, 김신실, 임나리, 정희경, 진선미, 정다혜, 전지원, 반예은, 박선미, 비올라 박주연(수석), 정지윤(부수석), 한동민, 곽유진, 이승연, 이영화, 김상철, 손주연, 배소현, 허유라 첼로 김판수(수석), 최지량, 김정원, 김혜은, 이원아, 서송은, 박준현, 김유미, 강진희, 고정임 베이스 박희철(수석), 이지영(부수석), 박지선, 김선경, 이현정, 박성진 플루트 최낙주(수석), 김보현, 채성경 오보에 노영훈(수석), 박지연, 이유정 클라리넷 손기영(수석), 홍병희(부수석), 이효주 바수운 윤태준(수석), 김동주, 장보영 호오른 강덕만(수석), 문동주(수석), 윤기영(부수석), 이유경, 이민정 트럼펫 주현(수석), 전상윤, 정경윤 트럼본 이웅희(수석), 유상미, 신광호 튜바 김기울 팀파니 김정우(수석) 타악기 이유희(부수석), 최아나, 정종혁, 이경준, 김보배 피아노 박진희(부수석) 하프 이은희



Hp. 박라나

Fl. 박지은

Ten. 박헌재

Sop. 유미숙

지휘. 오충근

| 주최 |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Bⁿ** 비엔그룹 | 후원 | **KNN** 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Bⁿ BIP
비아이피(주)

Bⁿ STEELA
비엔스틸라(주)

Bⁿ COSMO
(주)코스모

Bⁿ SNB
에스엔비(주)

Bⁿ BIPEX
(주)바이팩스

Bⁿ FURNITURE
비엔가구(주)

Bⁿ BISCO
(주)비스코
(주)비스코 정공

Bⁿ AISCO
아이스코(주)
아이스코 정공(주)

Bⁿ STEEL
비엔철강(주)

Bⁿ BIP-WEIHAI
부일방화판재
유한공사(중국)

Bⁿ BIP-USA
BIP International Inc.

Bⁿ BIP-Singapore
BIP Industries Pte. Ltd.

Bⁿ BIP COUNTRY CLUB & SPA
비아이피 컨트리클럽(중국)

BK INVESTMENT
비케이 인베스트먼트(주)

티켓 VIP석 10만원 /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문의 **KNN** 1577-7600 www.knn.co.kr
예매처 인터파크 1544-1555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지휘자 전 상철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해설 오동주



설장고 김윤호
(부산시립무용단원)



카운트테너 김종영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



소프라노 여나경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



소프라노 조아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



혜화초등학교 중창단

- 한국동요 동요사계 - 봄, 여름, 가을, 겨울
- 특창 - 김종영(17일), 여나경(19일), 조아라(21일)
- 영국 민요 모음 - 아! 목동아 외 2곡
- 이태리 민요 모음 - Santa Lucia(산타루치아) 외 2곡
- 설장고춤 - 김윤호(부산시립무용단원)
- 아리랑 모음곡 - 밀양, 진도, 강원도, 경기도, 홀로아리랑

2010. 8. 17(화) 오후 7시 북구문화빙상센터 공연장 **무료**

2010. 8. 19(목) 오후 7시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료**

2010. 8. 21(토)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균일 2,000원**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광역시 북구빙상문화센터 문화도시창조 영도문화예술회관

Contents



08 커버스토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팔빙수같이 시원한 콘서트'

10 프리뷰

16 문화가 화제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18 반갑습니다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음악감독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20 은현리 풍경 속에서 詩를 읽다 ⑧

은현리에서 돌고래 떼를 만나다 | 정일근

22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여름 그리고 사람들... | 이재걸

26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음악 ⑧

영화 '샤인' | 이동신

28 불멸의 거장, 쇼팽 ⑥

음악과 더불어 살아있는 쇼팽 | 노경원

29 헬로우 부산, 원더풀 코리아

놀랍도록 유창한 외국어 실력 | 다이앤 스틸명크스

30 그곳에 가면

부산의 새로운 명소 벽화마을

34 리뷰

제 28회 전국연극제 | 이정남

35 나의 애청음반

여름에 듣는 겨울이야기 백조의 호수 | 김의호

36 우리는 문화가족

아름다운 앙상블이 빛어내는 이웃사랑 '센텀합창단'

38 프로그램 가이드

54 새로 나온 음반, 새로 나온 책

56 부산문화회관 소식

58 100자 토크

62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예술의 초대 2010 + 08 Vol. 224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Tel.051-120(주간), 051-607-6221(야간), Fax.051-607-3109

발행인 | 최성달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0년 7월 25일

인쇄처 | 신우정판사 Tel.051-469-2661~2 Fax.051-469-0710

SUN 1 | MON 2 | TUE 3

8 | 9 | 10

15 | 16 | 17

중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공연
악기가족이야기 종합편 '악기가족 다모여라'
11:00, 16:00
5천원 · 3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22 | 23 | 24

29 | 30 | 31

중 | 제 20회 주목받는 부산의 차세대 신인음악회
19:30 2만원 · 1만원/부산음악협회(634-1295)

중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금난새와 함께 하는 클래식은 내 친구'
11:00, 16: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중 | 고신대의 관현악단 제 15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박영찬(010-3318-0856)

중 | 테너 주종식 · 바리톤 최성규
제 3회 듀오콘서트 19:30
균일 2만원
우리아트(010-5555-3825), 최성규(010-3564-3439)

전시

- ▶ 아시아 우수작가 워크페스티벌
8월 3일(화)~8월 7일(토)-대, 중전시실
문의 : 한국현대미술협회
(644-0005, 010-5488-3375)
- ▶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전
8월 13일(금)~8월 19일(목)-대전시실
문의 : 부산미술협회
(632-2400, 011-803-0352)
- ▶ 제 10회 한국문화재단 입상작 전시회
8월 16일(월)~8월 21일(토)-중전시실
※ 시상식 : 8월 21일(토) 14:00 국제회의장
문의 : 최연성(868-5236, 011-864-3698)
- ▶ 아시아수채화대전
8월 23일(월)~9월 4일(토)-대, 중전시실
문의 : 부산수채화협회
(011-9549-3939, 010-9878-0222)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WED	THU	FRI	SAT
4	5	6	7
	<p>소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전통공연 11:00 김성윤(02-3789-4564)</p>		<p>소 어린이 영어뮤지컬 '피터팬' 18:00 초대/서정아(010-7503-6564)</p>
11	12	13	14
	<p>소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12 언니네 이발관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p>	<p>소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12 언니네 이발관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p>
18	19	20	21
	<p>중 부산시립무용단 2010 한 여름밤의 춤 작품전 춤추는 삶, 그 아름다운 사람들의 몸짓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p>	<p>소 2010 인디고 유스 북페어-가치를 다시 묻다: 어린 영혼들이 시가 되고 음악이 될 때, Poetry Night 20:00 5만원 · 무료/인디고 서원(628-2897)</p>	<p>중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17:00 균일 2천원/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무용협회 공연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p>
25	26	27	28
<p>중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금난새와 함께 하는 클래식은 내 친구' 11:00, 16: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중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연주회 '팔빙수 같이 시원한 음악회' 19:30 2만원 · 1만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p> <p>소 이서현 바이올린 독주회 19:00 균일 2만원 이서현(010-3058-1401, 011-553-9119)</p>	<p>중 인제의대 관현악단 제 29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남희성(010-4524-5748)</p> <p>소 토요일상설무대-새울전통타악진흥회 연주회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p>
1	2	3	4
<p>중 제 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프린지콘서트 19:30 무료/부산마루국제음악제(070-7687-8292)</p>	<p>소 제 2회 소프라노 엄남이 독창회 19:30 초대/엄남이(010-7519-9843)</p>	<p>중 제 11회 고태국선생 추모 부일성악콩쿠르 예선 14:00 부산일보사(461-4433~8)</p>	<p>중 제 11회 고태국선생 추모 부일성악콩쿠르 예선 14:00 부산일보사(461-4433~8)</p>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 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 바랍니다.



재미있고 시원한 국악여행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시원한 팔빙수가 그리워지는 여름, 흥겨운 우리 국악으로 여름 더위를 씻어주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재미있고 시원한 국악여행이 시작된다.

이름하여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김철호 수석지휘자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정훈희, 선소리산타령보존회 부산·경남지회장 김경민과 그 제자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소리꾼 박성희, 정선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팀이 협연자로 부산국악애호가들과 만난다.

1967년 안개로 데뷔한 정훈희는 꽃밭에서, 무인도, 빗속의 여인, 꽃길 등 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특히 정훈희는 국내 대중음악이 안방을 벗어나지 못하던 지난 1970년 '안개'로 제 1회 도쿄국제가요제 '베스트10' '가수상'을 동시 수상한 것을 시



작으로 아테네국제가요제, 칠레국제가요제 등에서 입상하면서 가수로 이름을 날렸다. 현재 대한가수협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훈희는 그의 노래 '꽃밭에서' 등을 신세대 가수들이 리메이크 하면서 지금의 40대와 50대는 물론 신세대 가요 팬들에게도 낯설지 않다. 이번 무대에서는 '꽃밭에서'를 비롯한 그의 히트곡을 국악관현악 반주에 맞춰 40년 노래 인생을 담은 강렬한 무대를 선보인다.

정훈희의 협연 무대 외 고구려인들의 기상을 나타내는 '고구려의 혼',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해운대의 동백섬을 판소리로 표현한 '추억의 동백섬', 중요무형문화재 제 19호 선소리 산타령 이수자 김정민과 그의 제자들이 들려주는 흥겨운 경기민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팀이 신명의 소리로 더위를 날려준다.

웅장한 스케일의 타악기로 고구려의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한 '고구려의 혼'은 후반부에 서양의 리듬과 선율을 사용하여 국악과 대비되는 변화를 준다. '추억의 동백섬'은 아름다운 동백섬을 노래한 해광(海廣) 강동래 시인의 시를 음악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멜로디인 노래부분은 판소리 창법의 이중창으로 부르며 국악관현악의 반주에 의해 서로 다른 특징의 4악장으로 이루어진다.

김정민은 제자 최주경, 송민경, 신명언, 김윤숙, 박현지, 김혜향, 금영애와 함께 부드럽고 유창, 명쾌하며 서정적인 경기민요 '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태평가' '뱃노래' 'жат은뱃노래'를 들려준다. 경기민요는 서울과 경기지방을 중심으로 불려지던 민요로 충청도 북부와 강원도 일부 지방의 민요도 포함하고 있어 중부지방민요라고 부르기도 한다. 장단은 굿거리, 자진타령, 세마치 등이 쓰여 흥겹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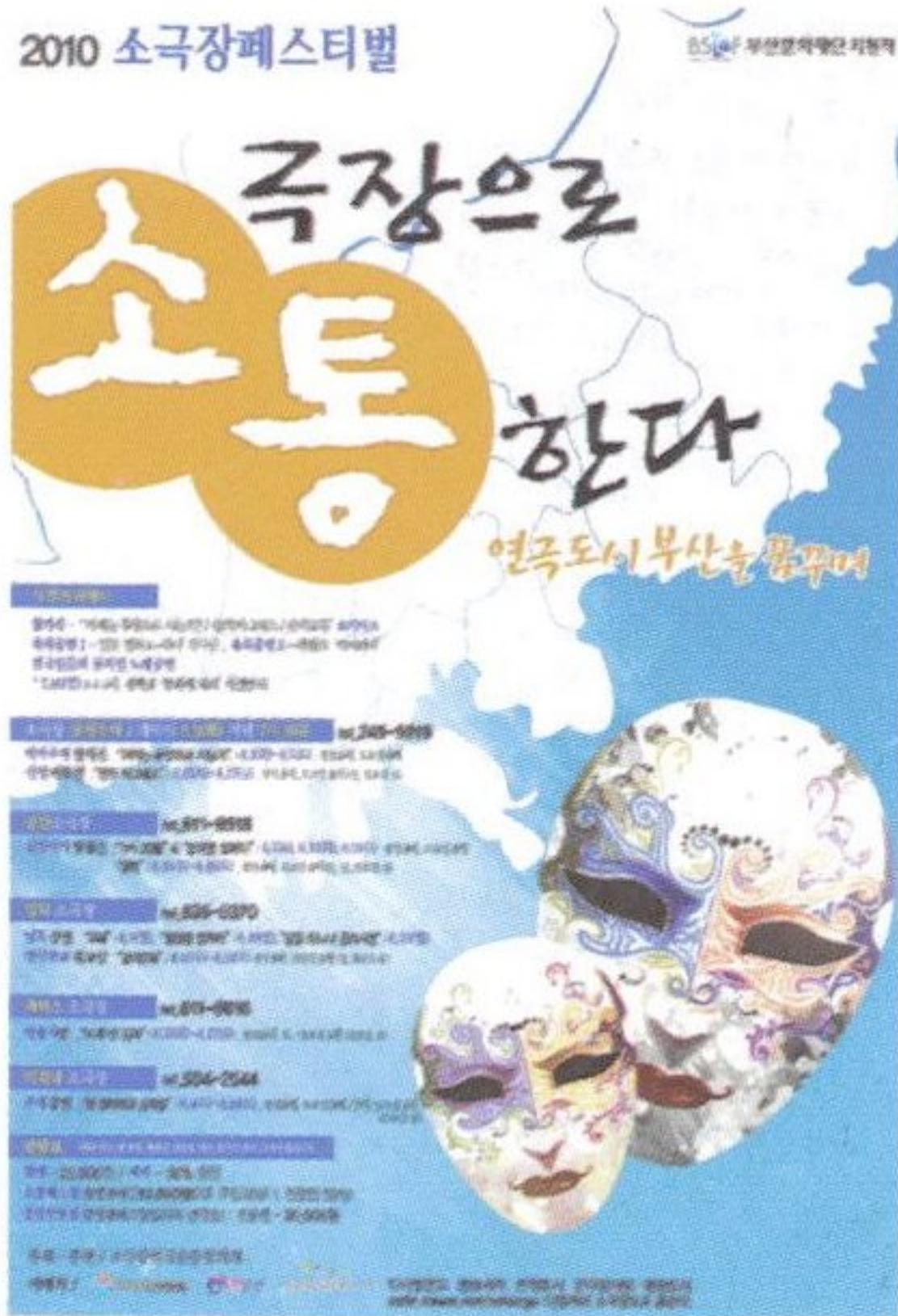
마지막 무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팀의 협연으로 박범훈의 '신모듬'으로 장식한다. 1988년 대한민국 작곡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신모듬'은 원초적인 생명력과 움직임을 표출하는 사물놀이의 다채로운 장단 변화를 관현악의 풍성한 가락과 결합한 곡으로 사물놀이의 자유분방함과 관현악이 주고 받는 리듬형식의 경쾌한 선율로 꾸며진다. 모듬북 신문범, 최오성, 사물놀이 이장우, 전학수, 이주현, 송강수가 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신명난 무대를 열어준다.

공연 시작 전 흥겨운 음악과 함께 먹는 시원한 팔빙수도 재미있고 시원한 국악여행의 재미를 살려준다.

- 관람료 A석 20,000원·B석 10,000원
-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연극도시 부산을 꿈꾸며 2010 소극장페스티벌 소극장으로 통한다

8월 3일(화)-28일(토)
공간소극장, 미리내소극장,
소극장 실천무대, 액터스소극장, 일터소극장



부산지역 소극장 활성화를 위해 부산지역 연극인들로 결성된 소극장운동협의회가 8월 3일부터 한달간 ‘2010 소극장페스티벌-소극장으로 통한다’를 갖는다.

지난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는 ‘2010 소극장페스티벌-소극장으로 통한다’는 시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연제 형식이 아닌 연극인과 관객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연극 축제이다. 특히 올해는 연극인들간의 소통은 물론 관객들이 연극을 좀 더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출, 배우, 극작, 관객 등 연극의 각 영역을 특화시켜 연출가전, 신인배우전, 신인작가전, 아마추어연극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8월 3일 실천무대 소극장에서는 개막식에 이어 개막작으로 아마추어연극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가 무대에 올려진다. 부산연극을 사랑하는 관객들의 모임인 ‘부산연극지기’ 연극모임의 이번 작품을 통해 ‘서툰다’는 뜻으로 왜곡된 ‘아마추어’의 진정한 의미를 관객들과 함께 고민해본다.

희극작가 지망생들의 도전과 희망의 터전이 될 ‘신인작가전’에서는 김문홍의 ‘희극창작교실’을 수료한 채지하의 ‘11시 55분’과 새로운 신인작가 발굴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인작가 발굴을 위한 낭독공연’의 2009년 무대를 통해 소개된 김효민의 ‘밤이면 밤마다’,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생인 주란의 ‘절벽’이 무대에 오른다. 연극 ‘11시 55분’과 ‘밤이면 밤마다’는 8월 7일과 10일, 11일, ‘절벽’은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공간소극장에서 선보인다.

역량있는 신인배우들을 소개하는 ‘신인배우전’에서는 이제 막 신인배우로 첫선을 보이는 배우 이아름, 전지은, 이선민 주연의 연극 ‘신의 아그네스’를 무대에 올린다. 부산지역 ‘배우 등용문’ 역할을 하게 될 ‘신인배우전’은 매년 연극 전공자만 100여명이 배출되는 상황에도 여전히 배우기근현상으로 고민하고 있는 지역연극계에 실력있는 배우들을 발굴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연은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소극장 실천무대에서 올려진다.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액터스소극장에서 열리는 ‘연출가전’에서는 1984년 극단 ‘부두극장’을 창단하면서 부산연극계를 지켜온 연출가 이성규의 ‘비계 낀 감자’를 선보인다. 그동안 부조리극, 마임, 제의극 등 실험성 있는 작품만을 고집해온 연출가 이성규가 부조리극을 대표하는 작가 이오네스코의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부조리극의 깊은 맛을 선사한다.

그 외 지난 4월 시작된 소극장운동협의회의 ‘제 1기 연극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 김미영, 김진모, 강성진, 이승미, 남소라의 첫 무대인 연극학교 워크숍 ‘관객모독’은 8월 18일부터 26일까지, 2011년 소극장페스티벌 신인작가전 무대에 올려지는 ‘신인작가발굴을 위한 낭독공연’은 8월 9일과 16일, 23일 일터소극장에서 열리고 부산의 중견배우 호민의 세태풍자 모노드라마 ‘닭 잡아먹고 오리발’은 8월 4일부터 28일까지 미리내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 관람료 균일 20,000원(예매시 30% 할인)
- 문의 소극장 연극운동협의회(611-8518, 245-5919, cafe.daum.net/sotongs)

2010 한여름 밤의 춤 작품전

-춤추는 삶, 그 아름다운 사람들의 몸짓-

8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의 창작열정을 만날 수 있는 2010 한여름 밤의 춤 작품전이 8월 19일 부산 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이정인(부수석단원), 황선희(상임단원)가 그동안 정기공연에서 선보이지 못한 자신만의 춤 언어와 몸짓을 통하여 직접 빚어낸 참신한 작품 세계를 그려낸다.

이정인은 2007 부산시립무용단 제 56회 정기공연 '이쁜이 시집 가는 날' 주역, 2008 세계사회체 육대회 개회식 공연 보조안무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해왔다. 이정인은 이번 무대에서 권봉정이 대본을 쓰고 이현숙이 연출하는 '꿈꾸는 여인'을 안무, 부산 무용애호가들과 만난다. '꿈꾸는 여인'은 미인도 등의 작품 속에서 보이는 여인네들의 자태와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한국춤의 곡선과 여백의미를 현시대의 한국 춤과 접목하여 재해석한 작품이다. 이정인을 비롯해 박창희, 이상민, 김시현, 박민화, 정월미와 부산시립극단 단원 이혁우가 특별출연한다.

APEC정상회의 축하공연 '왕비의 아침', 2009 부산시립무용단 제 60회 정기공연 '연산', 2010 전국생활대축전 개막축하공연 주역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친 황선희는 기억 속에 무서운 존재로 남아 있는 어린 시절의 귀신이야기, 화장실이라는 소재를 약간의 두려움과 재미를 포함한 해학적 마임과 접목한 'ㅋㅋㅋㅋ~ 넌 누구니?'를 선보인다. 황선희와 황창기가 대본을 쓰고 황선희가 안무, 이성원이 연출한 이 작품은 1장-소년의 두려움(나뭇가지 위의 영혼), 2장-소년의 영혼(靈魂), 3장-애처로운 영혼(靈魂), 4장-소년과 영혼(靈魂)의 장난, 5장-몸(身)과 혼(魂)의 일치 등 전체 5장으로 구성, 어린 시절 추억의 장을 펼친다. 황선희, 강미향, 윤은하, 안주희, 류권홍, 이현주, 김도은과 부산시립극단 단원 황창기가 특별출연한다.



이정인



황선희



- 관람료 균일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9월 이전 가입자는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2010 악기가족 이야기 종합편

악기가족 다 모여라!

8월 17일 목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이 동 신

바이올린, 피리 등 오케스트라 가족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공연 ‘악기가족 이야기’ 종합편 ‘악기가족 다 모여라’가 8월 1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음악회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악기 가족 이야기’는 동화구연과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악기 설명, 부산시립교향악단 앙상블팀의 연주와 악기 체험으로 어린이들에게 오케스트라의 이해를 도와주고 클래식음악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고 있다.

‘바이올린가족 이야기’ ‘나팔가족 이야기’ ‘타악기가족 이야기’ ‘피리가족 이야기’ 등 그동안의 악기 가족 시리즈를 아우르는 8월 종합편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바이올린, 나팔, 타악기, 피리 가족 등 오케스트라 전체 가족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어린이 음악회에서 가장 널리 연주되는 생상의 모음곡 ‘동물의 사육제’와 극단 동그라미그리기 배우들과 함께 하는 ‘함께 율동하며 동요를 불러요’ ‘이야기 감상 : 함께 해서 행복해요, 악기 마을 가족들!’, 어린이 친구들이 직접 참가하는 ‘지휘자가 되어 보아요’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과 만난다.

‘동물의 사육제’는 생상이 오스트리아의 한적한 도시에서 열리는 ‘사육제(카니발)’의 마지막 날 연주하기 위해 작곡한 음악이다. 이 곡은 모두 14곡으로 여러 동물의 특징을 재미있고도 풍자적으로 표현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곡 Introduction et marche royale du Lion’ ‘거북 Tortues’ ‘코끼리 L'elephant’ ‘수족관 Aquarium’ ‘빼꾸기 Le coucou au fond des bois’ ‘화석 Fossiles’ ‘백조 Le cygne’ 등 7곡을 들려준다.



- 관람료 R석(1층) 5,000원·S석(2층) 3,000원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한 여름밤 꿈의 합창축제

8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창원성산아트홀 대극장
 8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8월 24일 화요일 오후 8: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부산·울산·경남의 문화·예술적 교류와 발전을 위해 2001년부터 시작된 3개 시·도립합창단 교류 음악회 2010년 무대가 8월 17일 창원을 시작으로 부산, 울산 3개 도시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2010년 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 '창원시'로 새롭게 출발한 것을 기념해 창원시립합창단이 부산, 울산시립합창단과 연합합창단을 구성, 부산, 울산, 경남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개성 넘치는 3개 시·도 합창단이 150여명이 넘는 웅장한 합창단을 결성해 우리에게 친숙한 주요 합창음악을 선곡, 수준 높은 합창무대를 선사한다.

지휘는 지난해 울산시립합창단 김명엽 지휘자가 지휘한데 이어 올해는 창원시립합창단 윤의중 수석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다. 지휘자 윤의중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를 졸업하고 도미, University of Cincinnati 음악대학원(석사, 박사)에서 합창지휘를 전공하였다. 뛰어난 음악성과 세밀하고 정확한 지휘로 감동적이고 세련된 합창을 만들기로 정평이 난 윤의중 지휘자는 한국 합창계의 미래를 이끌고 갈 차세대 선두주자로 손꼽히고 있다. 2004년 독일 브레멘 합창올림픽, 2008년 오스트리아 그라츠 콰이어 올림픽게임 등 유명 경연대회 심사위원으로도 초청된 바 있는 윤의중 지휘자는 2005년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린 International Boy's and Men's Choir Festival에서 한국 최초로 객원지휘자로 초청받아 세계 각국에서 선발된 500여명의 연합합창단을 지휘한 바 있다.

2010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립합창단 교류음악회 첫 무대는 금관앙상블과 합창이 만나는 존 루터의 'Gloria'로 연다. 세상을 아름답게 느꼈던 작곡가 존 루터의 합창곡 'Gloria'를 금관앙상블과 오르가니스트 김원의 반주로 연합 합창단이 합창한다. 오르가니스트 김원은 계명대학교와 동대학원, 폴란드 쇼팽음악원 Postgraduate를 졸업하고 현재 경성대학교, 성덕대학, 부산예고 외래교수, 부산 신평로교회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합창과 금관앙상블, 오르간이 빛어내는 Gloria에 이어 여성합창 'Fly me to the Moon' 'Skylark' 'Cantate Domino', 남성합창 칸초네 메들리 '칸초네, 칸초네!(Canzone, Canzone!)'가 무대에 오른다. 피날레 무대는 '투우사의 노래(오페라 '카르멘' 중)' '개선행진곡(오페라 '아이다' 중)' '축배의 노래(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아리랑'으로 3개 시·도 연합합창단의 역사적인 무대를 장식한다. 특히 마지막 곡으로 불리어질 '아리랑'은 인천시립합창단의 작·편곡자인 우효원의 작품으로 해외에서 많은 감동과 사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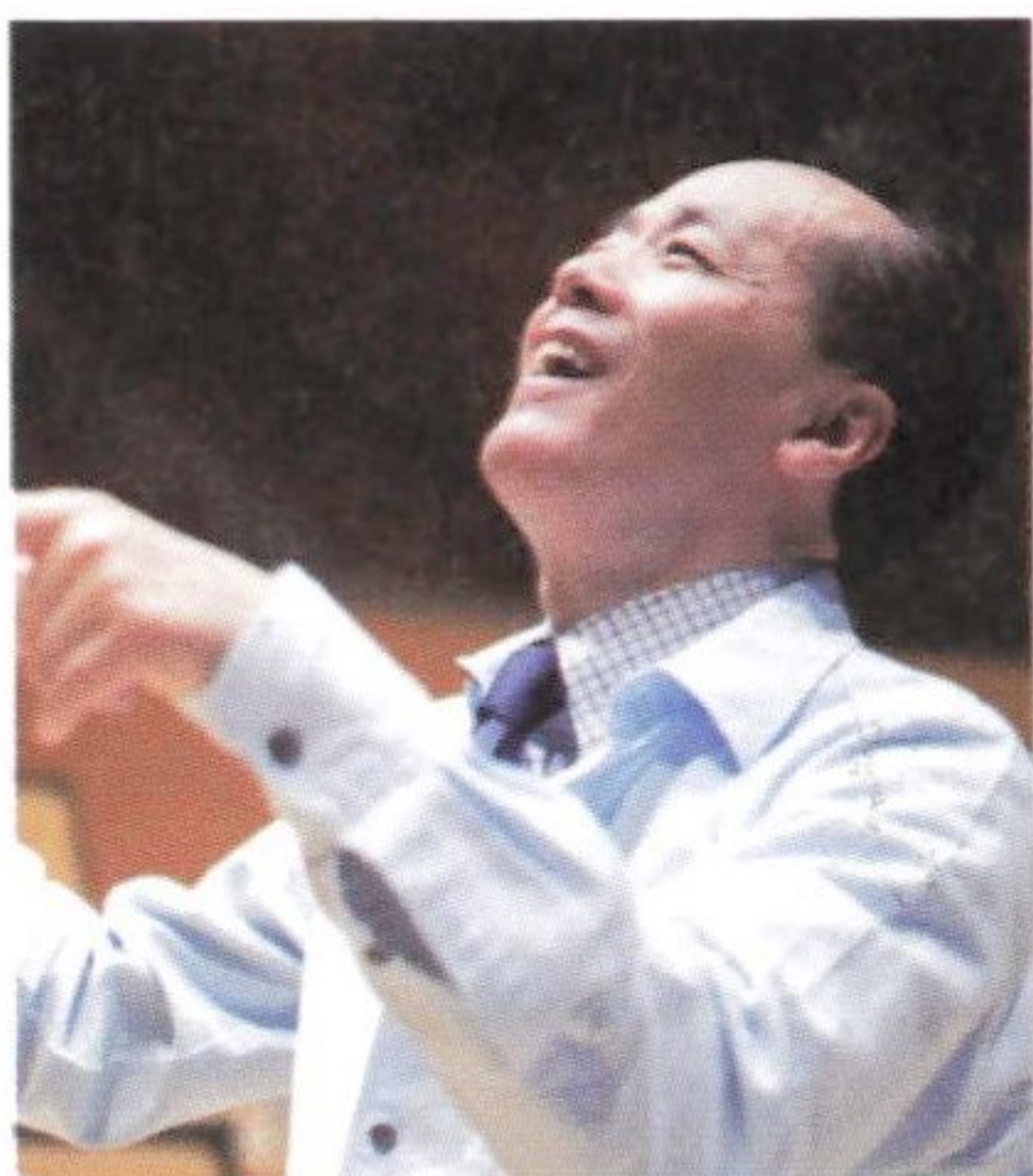


지휘 윤의중

- 관람료 균일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9월 1일 이전 정기회원은 회원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4)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 친구

8월 24일-25일 화-수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금난새



메조소프라노 김정화

매년 여름 부산의 청소년들에게 클래식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 친구' 2010년 무대가 8월 24일과 25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해설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금난새는 '도서관 음악회', '해설이 있는 오페라', '포스코 로비 콘서트', '캠퍼스 심포니 페스티벌', '뮤직 인 잉글리쉬' 등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롭고 신선한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선보여왔다. 기업과 예술의 성공적 만남을 이룬 공로로 2006 한국 CEO 그랑프리 문화예술부문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한 금난새는 현재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1995년 지휘자 금난새에게 발탁된 이후 뛰어난 음악성과 연기력, 관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청중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 메조소프라노 김정화가 부산의 청소년들과 만난다. 김정화는 지휘자 금난새의 저서 '열정과 도전'에서 '내가 아는 최고의 프로페셔널한 정신으로 무장한 메조소프라노' '관객을 압도하는 연기력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의 카르멘'이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경북대학교와 이태리 베스까라 Luisa D'annuncio 국립음악원, 이태리 로마 A.I.D.M 아카데미에서 음악수업을 마친 김정화는 현재 계명문화대학 생활음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올해는 지휘자 금난새와 메조 소프라노 김정화 콤비와 함께 조르주 비제의 대표곡 오페라 '카르멘'과 '아를의 여인'으로 시원한 음악여행을 떠난다. 비제의 최대 걸작으로 널리 연주되는 '카르멘'은 스페인의 세비야를 무대로 정열의 집시 여인 카르멘과 순진하고 고지식한 하사관 돈 호세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당시로서는 극의 내용이 부도덕하다는 이유에서 혹평을 받았으나, 무대 위의 극적 효과를 살리고 극과 음악의 융합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그 신선함은 오늘도 빛을 잃지 않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세비야 투우사들의 행진 음악인 '전주곡'과 1막에서 카르멘이 호세를 유혹하기 위해 부르는 '하바네라', 공장에서 다른 여공과 싸우고 체포된 카르멘이 호송하는 호세에게 자기를 풀어달라고 유혹하는 '세기달라', 호세를 위해 매혹적으로 부르는 '집시의 노래'를 들려준다.

비제의 또 다른 명곡 '아를의 여인'은 1872년, 알퐁스 도데의 희곡 '아를의 여인'의 부수음악으로 작곡되었다. '아를의 여인'은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 아를이라는 작은 농촌, 아를의 여인을 사랑하는 마을의 부자 청년 프레데리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모음곡 제 1번 중 옛 프랑스의 크리스마스 곡이라 일컬어지는 행진곡풍의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전주곡 'Prelude', 축제일의 농촌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 간주곡으로 연주되는 소박한 느낌의 춤곡 'Menuett'와 마을 사람들이 춤추는 파랑돌 무곡과 민요로 합창하는 3인의 왕 행렬과 합쳐 오케스트라용으로 편곡한 모음곡 제 2번의 'Farandole'을 들려준다.

- 관람료 균일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비엔그룹과 함께하는 제3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9월 2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기업 메세나 활동으로 새로운 공연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BN그룹과 함께하는 제 3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가 9월 2일 시민회관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는 세계적인 선박인테리어 전문그룹인 BN그룹이 지난 2008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시작한 무대로, 참신한 기획과 연주로 부산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 무대는 1회 연주회부터 무대에 서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의 화려한 막이 오른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 오충근이 지휘하고 소프라노 유미숙, 테너 박현재, 플루티스트 박지은, 하피스트 박라나가 협연한다.

이번 연주회의 테마는 '유럽 음악여행'. 고전음악가들의 모국이라 할 수 있는 '음악의 나라' 오스트리아를 시작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의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작품 299'를 비롯해 마스카니 오페라 '라미코 프리츠' 간주곡,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중 '사랑의 이중창', 그리고 부산무대에서는 좀처럼 만날 수 없는 라벨의 '라발스'를 들려준다.

고신대학교 오충근 교수가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03년과 2004년 문화관광부 주최 전국 순회음악회에 지방교향악단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2006년, 2007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축하공연과 2007년 부산국제합창제 전야 대음악회, 2008년 부산국제음악제 신년음악회 등 국제적 행사의 무대에 서왔다.

협연자로 이번 무대에 서는 소프라노 유미숙은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 이태리 Pesarò Rossini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명지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테너 박현재는 서울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 이탈리아 페스카라 고등음악원 오페라과, 프랑스 파리 크레페이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모차르트의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작품 299'를 들려줄 플루티스트 박지은은 미국 줄리어드 예비학교와 맨하탄음대, 예일대학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다. 함께 호흡을 맞추는 하피스트 박라나는 서울대학교 음대 재학중 도미, 줄리어드음악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D.M.A)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휘자 오충근



플루티스트 박지은



하피스트 박라나

• 관람료 VIP 10,000원 ·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 A석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KNN(1577-7600)

참여, 나눔, 즐거움



8월 11일(수)-15일(일) 민주공원, 가톨릭센터, 영화공간 보기도문, MBC롯데아트홀 등

국내 유일의 어린이영화제인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가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민주공원, 가톨릭센터, MBC롯데아트홀 등에서 펼쳐진다.

5회를 맞는 올해 영화제는 한국, 러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덴마크, 미국, 네팔, 인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프랑스, 체코, 아르헨티나, 일본, 스웨덴, 독일 등 세계 23개국 136여편의 작품들을 초청, 즐거운 영화세상을 연다.

제 5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의 타이틀은 '이야기 속의 우주(Once upon a time in my universe)'. 드넓은 우주를 상상하는 어린이들이 꿈과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세계 각국의 작품들이 큰나래 모음(BiKi Feature Films), 작은나래 모음(BiKi Short Films), 비키 어린이 제작영화 모음(BiKi Short Films by Kids), 비키 친구들 추천영화 모음(BiKi Friends' Choice) 등 4개 섹션으로 나뉘어 펼쳐진다. '큰나래 모음'에는 장편 초청작 17편을, '작은 나래 모음'에는 국내외 우수 단편 54편을 상영하고 '비키 어린이 제작영화 모음'에서는 어린이들이 만든 어린이영화 레디 액션작품과 어울림 작품 46편을, '비키 친구들 추천영화 모음'에서는 CIFEJ(국제아동청소년연맹), TICFF(대만국제어린이영화제)의 추천영화를 상영한다. 주요 초청작은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민주공원 큰방, 작은방, 가톨릭센터 아트씨어터 씨앤씨, 영화공간 보기도문에서 상영된다.

개막작으로는 러시아 세르긴 세르게이 감독의 '앨리사의 생일', 폐막작으로는 한국 김태균 감독의 '맨발의 꿈'이 선정되었다. 개막작 '앨리사의 생일'은 러시아의 유명한 어린이동화 작가 길 불리체브(Kir Bulychev)의 공상과학 소설 '일리사 세레

즈노바(Alisa Seleznyova)'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영화로 8월 11일 오후 3시 MBC롯데아트홀에서 열리는 BiKi 개막식에서 한국 프리미어로 상영된다. '앨리사의 생일'은 어린 시절 누구나 꿈꾸는 외계인 친구와의 우주여행을 비롯해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는 시간여행, 개성 있고 생동감 넘치는 외계인 캐릭터들과 함께 펼쳐지는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우주 모험 이야기로 어린이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8월 15일 주 상영관인 민주공원 큰방에서 폐막식과 함께 상영될 폐막작 '맨발의 꿈'은 월드컵의 열기와 함께 감동의 드라마를 선사한 화제작이다. 꿈도 희망도 없던 절망의 나라 동티모르를 사업차 찾았던 김신환 감독은 맨발로 축구를 하던 아이들과 유소년 축구단을 결성해 1년도 되지 않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제 30회 리베리노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에서 6전 전승 우승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 외에도 '작은나래 모음' 섹션에서는 매년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와 교류해온 유니세프의 '어린이의 권리를 위한 애니메이션 시리즈'와 올해 비키의 슬로건인 '이야기 속의 우주'를 담은 러시아 전래동화 애니메이션 시리즈 '마샤와 곰' 등이 부산 어린이들을 찾아온다. 또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의 유일한 경쟁부문으로 1회 때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사랑받아온 '레디~액션!' 20편과 '어울림' 26편이 각 상영관에서 무료로 상영된다.

영화제 기간 중 영상나눔마당, 포스터공모작 전시회, 비키 바다영화상영, 비키골목극장, 애니메이션 콘서트, 휴가철 한마당, Film & Fun, 비키영화놀이터, 어린이영화캠프 등 시민과 어린이에게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진행한다.



앨리사의 생일



맨발의 꿈



토벤의 모험



소인국

■ **개막식**

8월 11일 수요일 오후 3:00 MBC롯데아트홀
식전 축하공연 및 개막작 '앨리사의 생일(Alisa's Birthday, 러시아)' 상영

■ **폐막식**

8월 15일 일요일 오후 3:00 민주공원 큰방
식전 축하공연 및 어린이 제작영화 '레디 액션' 시상식, 폐막작 '맨발의 꿈(A bare foot dream, 한국, 121분)' 상영

■ **초청작 상영**

8월 12일(목)~14일(토) (1일 4회) 민주공원 큰방/작은방, 가톨릭센터 아트씨어터 씨앤씨, 영화공간 보기도문

■ **야외상영**

8월 12일(목)~14일(토) 오후 8:00 민주공원 야외무대
큰나래 모임(장편 초청작), 작은나래 모임(단편 초청작), 비키 어린이제작영화모임 : '레디 액션' '어울림', 비키친구들(CIFEJ, TICFF) 추천작모임 등 4개 섹션 초청작 상영

■ **포스터 공모작 전시회**

7월 19일(월)~8월 14일(토) 가톨릭센터 대청갤러리
제 5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수상작 전시회

■ **영상나눔마당**

7월 21일(수)~8월 10일(화) 아름다운가게 전 매장
어린이 관련 물품 및 영상관련 서적, VHS, DVD 등 기증자에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나눔티켓 증정

■ **비키 바다영화상영**

7월 30일(금)~8월 7일(토) 송도해수욕장 등
부산시내 해수욕장에서 야외 영화 상영

■ **보수동책방골목문화행사-비키골목극장**

8월 6일(금)~8월 8일(일) 보수동 책방골목
보수동 책방골목과 함께하는 야외 영화 상영회

■ **애니메이션 콘서트**

8월 10일(화) 오후 2:00, 7: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 **비키 가족의 날**

8월 14일(토)
어린이 자원봉사단 BiKiDS가 기획한 잔치 한마당

■ **민주공원과 함께하는 휴가철 한마당**

8월 11일(수)~14일(토) 오후 6:30~8:00 민주공원
야외 영화 상영 전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놀이를 구성, 영화와 문화공연을 여름 휴가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한마당

■ **Film & Fun**

8월 12일(목)~14일(토) 오전 10:00~오후 5:30 민주공원
영화감상 및 문화예술놀이 프로그램 운영

■ **비키 영화놀이터**

8월 12일(목)~14일(토) 오전 11:00~오후 5:00 민주공원 야외광장
영상관련 체험부스(소마트로프, 잔상팔랑개비, 잔상굴레 등) 운영

■ **어린이 영화캠프**

8월 12일(목)~14일(토) 오전 10:00 동명대학교
영상미디어 교육과 영상체험(모바일영화 제작) 및 문화체험

- 입장권 : 개막작 7,000원 · 일반 상영작 5,000원, Film&Fun 3,000원 · 애니메이션 콘서트 15,000원
우리반 티켓 60,000원(같은 반 학생 20명이 단체 관람할 수 있는 티켓)
우글우글 티켓 30% 할인(10인 이상 단체가 함께 볼 수 있는 티켓) · 4인 가족 가족티켓 12,000원
- 문 의 :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743-7652~5, www.biki.or.kr)



- 12세에 동아 콩쿠르 대상 수상
-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재단 콩쿠르, 워싱턴 메리웨더 포스트 콩쿠르 입상
- 세계 3대 바이올린 콩쿠르인 몬트리올 콩쿠르, 런던 칼 플레쉬 콩쿠르, 브뤼셀 퀴엘리자베스 콩쿠르 차례로 석권
- 롱 티보 국제 콩쿠르 최연소 심사위원 위촉(1981)
- 윤이상 협주곡 3번 아시아 초연
- 2000년 부터 간염퇴치명예대사로 매년 희망콘서트 진행
- 프랑스 꾸웨빌에서 열리는 뮤직알프 여름음악캠프 예술감독 역임
- 제7회 한불문화상을 수상, 제3회 쇼메 음악인상(2007년), 제4회 대원음악상 대상(2009년) 등 수상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음악감독 바이올리니스트 강 동 석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이 2010년 가을 첫 닳을 올리는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음악감독으로 부산과 특별한 인연을 맺는다. 8세대 가진 첫 연주회로 '신동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린 강동석은 세계무대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치며 우리의 음악성을 널리 알려왔다. 부산마루국제음악제를 앞두고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강동석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음악감독을 맡으면서 부산마루국제음악제의 음악감독으로 부산을 다시 찾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음악제를 통해 부산의 문화생활에 기여하며 또한 부산시민들과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뮤직알프 여름음악캠프,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의 예술감독, 그리고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뮤직알프 여름음악캠프와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는 서로 다른 성격의 행사이며 부산마루



국제음악제 역시 두 행사와는 또 다른 성격의 음악제가 될 것입니다. 부산마루국제음악제는 짧은 일정이지만 오케스트라에 더 중점을 둔 음악제로 일정의 절반은 오케스트라에, 나머지 절반은 실내악을 연주하는 음악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제 비슷한 성격의 음악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부산마루국제음악제는 어떤 특정 음악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산마루국제음악제는 부산만의 고유한 개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그렇기에 모든 부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과의 특별한 인연 저는 주로 서울에서 자랐지만 어릴 적 부산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부모님께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셨고 그때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지요.

故 배도순 선생님과 만남 배선생님께서 저의 첫 바이올린 선생님이셨지요. 서울에서 제가 살던 집 근처에 있던 배선생님의 학원에서 선생님께 레슨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배도순 선생님과 추억은 소중한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달라진 한국의 위상 물론 지난 40년간 세계의 음악계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저를 비롯한 많은 음악인들이 학업을 위해 뉴욕 등 외국으로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의 음악계는 이제 막 성장하는 단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한국은 수 많은 젊고 재능있는 음악인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시아계 음악인들은 이제 서양 음악계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후배,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가르침 제가 젊은 음악인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더 독립성을 갖고 자신만의 음악적 길과 철학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한국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곤 합니

다. 학생들은 더 열린 마음으로 호기심과 열정으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며 그저 악기 연주자에 그치지 말고 균형 잡힌 음악인이 되어야 합니다.

연주자로 찾는 부산 부산 방문은 항상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클래식 음악에 조예가 깊고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 크게 늘어난 것 같아 기쁩니다. 부산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더 아끼고 사랑하며 발전시킨다면 세계적인 아름다운 도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추천 프로그램 이번 음악제의 주제는 '프랑스의 향기'입니다. 프랑스 작곡가의 음악과 훌륭한 프랑스 연주자들의 연주를 솔로리스트 혹은 실내악 연주로 감상하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다 특별하며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한 두 프로그램 또는 연주자를 추천하기는 어렵네요.

바이올리스트 강동석으로 서는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저는 화음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2중주 협주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곡은 멘델스존이 13살 때 작곡한 곡입니다. 또한 슈만의 피아노 5중주와 차이코프스키의 6중주 그리고 드보르작의 소나티나 등을 실내악 연주회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전곡이 클래식을 사랑하시는 분들께 유명하며 사랑받는 곡들입니다.

앞으로 계획 부산마루국제음악제가 끝나고 중국 상해 엑스포에서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의 일환으로 공연을 할 예정이며 그 후에는 '강동석의 희망 콘서트'로 영국의 유명한 잉글리쉬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다시 부산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번 '희망 콘서트'는 11년째를 맞이하며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주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마루국제음악제와 다른 여러 클래식 공연들에도 부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정리/백경옥)

은현리에서 돌고래 떼를 만나다

정일근 _ 시인, 경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사진/정일근

여름 바다에서 은현리로 돌아와 땀과 파도에 젖은 얼굴을 씻으려 마당 수돗가에서 물을 받습니다. 무심히 세숫대야에 물을 받는데 수도꼭지에서 난데없이 돌고래들이 쿵쿵쿵 튀어나옵니다.

맙소사! 꿈인 줄 알았는데 진짜 고래입니다. 세숫대야는 어느새 바다로 변해버렸고 수천마리 돌고래들이 거침없이 유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고래바다'(鯨海)가 동해에만 있는 줄 아는데 은현리 제 세숫대야 속에도 있었나 봅니다.

오늘은 배를 타고 동해 먼 바다까지 고래를 보러갔다 왔습니다. 가끔 고래를 만나러 가는 일은 제 삶에



2% 부족한 소금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이 요리라면 고래와의 만남은 일상이라는 음식에 최고의 맛을 내는 간을 맞추는 일입니다.

무더운 여름은 은현리에서 사람을 가장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작열하는 태양 아래 어린 감들이 포록포록 소리를 내며 익어 가는데, 접시꽃 낮달맞이꽃 수세미꽃 오이꽃도 뜨거운 여름 햇볕 속에서 싱싱하게 자신의 색깔을 펼쳐 보이는데, 하물며 우리가 잡초라 이름 부르는 풀들도 절정의 무성한 시간을 만드는데, 사람만이 하는 일 없이 제일 먼저 지쳐버립니다.

지치고 힘든 날이 계속되면 저는 바다로 가 배를 탑니다. 고래를 만나서 소금을 선물 받고 싶어 서입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바다에서 고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틀린 말일 것입니다. 고래는 저를 보았는데 제가 고래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다에서 은현리로 돌아오는 길 내내 삶이 텅 빈 주머니처럼 허전했습니다.

아아, 그래서 돌고래들이 바다에서 수도관을 타고 저를 만나러 왔나 봅니다. 감나무 잎사귀 그늘에 숨는 돌고래, 옥수수 밭 사이로 수수수수 소리를 내며 뛰어가는 돌고래, 호박 줄기를 따라 빙글빙글 묘기를 부리는 돌고래. 어느새 돌고래들이 은현리 마당에 가득합니다.

뉴에이지 명사가 다릴 양카는 사람이 돌고래와 대화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 명사는 우주와 채널링, 정신적 교신을 하는데 우주에서 지구별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돌고래는 텔레파시를 매우 잘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별과도 연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당신들이 그들의 꿈을 나눠 가지십시오.”

그 꿈이 저는 수평선일수도 있고 소금일 수도 있고 파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절대고독에 빠지고 때로는 두려움을 떠는 망망대해에서도 언제나 즐거운 돌고래의 웃음이라고도 생각합니다.

8월 내내 돌고래들은 은현리에 머물 것 같습니다. 혹시 은현리를 찾아오시다 불쑥 바다가 펼쳐진 다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불쑥불쑥 돌고래가 당신을 불심검문을 해도 웃음으로 그 검문에 응해주십시오. 가끔 제가 돌고래의 등을 타고 몽계구름 사이로 날아다녀도 그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나무와 꽃과 새와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돌고래와의 대화도 가능하고, 돌고래로부터 소금 같은 꿈, 우주의 꿈을 선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 그리고 사람들...

이제걸 _ 프랑스 소르본대학 예술사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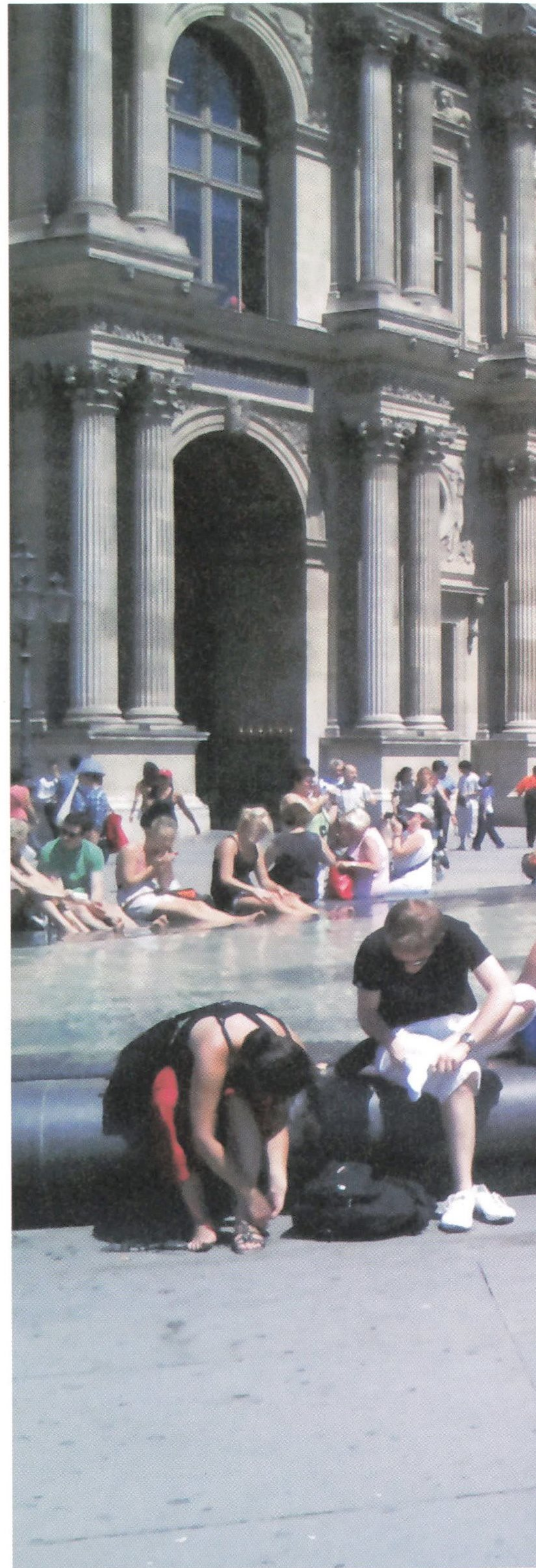
겨울에는 여름이 이렇게 까지 더우리라고는 상상을 잘 하지 못한다. 매년 찾아오는 여름이지만 막상 닥쳐봐야 부랴부랴 짧은 옷가지며 얇은 이불보 그리고 먼지에 폭 절은 선풍기를 꺼내며 실감하게 된다. 그렇게 또 한번 새롭게 찾아온 여름도 벌써 그 정점을 향하고 있다. 파리의 여름은 상대적으로 습하지 않아서 더위가 괴롭지만은 않다. 오히려 비와 구름이 걷힌 선명한 태양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들의 축제 열기가 더 뜨거운 게 파리의 여름이다. 파리의 변화가에서는 밤늦은 시간까지 음악소리가 울려 퍼지고 새벽 1시가 넘은 지하철 막차 안에서도 한낮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여름에는 할 이야기들도 많은가 보다. 겨우내 한적했던 노천카페를 가득 메운 여름의 파리지앵들은 시원한 백포도주나 로제포도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며 시끌벅적하다. 직장인들도, 동네할머니들도, 가족과 함께 외식 나온 아이들도 유난히 여름에는 할 말이 많은가 보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장난기 가득한 여름햇살은 사람들의 표정을 만가지로 변화시킨다. 겨울 잿빛이 하늘을 뒤덮기 전에 곧 떠나갈 이 총천연색의 여름을 조금이라도 더 기억하려고 파리지앵들은 여름을 열심히 산다. 그래서 인지 파리의 분수대며 잔디밭은 관광용이 아닌 열심히 사는 여름사람들이 뛰어들고 드러누울 수 있게 개방되어 있다. <잔디가 아파요>, <들어가지 마시오> 등의 푹말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사람들이 있어 더 아름다운 파리의 분수대와 광장의 잔디밭은 그렇게 파리지앵의 여름의 추억 속에 작게나마 남겨진다.

보쥬광장(Place des Vosges)은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광장 중 하나로 17세기 초 루이 13세 때 완성되었다. 프랑스의 대 문호 빅토르 위고가 살았던 곳으로 특히 유명하다.

파리는 뻑뻑히 들어선 건축물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큰 돌덩어리이다. 그 이유로



루브르 박물관 분수대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 관광객들





▲ 보쥬광장(Place des Vosges)

▼ 점심식사시간의 한 비스트로(Bistrot), 일반 노천카페와는 약간 다른 성격의 카페로 음료 뿐만이 아니라 서민적 메뉴로 구성된 식사도 제공한다.



도시환경계획 중 가장 큰 중요성을 띠는 주제는 단연 자연이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공구조물들보다, 도로나 하천 변에 <자연스럽게> 자리잡은 가로수들에 대한 관리에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붓는다. 물론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파리의 어느 곳에서든지 푸른 나뭇잎을 사시사철 볼 수 있으며, 이 녹색환경이야 말로 에펠탑이나 루브르 박물관보다 더 파리를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다. 파리를 소개하는 관광가이드 책자 속의 수많은 사진들 속에서 가로수나 화단 혹은 잔디밭이 빠진 장면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음은 모든 이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웅장하고 위엄 있는 역사적 건축물들이, 인공적이기는 하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어우러지는 모습은 한마디

로 아름답다. 그래서 현재가 아름다운 파리는 몇 십 년이 지나도 거의 변함이 없는 것이다.

푸른 하늘과 나뭇잎 그리고 강물의 조화가 정겨운 파리의 여름풍경을 자아낸다.

갑자기 프랑스 친구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너무나 화창한 날씨 탓에 집에만 있기에는 답답했던 터라, 앵발리드(Hotel des Invalides) 앞 잔디공원으로 약속을 잡았다. 아직 월드컵의 열기가 남아 있어서인지 축구공도, 그리고 여름에는 빠질 수 없는 시원한 맥주도 어김없이 챙기고... 앵발리드는 원래 루이 14세 시대에 전쟁 부상병을 위해 창설한 요양소이다.



▲ 앵발리드 앞 잔디밭에서 공놀이를 즐기는 사람들.

▼ 알렉산드르 3세 다리에서 바라본 센느 강변



파리 시 중심의 센느 강변에 위치한 이 화려한 건축물은 지금은 군사박물관과 나폴레옹의 묘소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파리지앵들에게는 오히려 건물 앞의 광활한 잔디밭으로 더 유명한데,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공놀이를 하고 피크닉을 즐기는 공원 개념이 더 강하다.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증거 앞에서 아이러니하게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채롭다.

“나는 내가 깊이 사랑한 프랑스 국민들에게 둘러싸여 센느 강에서 쉴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나폴레옹의 유언이 떠올른다. 이 불행했던 전쟁영웅의 자그마한 소원 하나는 적어도 이루어진 듯하다. 아무튼 길어진 해 덕분에 저녁 10시가 다되어서야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지는 해가 여전히 아쉽긴 했지만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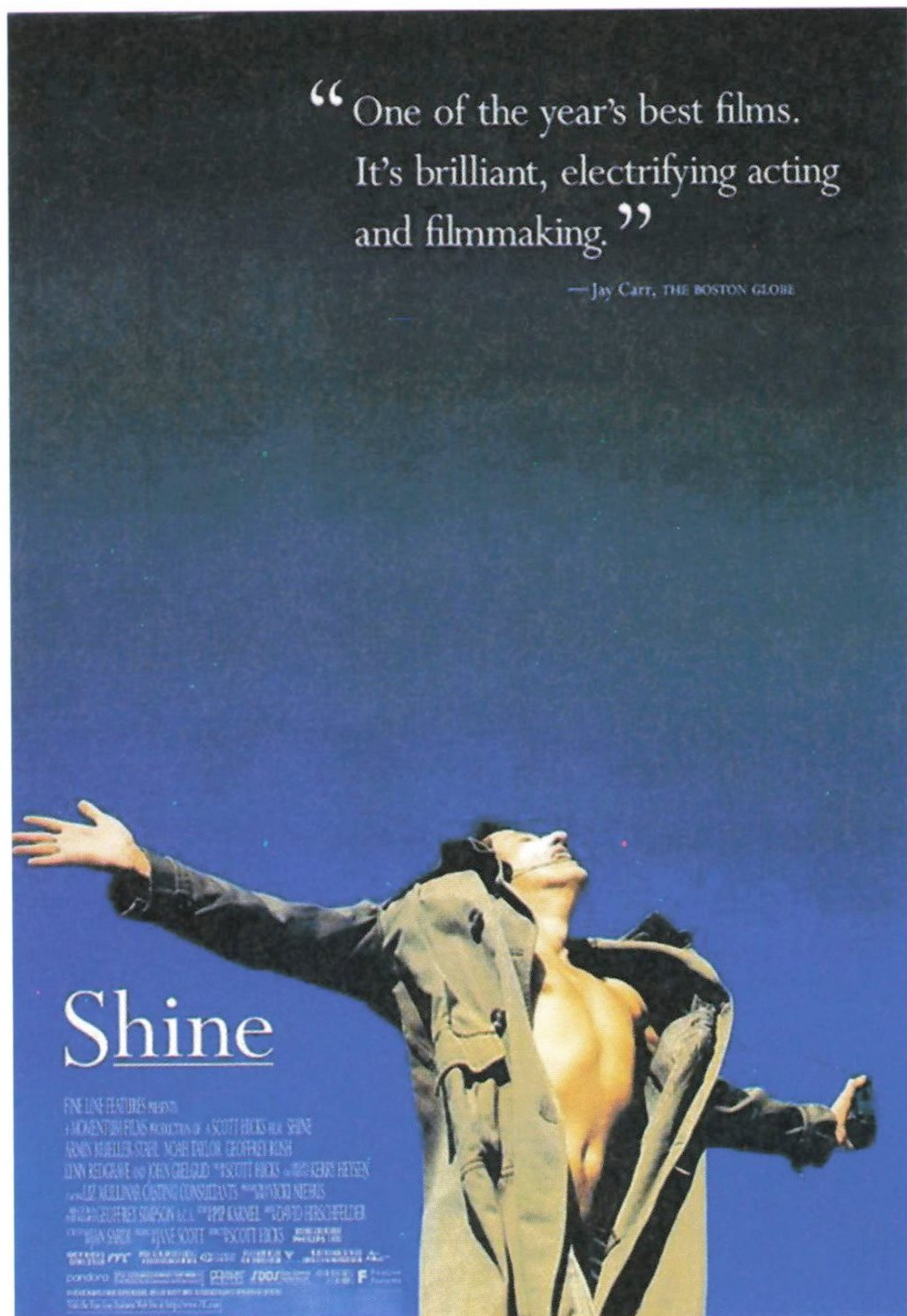
리 한복판에서 즐긴 피크닉은 즐거웠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모여 같은 여름날의 추억을 하나 더 했다.

덥고 불편하기만 한 여름이 아니라 작은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여름을 보내기 위해 사람들은 노력한다. 행복하다고 쉽게 단정짓지는 못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 체만큼은 뚜렷한 의미로 다가온다. 여름이 즐거운 이유에는 여름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이야말로 한 여름의 태양보다 더 열정적이며, 강변의 가로수보다 더 푸르며, 아름다운 파리보다 더 아름답지 않은가. 나의 올 여름도 또 다시 사람들로 채워진다. 나도 누군가의 여름 이야기 이길 바라면서...

영화 샤인

이동신 _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정신분열증에 걸린 천재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헬프갓'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샤인'

1996년에 개봉한 영화 <샤인>은 정신분열증에 걸린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헬프갓'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허름한 외투 한 장 만을 걸친 채 하늘을 향해 뛰어오르는 사내의 모습이 인상적이던 이 영화는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과 집착으로 인해 정신분열증까지 겪지만 한 여인의 사랑으로 재기에 성공한 천재 피아니스트의 삶을 그린다.

어느 날 밤 빗속을 헤매던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레스토랑으로 뛰어든다. 심하게 말을 더듬거리는 그는 피아노를 찾아 그곳까지 온 것이다. 레스토랑의 손님들이 비웃는 가운데 그는 연주를 시작한다. 15년이나 정신병원에 있다 나온 그의 압도적인 연주를 지켜보던 레스토랑의 손님들은 감탄과 환호를 멈추지 않는다.

엄격하고 독선적인 아버지 피터는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꿈에 집착하여 아들 데이비드를 피아니스트로 대성시키는데 바친다. 비범한 재능으로 저명한 음악가의 관심을 끈 데이비드는 장학생으로 미국 최고의 음악 학교로의 유학을 권유받는다. 그러나 아들을 세파에 뺨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피터는 유학을 반대한다. 주체할 수 없이 넘쳐나는 음악성과 그를 가두려는 아버지와의 심한 갈등 속에서 데이비드는 중년의 여성작가 캐서린을 알게 된다.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미숙했던 데이비드에게 캐서린은 그의 정신세계의 큰 버팀목이자 밑거름이 되어준다.

캐서린과의 만남으로 용기를 얻은 데이비드는 영국 왕립음악원으로 떠날 것을 결심한다. 이로 인하여 결국 부자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아들은 아버지와 의절을 한 채 유학을 떠난다. 데이비드의 재능은 빛나기 시작하지만 반대로 정신 상태는 어눌해지는 말투와 더불어 유아기적으로 퇴행해간다. 결국 그는 그



화려한 명곡을 만날 수 있는 영화 '샤인' OST에서 피아노 연주는 실제로 데이비드 헬프갓이 직접 연주했다.

실제의 데이비드 헬프갓

토록 바라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완벽하게 연주한 직후 곧바로 기절하고는 정신병자가 된다. 그의 육체는 정신병원에 갇히지만 음악적인 열정과 갈망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며 이 영화는 이렇게 아름다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려 나간다.

감독 스콧 히스는 우연히 오스트레일리아 지방신문에 실린 흥미로운 기사 한 편을 읽는다. 한창 촉망받던 시기에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세상에서 잊혀져버린 천재 피아니스트의 재기에 관한 내용이었다. 실제로 감독은 데이비드 헬프갓과 그의 부인을 만나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요청하였다. 데이비드는 실제로 약간의 정신분열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고 스토리를 추측하고 전체 각본을 완성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데이비드 헬프갓이라는 한 사람의 특별한 인생을 통해 우리 삶을 관통하는 여러 측면, 즉 아버지와 아들 등 가족사적인 문제, 역사와 시대사회적인 영향, 예술가로서의 고뇌 등을 시적으로 다루고자 했습니다” 감독의 말이다.

이 영화는 호주 아카데미에서는 후보에 오른 11개 부문에서 전부 수상했고 골든 글로브와 아카데미에서는 제프리 러쉬가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성인 데이비드 헬프갓의 역할을 맡은 제프리 러쉬는 현재 호주 최고의 배우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는 영화 <샤인>을 위해 260일 이상을 피아노 연습에 매진했다. 한편 OST의 피아노 연주는 실제로 데이비드 헬프갓이 직접했다.

음악가를 소재로 한 영화이니만큼 많은 명곡들이 영화 전편에 흐른다. 무대에서 쓰러지기 전에 데이비드가 연주했던 곡은 당시에 가장 어려운 곡으로 손꼽히던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이다. 러시아의 대륙적인 넓이와 풍부한 감수성과 함께 높은 기교를 요구하는 피아노 협주곡 중의 명곡이다.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서 생활하던 중 햇살 아래로 뛰어나와 황홀한 표정을 지으며 하늘을 향해 뛰는 그의 표정과 함께 비발디의 칸타타 '세상의 참 평화 없어라'가 어우러진다.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고 작곡했다고 전해지는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은 데이비드가 캐서린을 만나 새로운 삶의 평온함을 느끼는 장면과 함께 연주된다. 미친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하고 그의 타고난 기교를 선보이며 신들린 듯 카페에서 연주한 곡은 립스키 코르샤코프의 '왕벌의 비행'이다. 빠른 템포의 경쾌한 이 곡은 실제로 데이비드가 즐겨 연주하는 곡이기도 하다. 뇌일혈로 인해 왼손을 쓰지 못하는 교수와 데이비드가 나란히 피아노에 앉아 왼손과 오른손 파트를 나누어 치는 리스트의 '라 캠파넬라 La Campanella'도 잊을 수 없는 명곡이다.

아름다운 내용만큼이나 화려한 명곡들을 만날 수 있는 영화 <샤인>은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면서도 성공을 좇는 모순적인 삶을 사는 데 반해 피아노를 통해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얻는 한 피아니스트의 위대한 삶을 그린 음악영화의 수작이다.

음악과 더불어 살아있는 쇼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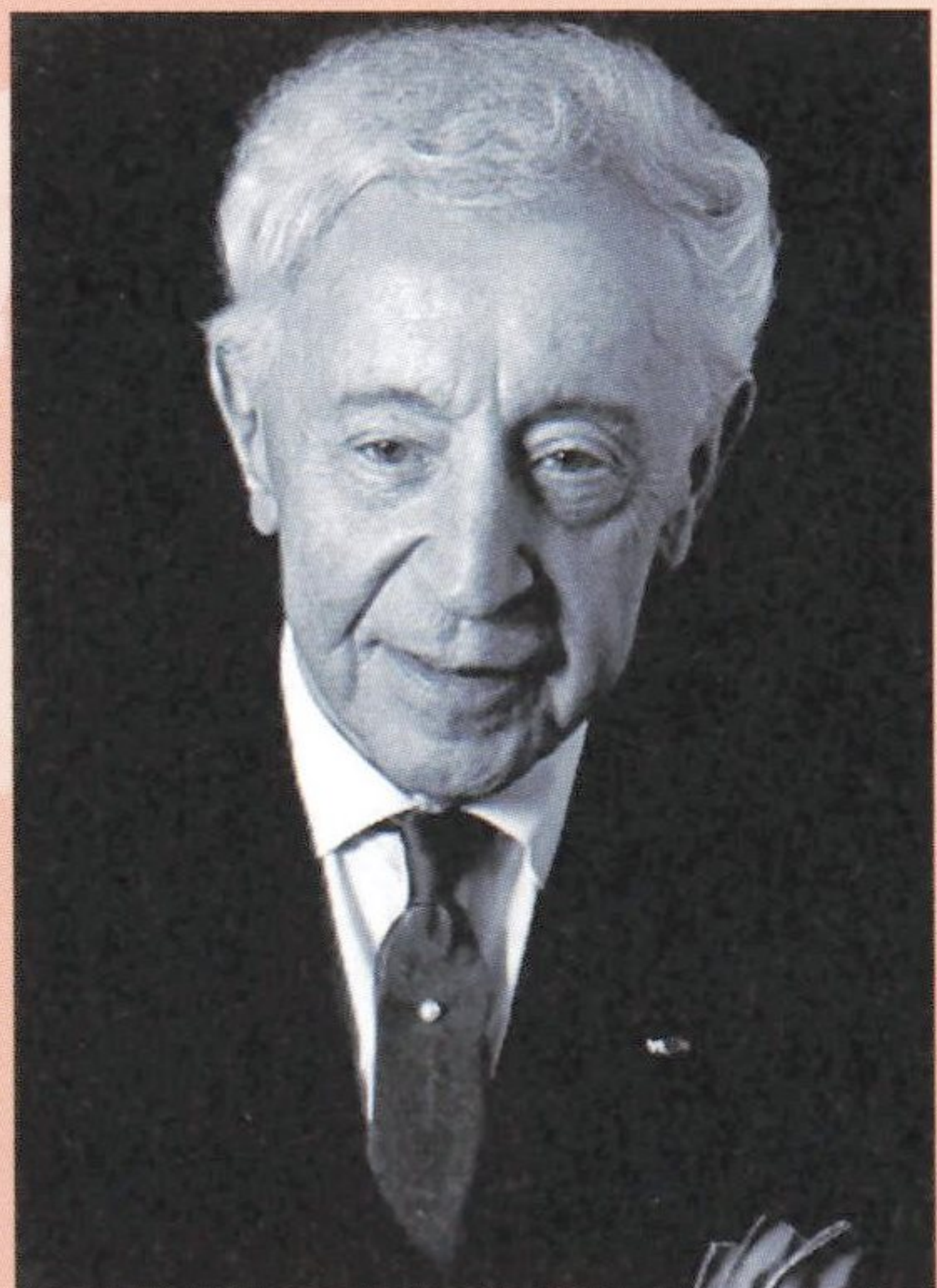
노경원 _ 피아니스트, 인제대학교 교수,
김해국제음악제 예술감독

몇 개월에 걸쳐 역사와 학문적 다각도에서 쇼팽을 접근해왔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의 음악으로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는 피아니스트들의 소개를 빠뜨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쇼팽’하면 우선 떠오르는 피아니스트는 누가 뭐래도 단연 아르투르 루빈슈타인(Artur Schnabel 1886-1982)이다. 영롱하면서도 섬세한 레가토, 여성적이고도 병약했던 쇼팽의 이미지 때문에 작은 소리만을 고집했던 당시 사람들의 통념을 깨고 화려한 연주로 인기몰이를 했었지만 잦은 실수와 부정확한 연주들로 ‘미완성의 대가’라는 혹평을 받기에 이른다. 그 후 36세의 나이에 4년간 무대에서 사라져 오로지 연습, 연구에만 전념, ‘6개의 손과 30개의 손가락을 가진 사람’이란 극찬을 받으며 무대로 돌아오게 된다. 50세부터는 기교 이외에도 따뜻한 인간성과 낭만성이 겸비된 열정적 음악으로 쇼팽 연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현재까지도 가장 쇼팽다운 연주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쇼팽과 같은 폴란드 출신으로 베를린에서 칼 하인리히 바르트를 사사하고 막스 부르흐에게 음악이론을 배웠으며 요제프 요하임의 지휘로 13세에 베를린에 데뷔했다. 요하임의 추천으로 폴란드의 국민적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파데레브스키(Ignacy Jan Paderewsky 1860-1941, 후에 폴란드 수상이 됨)를 사사한 뒤 16세에 파리로 가서 생상(Camille Saint-Saëns, 1835-1921)으로부터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연주자’란 찬사를 받기에 이른다.

70세 무렵부터 세련된 음악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던 백발의 노장에게는 귀족적이고도 큰 스케일 속에서도 섬세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이끌어 내는 노련함이 가득하다. 무대 공포증 극복을 위해 청중 중에 아름다운 여인을 택해 그 날의 연주를 바친다고 생각했었다는 이 마지막 낭만주의자(낭만주의 시대의 마지막에도 걸쳐있음)는 이후 자신의 재능을 삶의 즐거움으로 투영,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했었다. 그의 쇼팽 음악에 대한 열정은 11장에 이르는 쇼팽의 음반들로 남아있다. 특히 녹턴, 피아노협주곡, 즉흥곡 등의 음반은 그만의 쇼팽적 감각과 음악성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윤기있고 선이 굵은 연주, 그러면서도 유연하고 또한 슬픔이 가득 담긴 쇼팽의 벨칸토를 구사하고 있다.

쇼팽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조국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는 1927년부터 5년 격년으로 쇼팽 국제피아노콩쿠르가 개최되어 루빈슈타인의 뒤를 잇는 많은 쇼팽 스펙셜리스트들을 배출하고 있다. 그 입상자들의 음반 중에는 루빈슈타인이 콩쿠르 당시 극찬했던 마치 다이아몬드의 세공품처럼 정교한 폴리니(Maurizio Pollini)의 에튀드, 세련된 낭만성과 열정이 넘치는 아르게리히(Martha Argerich)의 프렐류드 등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명반들이다. 그 밖에도 코르토(Alfred Cortot)와 소콜로프(Grigory Sokolov)의 에튀드, 아쉬케나지(Vladimir Ashkenazy)의 발라드 - 첫번째 녹음인 1964년 음반이 더 뛰어남-, 길레스(Emil Giles)의 쇼팽 장송소나타, 리파티(Dinu Lipatti)와 프랑소아(Samson Francois)의 왈츠 등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쇼팽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고 있다.



놀랍도록 유창한 외국어 실력

다이앤 스틸명크스 _ 국제부인회 회원, 미국인

나는 부산에 사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큰 도시에서 사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 2009년 6월에 미국 아이오와주 듀뷰크를 떠나 남편과 함께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산은 내가 살았던 듀뷰크와 비교 할 수 없는 아주 번창한 대도시입니다. 미국 중서부에 있는 우리의 작은 마을은 부산과는 무척 다릅니다. 듀뷰크는 주민이 6만 명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입니다. 아이오와주에서는 8 번째로 큰 도시인데 듀뷰크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10층입니다. 그리고 1년에 평균 1m정도의 눈이 옵니다. 지난 3월에는 우리 딸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지붕이 눈에 덮혀 있는 모습의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는 해운대에서는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사는데 아이오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런 대도시 생활에 얼마나 쉽게 적응했는지 우리 스스로 놀라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사람들 대부분은 영어만 할 줄 압니다. 거의 모든 미국 대학들은 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적어도 2년간 외국어 공부를 요구합니다. 한국과는 달리, 아이오와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고등학교 이전에는 외국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여기 한국과는 달리, 대부분의 미국사람들은 영어만 유창하게 합니다. 나는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우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딸들이 10~15살일 때 우리는 멕시코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것과는 아주 달랐지만, 그것도 아주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딸들은 그곳 학교에 다녔

는데 교육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큰애는 스페인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할 정도로 배웠는데,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서 나중에 직장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처럼 미국에서도 2개 국어를 구사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크게 유리합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에는 눈내리는 듀뷰크가 생각납니다. 이것은 아이오와의 우리 집 뒤뜰 사진입니다. 우리 집은 멋진 뜰과 좋은 이웃이 있는 동네에 있는데 남편 직장에서 약 10마일(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이오와에는 대중교통이 별로 없어서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4대의 차가 있는데 모두 오래된 모델들입니다. 그 중 하나는 눈과 얼음으로 길이 덮여있을 때 수렁에서 빠져 나오기 쉬운 지프차입니다. 우리 집에는 3대의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차고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지하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어울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커다란 거실공간이 되어주었습니다. 나는 과자 굽기를 좋아하고 아이들은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항상 10대들로 가득하곤 했습니다. 나는 가정학과 특수교육을 전공했지만 몇 년 동안만 일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엄마들이 아이들을 누구에게든 맡기고 일을 해야 하지만 나는 다행스럽게도 일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천 2동 태극도마을

부산의 새로운 명소 벽화마을

미로처럼 뒤엉킨 좁은 골목길 따라 세월의 더께가 내려앉은 낡은 지붕들, 우리 이웃의 고단한 일상이 펼쳐지고 있는 '하늘아래 1번지' 달동네.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아련한 추억으로 사라졌던 달동네가 최근 '벽화마을'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마을이 바로 남구 문현1동 돌산마을. 문현동 안쪽에 자리해 있어 보통 '문현 안동네'라 불리는 돌산마을은 최근 영화 '마더'의 촬영지로도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다.

과거 공동묘지였던 이 곳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50년대 이후.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피란왔던 피란민들이 하나 둘 모여들면서 지금의 마을이 형성됐다. 산기슭을 따라 250여채의 낡은 판잣집이 들어선 돌산마을은 아직도 마을 곳곳에 무덤자리가 그대로 남아있어 마을의 지난날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도심인 서면에서 불과 2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낙후된 환경으로 부산에서 가장 가난한 달동네라는 오명을 지녔던 돌산마을이 '벽화마을'로 전국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 공공미술을



안창마을



문헌 1동 돌산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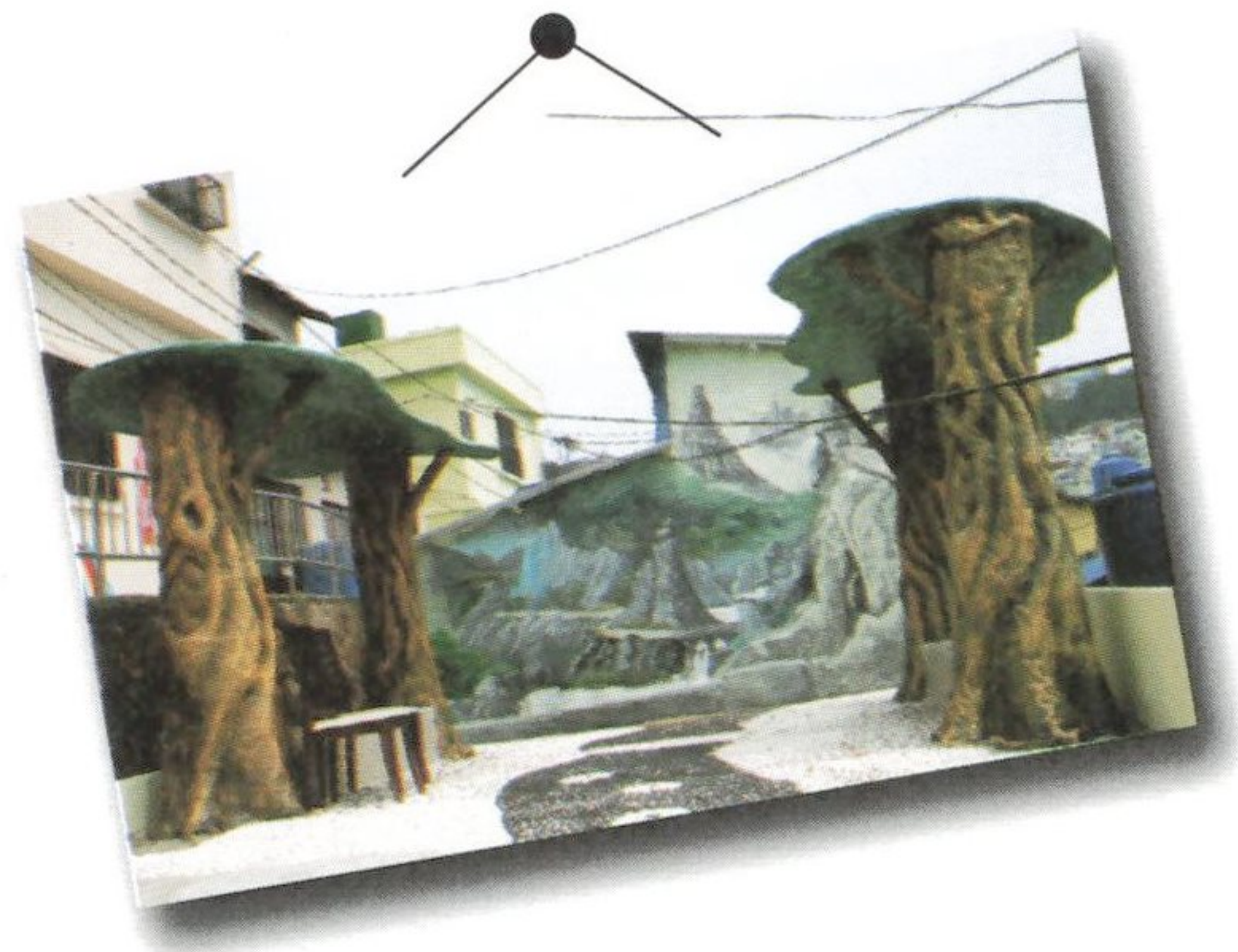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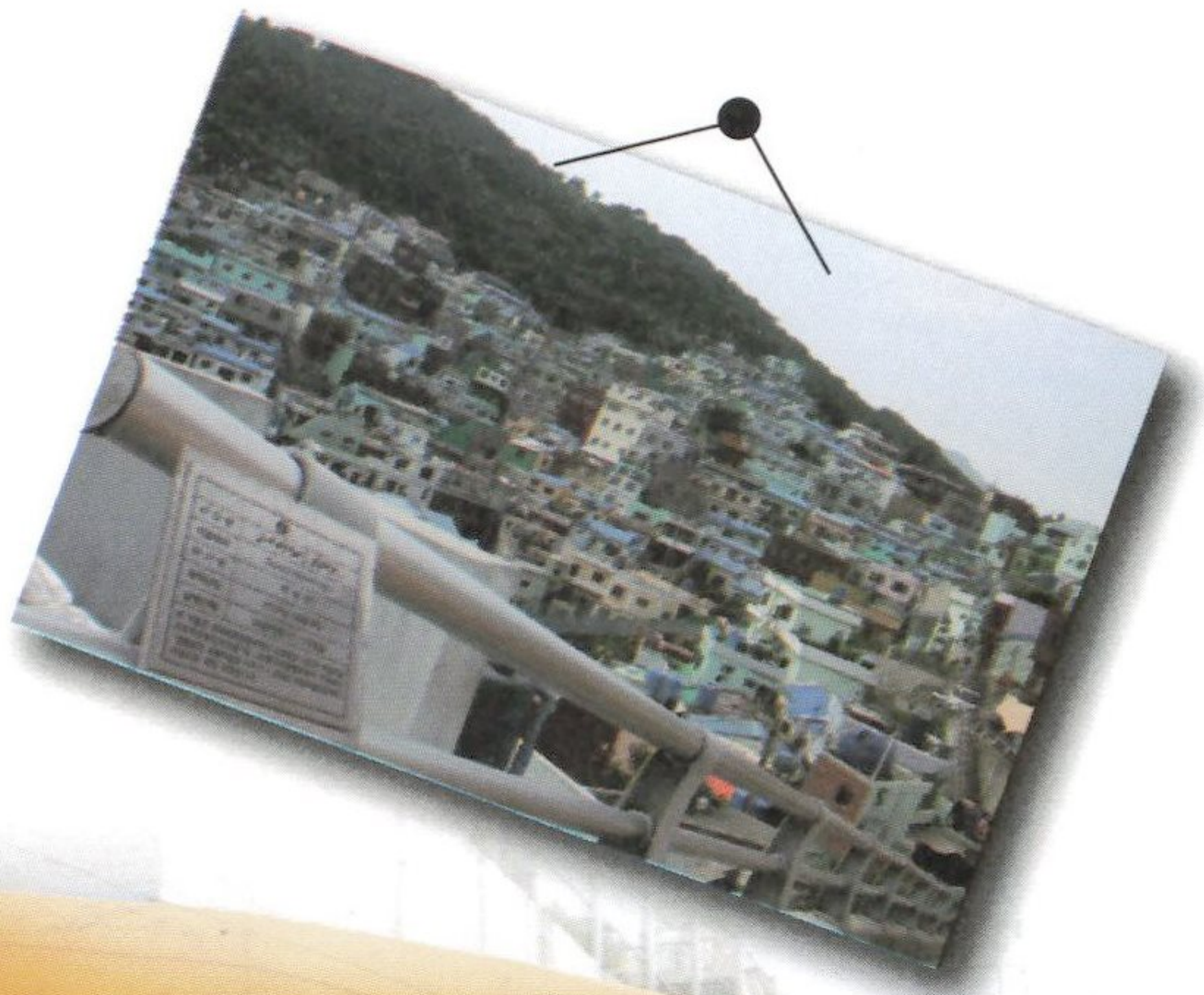
통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시범마을로 선정되면서 부터이다. 그 해 3월 '따뜻한 사람들의 벽화이야기'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마을 골목을 따라 모두 47개의 벽화가 완성됐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갈라지고 벗겨진 낡은 벽면은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아름다운 벽화로 재탄생했다. 벽화로 한결 화사해진 돌산마을은 그 해 '200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주거환경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카메라만 들이대도 전부 그림이 되는 벽화 때문에 돌산마을은 출사족들에게는 이미 숨겨진 명소로 유명하다.

돌산마을 벽화를 전부 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벽화 찾아가기' 안내판부터 숙지할 것. 미로처럼 엉킨 좁은 골목길을 무작정 따라가다 보면 자칫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돌산마을과 더불어 또다른 피란민촌이
 었던 범일동 안창마을은 부산지역
 벽화마을의 원조라 할 수 있
 다. 한국전쟁 이전까지
 만 하더라도 사람이
 살지 않던 이곳은
 한국전쟁이

동대신동 덕발골





감천 2동 태극도마을

동대신동 닥밭골

발발하면서 오갈데 없는 피란민들이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됐다.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을 중에서도 가장 안쪽이라는 뜻이 담긴 마을 이름처럼, 안창마을은 1970~80년대 들어서야 전기와 상수도 시설이 들어왔던 그야말로 부산의 대표적인 오지마을이었다.

시간이 정지된 듯한 안창마을에 새로운 문화바람이 분 것은 지난 2007년. '안창마을을 살기좋은 문화마을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젊은 예술인들, 바로 부산의 비영리 시각예술단체인 '오픈스페이스 배'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안.창.고'가 진행되면서 부터이다. 여기서 '안.창.고'의 '안(雁)'은 안창마을의 첫 자이자 공동체(기러기)를, '창(窓)'은 소통(창문)을, '고(庫)'는 마을의 역사와 삶을 저장하는 공간(창고)을 뜻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시작된 이 벽화그리기 사업은 '오리불고기집'으로 유명했던 안창마을을 '벽화마을'로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

안창마을 둘러보기는 마을입구에 자리한 전시관 '안창고'에서 시작된다. 동구사회복지관 경비초소를 개조한 '안창고'는 재

개발로 조만간 사라질 마을 구석구석을 담아낸 사진과 마을지도, 안창고 프로젝트 진행과정 등 안창마을의 과거와 현재가 전시되어 있다. 안창고를 기점으로 큰 길을 따라 올라가면 벽면을 타고 올라가는 수박냉쿨을 비롯해 광안대교, 새총쓰는 아이, 미끄럼타는 오리들 등 다양한 소재의 건물 벽화가 방문객을 반갑게 맞는다. 마을의 벽화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새총쓰는 아이들'은 군데 군데 칠이 벗겨져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웃으면 복이 오는 집' '즐거운 통장네 집' 등 집집마다 개성있는 문패들을 찾아다니는 재미도 쏠쏠하다.

최근 들어 새로운 벽화마을 명소로 떠오르는 곳은 바로 동대신동 '닥밭골 마을'이다. '닥밭골'은 '닥밭(楮田)', 즉 닥나무가 많이 나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대신동의 옛 지명이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줄지어 서있는 닥밭골은 지금도 마을에 공동화장실이 있는 동네 중 한 곳이다.

닥밭골에 새로운 변화가 생긴 것은 지난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안창마을

문현1동 돌산마을

국비를 지원받아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부터이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닥밭골 마을을 위해 100여구 가구 벽면에 벽화를 조성하고 마을쉼터와 현대식 화장실을 건립했다.

모두 6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닥밭골 벽화골목은 여타 벽화마을과는 달리 그림 뿐만 아니라 닥밭골이 소재한 서구의 명소를 담은 사진, 아름다운 시가 적힌 패널, 미니어처 인형 등 다양한 소재로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전통 산수화를 떠올리는 그림 벽화와 나무 조형물을 응용해 만든 벤치 등으로 꾸며진 마을쉼터에서는 지친 다리를 잠깐 쉬어갈 수도 있다.

부산의 대표적인 달동네로 알려진 감천 2동 태극도마을. 전국에서 모여든 태극도 신도들의 집단 거주촌으로 알려지면서 부쳐진 이름이다. 지금은 다닥다닥 붙어있는 마을 특유의 계단식 가옥구조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골목길, 집집마다 다른 건물색으로 ‘부산의 마추픽추’ ‘부산의 산토리니’로 불린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태극도마을이 재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5월 예술창작단체인 ‘아트팩토리 인 다대표’의 주도

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되면서 부터이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09 마을미술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라는 주제로 10점의 조형물이 설치됐다. 태극도마을이 시작되는 감천고개 정상에 찾아가면 감천 2동 우리누리 공부방 학생 20여명의 꿈과 소망이 적힌 풍선 조형물 ‘내 마음을 풍선에 담아’, 주민들의 소망이 적힌 철판들이 민들레 홀씨처럼 달려있는 조형물 ‘달콤한 민들레의 속삭임’ 등 10작품을 모두 감상할 수 있다.

최근에는 태극도마을이 문화체육관광부 ‘2010 콘텐츠융합형 관광협력사업’에 선정되면서 ‘미로미로(美路迷路) 골목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미로미로(美路迷路) 골목길’ 프로젝트는 주민이 떠난 마을의 빈 집을 예술창작실 혹은 갤러리, 북카페 등을 조성하는 ‘테마가 있는 빈집 프로젝트’와 마을 특유의 정서가 담긴 골목길에 벽화와 조형물을 설치하는 ‘골목길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새롭게 달라질 태극도마을의 변화에 벌써부터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글, 사진/정복엽)

관객 참여형 연극제

제 28회 전국연극제

이정남 _ 전국연극제 사무처장, 극단 맥 대표

제 28회 전국연극제는 1983년 제 1회 전국연극제와 1997년 제 15회 전국연극제에 이어 부산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었다. 이번 전국연극제는 연극 마니아 뿐만 아니라 부산의 일반 시민들에게 연극을 알리고 함께 참여하기 위한 많은 행사를 개발, 동북아 문화예술 중심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린 알찬 행사였다.

개막 초청작으로 대형 뮤지컬인 '이순신'과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해외 초청작 공연, 전국 15개 시·도 대표들의 경연 작품이 무대에서 각축을 벌인 메인 행사와 함께 전국에서 초청된 뮤지컬, 신체극, 마임, 아동극 등 총 112개 단체, 1,700여명이 참가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다이나믹 페스티벌, 난장 페스티벌의 이름으로 공연되어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특히 전국시민연극제, 립싱크 & 댄스 페스티벌, 연극인 사진 전시회 등으로 구성된 관객 참여 행사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관극의 재미와 함께하는 연극제로 평가를 받아 어렵게 느껴졌던 연극이 일반 시민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다가감으로서 연극의 대중화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부산의 특성을 살려 '전국연극인의 밤'과 학술행사를 부산의 대표적 범선인 누리마루호에서 개최, 전국 연극인들이 한자리에서 연극제를 축하하며 서로 교제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보다 나은 연극을 만들기 위한 창작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연극제에 참가작품은 사극이 4편, 역사 현대극이 4편, 현대극이 7편 총 15편이었다. 대상을 수상한 전라북도 대표 극단 '연극하는 사람들 무대지기'의 '눈 오는 봄날'(김정숙 작, 안세형 연출)은 철거를 앞둔 달동네 사람들의 어려운 애환을 가난과 사회가 성숙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애환으로 보고, 현재에 대한 개선 의지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원망이 아닌 따뜻한 상황과 정서로 풀어냈다. '눈오는 봄날'은 현실은 어렵지만 상호 협력하면

아름다운 미래가 다가온다는 메시지를 감동적으로 구현하여 희곡상, 연출상과 최우수연기상을 함께 수상했다. 시민회관 소극장과 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 15개 시도 경연작은 90%에 가까운 관객 참여율을 보였다.

부산의 관문인 공항, 부산역, 고속버스터미널 등과 광복로, 서면 등 시내에 집중적으로 홍보해 전국연극제 행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인터넷 및 여러 매체를 통한 광고 및 홍보활동을 펼쳤다. 경연 공연이 이루어진 시민회관 소극장과 문화회관 중극장, 광안리 해변무대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부산지역의 소극장들에서 프린지 페스티벌을 진행시켜 관객들의 동선이 한 지역에 집중되어 대도시 속에 범시민적인 축제를 가능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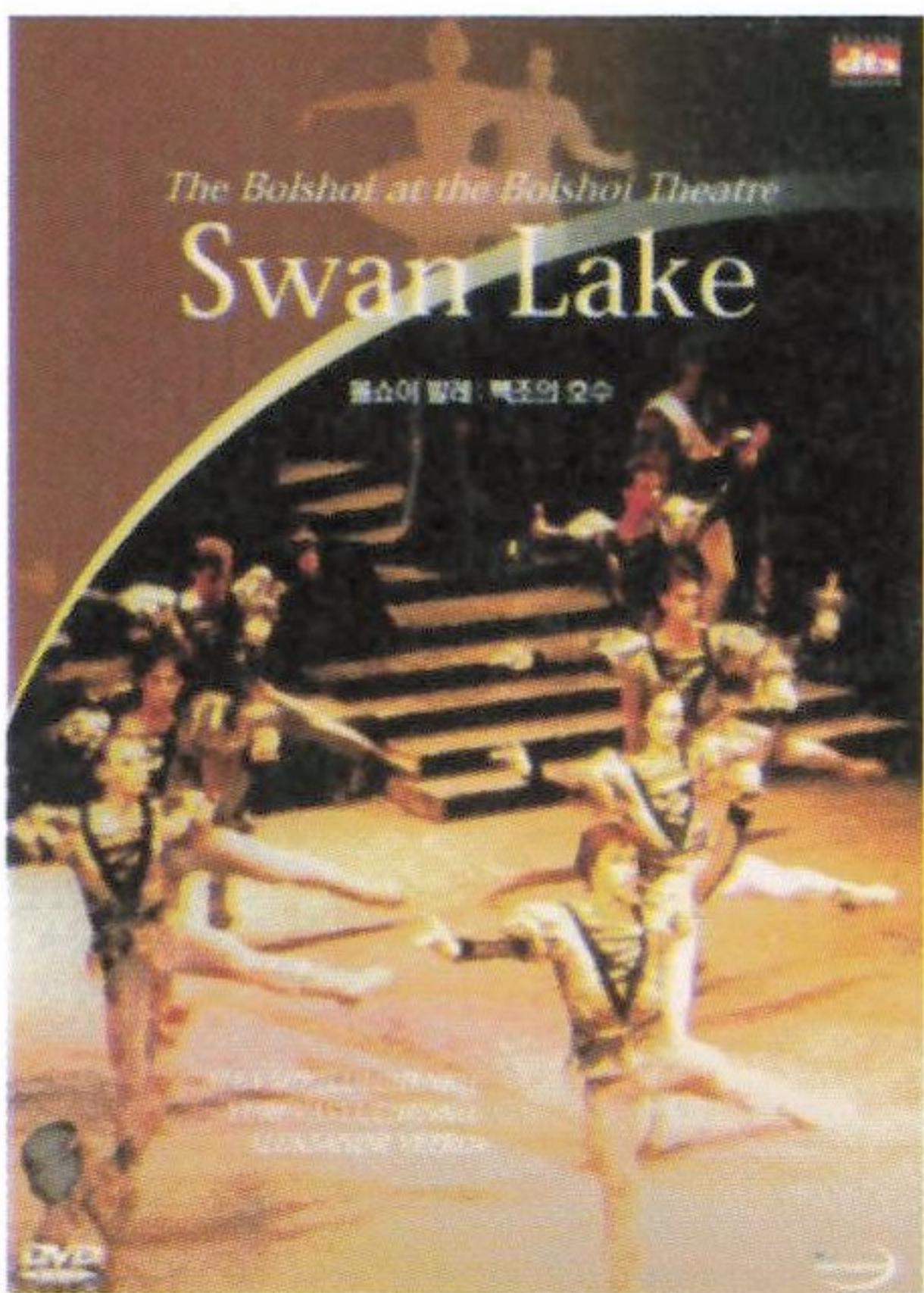
이번 제 28회 전국연극제는 전국 연극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지역 연극예술의 활성화 및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연극 진흥을 도모하였고, 국내외 예술 활동가들에게 홍보의 장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경연과 축제의 병행으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예술행사의 좋은 본보기를 남겼다. 또 대도시에서 어떻게 범시민적인 축제를 가능케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했다.

그러나 다양하고 단계적, 적극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2010 남아공 월드컵 개최기간과 맞물려 연극제 초반에 시민들의 참여가 다소 저조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각 소극장 위치에 대한 정보부족과 극장별로 공연기획자가 따로 없어 행사 초반에는 관객유치가 힘들었다. 부대행사로 열린 난장페스티벌은 부산에서 흔치 않은 볼거리임에도 부산의 많은 행사와 월드컵, 학교의 시험기간, 방학이 겹치면서 전통연희페스티벌이 부각되지 못하여 제한된 시민만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되었다.

다양한 부대 행사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잘 차려진 잔치상 같다는 평을 받았으나, 전국을 상대로 하는 홍보가 미흡한 점은 역시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여름에 듣는 겨울이야기 **백조의 호수**

김의호 _ 삼성여고 교사



발레는 러시아인의 로망이다.

1997년 상트 페테르부르크 그레이스김나제(영재학교) 강당에서 발레공연이 있었다. 고인이 된 조승미(한양대학교수)발레단의 '삼손과 테릴라'였다. 한국인 학교관계자들은 걱정했다. 발레 본고장, 그것도 키로프발레단과 마린스키극장이 있는 이곳에서 솟다리(?) 한국

인발레단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였다. 러시아인들의 각별한 발레사랑은 공연 내내 무대 뒤 바닥에 꿇어 기도를 올린 조승미 교수의 지순한 마음과 어우러져 그날 공연을 대성공으로 이끌었다.

미켈란젤로는 인간의 다리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발레는 다리로부터 비롯되는 몸짓의 예술이다. 하얀 속살을 드러낸 채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베료자(자작)나무는 러시아 여인을 상징한다. 남부 유럽인에 비해 러시아인은 키가 크다. 클래식 튜튀(tutu)아래 드러나는 긴 다리는 러시아 발레의 장점이다.

발레의 종주국은 이탈리아다. 그러나 종주국으로 오해될 만큼, 발레하면 러시아다. 17세기 후반 독일 발레단이 러시아 황궁에 발레를 소개하였다. 발레에 매료된 러시아황실은 유럽 발레단을 초청하고 전격 후원한다. 이어 프랑스 안무가를 초빙하여 왕립 발레학교를 설립하고, 1776년 볼쇼이극장, 1783년 마린스키극장이 세워지면서 러시아 발레는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필자가 겨울시즌마다 볼쇼이극장(지금은 수리 중)을 찾는 이유는 볼쇼이의 특별함 때문이다. 볼쇼이는 최고의 발레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관객은 '백조의 호수' '돈키호테' '스파르타쿠스' '호두까기인형' 등의 작품에서 보여주는 볼쇼이의 환상적인 연출에 빠져든다. 그 중에 '백조의 호수'는 볼쇼이발레의 정

수라 할 수 있다.

'백조의 호수'는 여러 무용수에게 초점이 분산되는 옴니버스형의 '호두까기 인형'과 달리 백조 오데트(흑조 오델과 1인 2역)와 지그프리드 왕자라는 두 주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작품의 긴장도가 높다. 음악도 볼쇼이에 의해, 볼쇼이를 위해 작곡되었다. 비록 초연은 실패했지만 재 연출을 거쳐 세기의 성공을 거둔다. 실패의 원인이 음악이 아니라 안무와 무대연출에 있음을 간파한 볼쇼이의 안무가 프티파와 이바노프의 탁월한 연출과 음악이 제대로 만난 것이다. 2막 4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다채로운 관현악적 색채를 지닌 30개의 모음곡을 기초로 명장면들을 연출한다. 서곡에서 비극적 줄거리를 암시하는 오보에의 슬픈 선율이 흐른다. 이는 뒤에 나오는 명 선율 '백조의 주제'와 성격을 같이 한다. 1막 2장에서 이 주옥같은 주제가 오보에의 신비로운 음색으로 연주된다. 이 선율 위에 청금석 빛이 투영된 호숫가에서 왕자가 백조를 발견한다. 마법의 빛을 암시하는 얇은 막 뒤에 모습을 드러내는 백조 - 이바노프가 안무한 이 장면은 압권이다.

오데트의 발끝에서 비롯하여 손끝에 이르는 선을 따라 배어나는 고뇌는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다. 두 다리로 보여주는 최고의 테크닉인 흑조 오델의 32회전 뿌에떼의 초절기교는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객석을 흥분시킨다. 환상적인 독주바이올린 선율에 오데트와 지그프리드가 '그랑 파드되'를 춘다. 남녀의 조화와 균형미는 객석을 황홀경에 빠뜨린다. 나아가 이 '파드되'는 신이 남과 여를 창조한 이유를 비로소 알아차리게 만든다.

이 모든 춤사위를 최고로 만드는 것은 오랜 경력의 발레지휘자 주라이티스와 볼쇼이극장관현악단이다. 이 관현악단의 극적 긴장과 생동감으로 충만한 음악이야말로 볼쇼이발레의 춤사위를 최고로 만드는 마법이다. 발레모음곡은 발레와 함께할 때 가치를 더한다. 영상을 포함한 이 음반의 방점은 실황공연의 생동감이 그대로 전해 오는 데 있다.

아름다운 앙상블이 빛어내는 이웃사랑 센텀합창단



3,750세대가 모여사는 센텀파크 아파트 대단지 내에 이른 아침부터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흘러나온다. 목요일인 오늘은 센텀합창단 연습이 있는 날. ‘노래가 좋아’ 모인 단원들의 열정이 연습실을 가득 메운다.

지난 2007년 2월 결성된 센텀합창단은 센텀파크 아파트 입주민들로만 구성되면서 창단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센텀합창단 결성에는 현재 합창단 단장으로 있는 최경숙 씨의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 성가대와 합창단 단원으로 노래 경력만 20년, 현재 교회 성가대 지휘를 맡고 있을 정도로 노래와 함께 해온 최경숙 단장은 센텀파크에 입주하면서 그의 장기를 십분 발휘했다.

“많은 이웃과 공존하고 있지만 아파트라는 특성상 소통의 부재가 아쉬웠다”는 최경숙 단장. “특히 문화 활동을 통한 소통이야말로 이웃과의 친밀함을 더해주는 동시에 메마른 아파트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했다는 그는 자신의 뜻에 동조하는 이웃들과 의기투합해 합창단을 결성했다.

합창단 결성은 창단 당시 16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단원에 지원할 정도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막상 합창단이 결성되고 나니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단



다양한 연령층의 단원 4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센텀합창단은 지휘자 이철성 씨의 지도로 나날이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



센텀합창단은 지난해 9월 첫번째 정기연주회에서 프로합창단 못지 않은 무대매너와 실력으로 관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순한 ‘노래교실’로 생각했던 단원들이 하나 둘 빠지면서 합창단에 달랑 10여명이 남는 상황까지 발생, 합창단 존폐의 위기에까지 몰리기도 했다. 게다가 단원 대부분이 성악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아마추어들이라 실력향상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이 때 지금의 지휘자인 테너 이철성 씨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엔리소 카루소 국제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로 우승해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았던 이철성 씨가 그만의 카리스마로 합창단을 단련시켜 나갔다.

단원들의 열정과 지휘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다시 탄생한 센텀합창단은 창단 그해 11월 센텀파크 웨밀리홀에서 이웃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창단발표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듬해인 2008년에는 일본 다카시마 코로 이마즈 합창단 초청으로 일본 다카시마에서 해외 첫 공연을 갖기도 했다. 또, 지난해 9월 해운대문화회관에서 열린 첫 번째 정기연주회에서는 그동안 같고 닳은 실력을 마음껏 펼쳐 프로합창단 못지않은 무대매너와 실력으로 참석한 관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올해 11월에는 두 번째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있다.

센텀합창단은 현재 3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 4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창단 당시만 하더라도 단원의 자격을 센텀파크 입주자들로 한정했으나 현재는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노래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중창단반을 새롭게 신설해 매주 화요일 연습을 따로 갖고 있다. 합창단 실력 향상은 물론 앞으로 있을 다양한 무대활동

에 중창단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취미로 시작된 합창단 활동이지만 음악을 통해 단원 개개인의 마음 속 열정과 삶의 활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지휘자 이철성 씨. 평소에도 공연장 관람을 적극 권유한다는 그는 아마추어 동호회야말로 전문예술인과 일반인을 이어주는 가교라 생각한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합창단에 한번만 참석해봐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한다는 단원 이명숙 씨. 합창단 단원인 지인 진기순 씨의 권유로 지난해 8월 합창단과 인연을 맺은 그는 현재 합창단 총무를 맡고 있을 정도로 합창단 활동에 열심이다. “지휘자인 이철성 선생님의 탁월한 지도에 수업이 언제 마쳤는지 모를 정도로 즐겁다”는 그는 요즘 합창단 활동이 생활의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연습에 참석하고 있는 원둘순, 박영순 단원. 평소 이철성 지휘자의 팬이었다는 원둘순 씨와 박영순 씨는 이철성 씨가 센텀합창단 지휘자로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와 합창단과 인연을 맺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합창단에서도 활동했지만 여타 합창단에서 접할 수 없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배울 수 있어 앞으로의 합창단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글, 사진/정복엽)

■ 문의/센텀합창단 단장 최경숙(010-6888-323)

어린이 영어뮤지컬 피터팬

8월 7일 토요일 오후 6:00 **소극장**

분포초등학교 영어뮤지컬반이 오페라 제작소 밤비니와 함께 그동안 갖고 닦은 뮤지컬 '피터팬'을 무대에 올린다.

프로그램

놀고 싶어요, 하늘을 날아요, 후크의 노래, 집을 지어요, 내가 아는 엄마, 내일이면 등 수곡

- 총감독/김성경
- 음악/서정아, 장신영
- 조연출/김보의, 서빛나
- 출연/조희원, 황서진, 박세은, 이채민, 김수경, 김효린, 유희정, 황현지, 민수홍, 김지은, 김민승, 양지호, 최우석

- 관람료 초대
- 문의 서정아(010-7503-6564)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12 언니네 이발관

8월 12일-13일 목-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무대와 객석이 친밀한 소극장의 특성을 활용한 부산문화회관의 맞춤형 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12번째 주인공 '언니네 이발관' 부산공연.

'언니네이발관'은 이석원(보컬/기타), 이능룡(기타/코러스), 전대정(드럼)으로 구성된 밴드로 자타가 공인하는 록 음악계의 보물과도 같은 밴드이다. 1994년 결성된 언니네 이발관은 세 번째 음반 '꿈의 팝송'을 통해 인디 역사상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고 2009년 결성 15주년을 맞아 발표한 5집 앨범 '가장 보통의 존재'는 제 6회 한국대중음악상 대상인 '올해의 앨범', '최우수 모던 록 노래', '최우수 모던 록 앨범' 3관왕을 차지하며

최고의 그룹으로 인정받았다. 늘 그렇듯 그들의 음악은 소년의 마음과 같은 따스함과 냉정하고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한 언니네이발관만의 수줍은 시선들이 공존한다.

하늘아래 그 콘서트 1주년을 기념해 이틀간 공연을 펼친다.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8)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공연 악기가족이야기 종합편



8월 17일 화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중극장



바이올린, 피리 등 오케스트라 가족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공연 '악기가족이야기' 종합편 '악기가족 다 모여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음악회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악기가족이야기'는 동화구연과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악기 설명, 부산시립교향악단 앙상블팀의 연주와 악기 체험으로 어린이들에게 오케스트라의 이해를 도와주고 클래식음악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고 있다.

종합편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어린이 음악회에서 가장 널리 연주되는 생상 모음곡 '동물의 사육제', 배우와 함께 하는 '함께 울동하며 동요를 불러요' '이야기 감상 : 함께 해서 행복해요, 악기 마을 가족들!' 어린이 친구들이 직접 참가하는 '지휘자가 되어 보아요'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생상/모음곡 '동물의 사육제' 중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곡' '거북' '코끼리' '수족관' '빠꾸기' '화석' '백조' '종곡'

지휘자가 되어 보아요

- 지휘/이동신
- 특별출연/극단 동그라미그리기
- 관람료 R석(1층) 5,000원 · S석(2층) 3,000원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0 한여름 밤의 춤 작품전 춤은 삶, 그 아름다운 사람들의 몸짓

8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이정인

황선희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의 창작열정을 만날 수 있는 2010 한여름밤의 춤 작품전.

올해는 이정인(부수석단원), 황선희(상임단원)가 자신만의 춤 언어와 몸짓을 통하여 직접 빛낸 참신한 작품 세계를 그려낸다.

'이쁜이 시집가는 날'의 주역으로 친숙한 이정인은 미인도 등의 작품 속에서 보이는 여인네들의 자태와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한국춤의 곡선과 여백의미를 현시대의 한국 춤과 접목하여 재해석한 '꿈꾸는 여인'을, '연산'의 주역으로 열연한 황선희는 기억 속에 무서운 존재로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귀신이야기, 화장실이라는 소재를 약간의 두려움과 재미를 포함한 해학적 마임과 접목한 'ㅋㅋㅋㅋ~년 누구니?'를 전체 5장으로 선보인다.

작품

꿈꾸는 여인(대본/권봉정 · 안무/이정인 · 연출/이현숙 · 출연/이정인, 박창희, 이상민, 김시현, 박민화, 정원미 · 특별출연/이혁우)

ㅋㅋㅋㅋ~년 누구니?(대본/황선희, 황창기·안무/황선희·연출/이성원·출연/황선희, 강미향, 윤은하, 안주희, 류권홍, 이현주, 김도은·특별출연/황창기)

· 무용감독/홍기태(수석안무자)

■ **관람료** 균일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2010 인디고 유스 북페어 가치를 다시 묻다 어린 영혼들이 시가 되고 음악이 될 때, Poetry Night

8월 20일 **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2010 인디고 유스 북페어
Indigo Youth Book Fair 2010
2010년 8월 18일(화)~22일(일)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 인디고 서원에서 마련하는 글로벌 인문학 프로젝트 '2010 인디고 유스 북페어' 두 번째 무대.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최하는 '2010

인디고 유스 북페어'는 기존의 상업적인 교류, 자본 중심의 도서전 대신 책에 담긴 진실한 가치를 재창조하기 위해 세계 6대륙에서 창조적 실천가들을 부산으로 초대,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이다.

'체 게바라 자서전'을 집필한 빅토르 카사우스,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신분인 불가촉천민으로 태어나 차별 받으면서도 훌륭한 화가가 된 사비 사와르카르, 쿠바 시인이자 가수 아리엘 디아즈, 릴리아나 엑토르, 한국의 가수 루시드 폴이 시와 음악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아름다움'과 '사랑'에 대해 노래한다.

출연

빅토르 카사우스(쿠바, 아트디렉터), 아리엘 디아즈(쿠바, 가수), 릴리아나 엑토르(쿠바, 가수), 사비 사와르카르(인도, 화가), 루시드 폴(한국, 가수)

■ **관람료** 14세~19세까지 청소년은 무료, 성인 50,000원(공연 신청은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2010 인디고 유스 북페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문의** 인디고 서원(628-2897)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8월 21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특별한 음악선물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평소 어렵게 느껴온 클래식음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오는 음악을 상세한 해설과 설명을 곁들여 소개하고 청소년들에게 클래식음악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준다.

프로그램

한국동요와 가곡/나뭇잎배, 개구리, 자전거
영국민요모음/한 떨기 장미꽃, 갈웨이의 피리사,
아 목동아

이태리민요모음/산타루치아, 돌아오라 소렌토
로, 오! 나의 태양

한국무용과 춤/도라지, 경북궁타령 등 수곡

- 지휘/전상철(수석지휘자)
- 반주/이영옥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자(합창)
- 해설/오동주(부산시립합창단 기획담당)
- 특별출연/혜화초등학교 중창단, 김윤호(설장 고춤,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 독창/조아라(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 금정여고 3년)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

제 20회 주목받는 부산의 차세대 신인음악회

8월 23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외국에서 음악수업을 마치고 귀국한 부산출신의 유망 신예들과 함께 하는 부산음악협회의 주

목받는 부산의 차세대 신인음악회.

첼리스트 김아영(트리오 누보 단원)을 비롯해 플루티스트 유주영(부산 YMCA NEO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단원), 소프라노 권미현, 강부영, 이수진, 강민성(독일 자르브뤼켄 오페라극장 단원), 피아니스트 성민주, 정은정, 고은정, 김정은(한국 국제대학 교수), 바이올리니스트 조미혜(앙상블 콘티토 리더), 최은해(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가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구노/피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

차이코프스키/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3개의 소품 '그리운 고향에 대한 추억' 중 '명상곡' 등 수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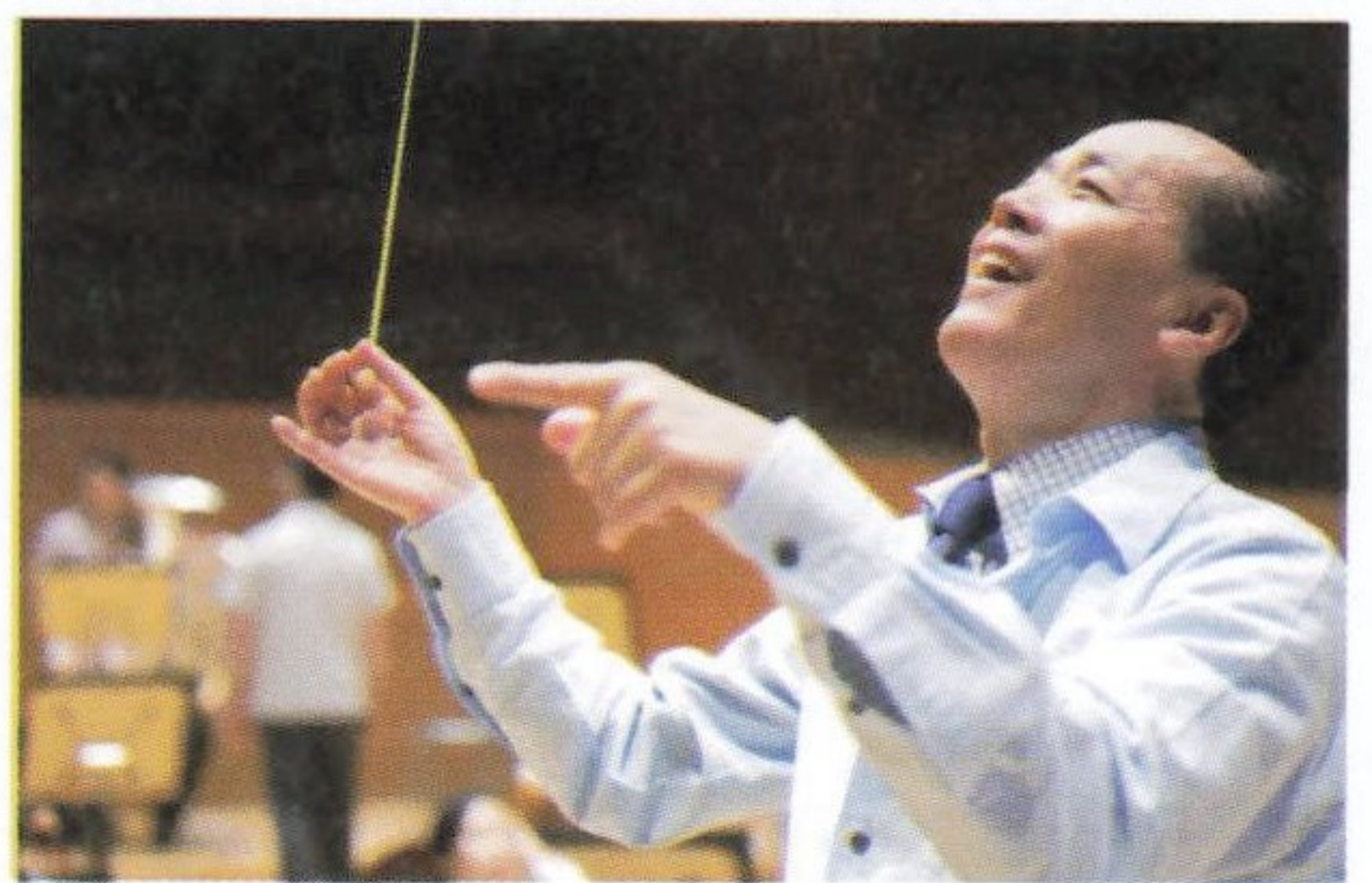
■ **관람료** 1층 20,000원 · 2층 10,000원

■ **문의** (사)한국음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634-1295)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8월 24일-25일 **화-수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중극장**



부산의 청소년들에게 클래식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2010년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1995년 지휘자 금난새에게 발탁된 이후 뛰어난 음악성과 연기력, 관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청중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의 카르멘 메조소프라노 김정화 협연으로 비제의 '카르멘', '아름의 여인' 주요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조르주 비제/오페라 '카르멘' 하이라이트-전주곡, 하바네라, 세기달라, 집시의 노래

- 조르주 비제/‘아름의 여인’ 모음곡 중 ‘전주곡’
‘미뉴에트’ ‘파랑돌’
- 지휘 및 해설/금난새(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경희대학교 교수)
 - 협연/메조소프라노 김정화(계명문화대학 교수)
 - **관람료** 균일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8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김철호 정훈희 김경민

한 여름 밤의 무더위를 흥겨운 국악선율로 씻어주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여름 음악선물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올해는 김철호 수석지휘자의 지휘로 만주벌판을 달리던 고구려인들의 기상을 나타내는 ‘고구려의 혼’,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해운대의 동백섬을 판소리로 표현한 ‘추억의 동백섬’, 강렬하면서도 호소력이 풍부한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수 정훈희의 무대, 중요무형문화재 제 19호 선소리 산타령 이수자 김경민과 그 제자들이 들려주는 흥겨운 경기민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사물놀이팀이 신명의 소리로 더위를 날려준다.

프로그램

흥동기/고구려의 혼
백성기/소리가 있는 창작관현악 ‘추억의 동백섬’
백규진(편곡)/정훈희와 함께 하는 대중가요
흥겨운 민요한마당/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태평가, 뱃노래, 잦은 뱃노래
박범훈/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신모듬’

- 지휘/김철호(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 협연/박성희, 정선희(이상 소리), 정훈희(가수), 김경민 외 7명(경기민요), 신문범, 최오성

- 사물놀이/이장우·전학수·이주현·송강수
- **관람료** A석 20,000원 · B석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이서현 바이올린 독주회

8월 27일 금요일 오후 7:00 **소극장**



부천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이서현의 바이올린 독주회.

국민일보-한세대 전국음악콩쿠르 1등을 시작으로 한국 장학콩

쿠르 1등, 서울 내셔널 오케스트라 콩쿠르 1등, 한미 전국 음악콩쿠르 2등을 차지하는 등 각종 콩쿠루에서 두각을 보인 이서현은 서울예고 유스 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뉴욕 카네기홀 등 미국 순회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양고운 제자음악회, 세종솔로리스트 연주회 등에 참가한 바 있다.

프로그램

바흐/파르티타 제 3번
스트라빈스키/이탈리안 모음곡
스트라우스/바이올린 소나타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이서현(010-3058-1401, 011-553-9119)

인제의대 관현악단 제 29회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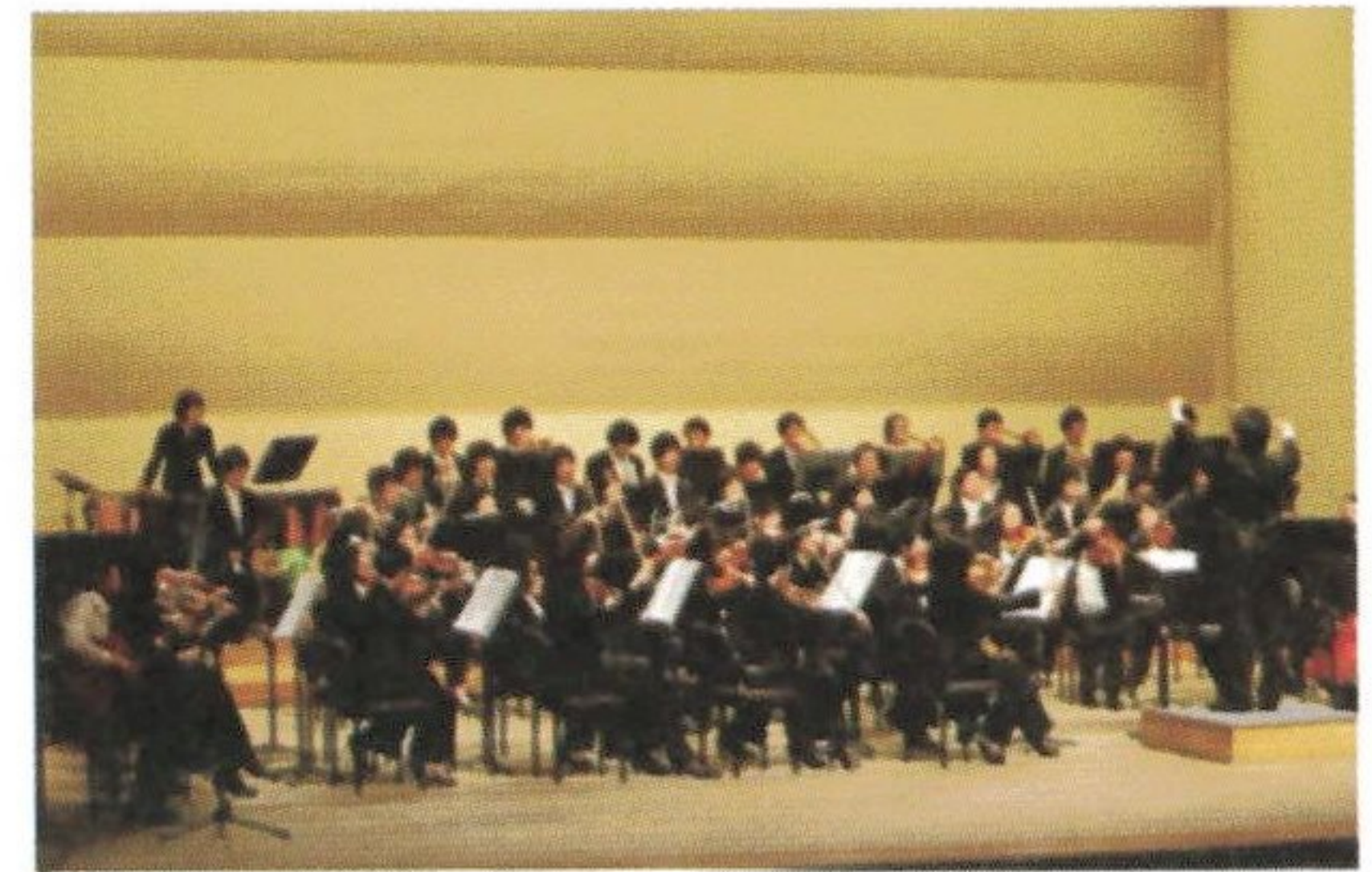
8월 28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1981년 인제의대 실내합주단으로 창단된 이래 예술을 통한 인술을 펼치고 있는 인제의대 관현악단의 제 29회 정기연주회.

인제의대 관현악단은 매년 크리스마스 음악회, 썸머뮤직캠프 등을 열어왔다.

프로그램

로시니/윌리엄 텔 서곡
그리그/페르퀀트 모음곡 제 1번 작품 46



드볼작/신세계 교향곡 작품 95

- 지휘/황성수(본과 2학년)
- 단장/남희성(본과 2학년)
- **관람료** 초대
- **문 의** 남희성(010-4524-5748)

고신익대 관현악단 제 15회 정기연주회

8월 30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생, 간호대생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고신의대 관현악단의 제 15회 정기연주회.

고신의대 관현악단은 매년 여름캠프와 화이트 클래식, 환우들을 위한 음악회를 열어왔다.

프로그램

하차투리안/모음곡 ‘가면무도회’ 중 ‘왈츠’
리스트/피아노협주곡 제 1번 올림마장조
드볼작/교향곡 제 8번 사장조

- 지휘/황장수
- 협연/공숙현
- **관람료** 초대
- **문 의** 박영찬(010-3318-0856)

테너 주종식, 바리톤 최성규 제 3회 듀오 콘서트

8월 3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리톤 최성규와 Friday Morning Music Club Vocal Solist, Metropolitan Women's Choir 상임 지휘자, 워싱턴 감리교회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테너 주종식이 들려주는 제 3회 듀오콘서트.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주종식

최성규

전상철이 지휘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미국 Washington D.C 에서 Friday Morning Music Club Vocal Soloist, Metropolitan Women's Choir Soloist, National Korean UMC 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김연진이 특별출연한다.

프로그램

- 벨리니/아름다운 달이여
- 김희조 편곡/거문도 뱃노래
- 베르디/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 '프로벤자 내 고향으로'
- 이태리 연가곡/산타루치아, 오 솔레미오 등 수곡
- 합창/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전상철)
- 특별출연/김연진(소프라노), 박성계(기타)
- 편곡/최석태, 문지연 · 피아노/이승윤
- 관람료 균일 2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 문의 우리아트(010-5555-3825)

2010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프린지콘서트

9월 1일(수)~9월 11일(토) 중극장, 온천천 영도문화예술회관, 광안리해수욕장 등



부산클라리넷콰이어

2010년 첫 출발을 하는 부산마루국제음악제의 축제분위기를 돋우어줄 프린지콘서트.

부산, 경남 등 타지의 연주단체, 개인 연주자 등 총 42개팀들이 부산 전역에서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 주요일정

- 9. 1(수)
 - 10:30 부산혜성학교(연주/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 오케스트라)
 - 19:00 백양로총성교회(연주/기독음대교수 선교 찬양단)
 -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연주/부산클라리넷 콰이어)
- 9. 2(목)
 - 10:30 송운초등학교(연주/ACC양상블)
 - 19:00 영도문화예술회관(연주/YMCA부산오페라 합창단)
 - 19: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연주/마사모연주단)
- 9. 3(금)
 - 15:00 광안리해수욕장(연주/브로큰피스)
 - 15:00 그랜드자연요양병원(연주/일파가야금합주단)
 - 18:00 대동병원 로비(연주/대동윈드오케스트라)
 - 18:00 서면밀리오레 야외무대(연주/카를체르니)
 - 19:30 온천천 세병교(연주/부산그린뮤직)
- 9. 4(토)
 - 15:00 김해 2171부대(연주/에코플루트콰이어)
 - 15:00 해운대 대천공원(연주/부산뮤즈플루트앙상블)
 - 17:00 부산경륜공단(연주/부산색소폰합주단)
 - 17:00 글로벌 아트홀(연주/과르텟 아이네)
 - 18:00 민락수변공원(연주/모노부산아카펠라)
 - 18:30 범어사(연주/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
 - 19:00 온병원 지하강당(연주/동성드림윈드오케스트라)
 - 19:00 영도문화예술회관(연주/YMCA부산오페라 합창단)
 - 19:00 을숙도문화회관(연주/부산색소폰콰이어)
 - 19:00 해운대 해수욕장(연주/잼색소폰앙상블)
 - 19:30 온천천 세병교(연주/부산그린뮤직)
- 9. 5(일)
 - 19: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연주/로제앙상블)
 - 19:00 해운대문화회관(연주/신라윈드오케스트라)
- 관람료 무료
- 문의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사무국 (070-7687-8292)

제 2회 소프라노 엄남이 독창회

9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부산대학교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엄남이 독창회.

헨델의 Rodelinda 를 시작으로 같은 가

사, 다른 멜로디로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김순남 작곡 산유화, 이현철 작곡 산유화와 화려한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아리아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아리아 'Zum leiden bin ich auserkoren(나는 괴롭다)' 등을 들려준다.

■ 관람료 초대

■ 문의 엄남이(010-7519-9843)

테너 오동주의 2010 September Story

9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경성대학교와 이탈리아 루이자 단눈치오 국립음악원, 이탈리아 페스카라 국립아카데미 오페라 연기과를 졸업하고 귀국, 부산시립합창단 기획,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목련합창

단 지휘자, 남성성악앙상블 4+1, 이태리음악연구회 회원 등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테너 오동주 독창회.

프로그램

- 라라/그라나다
- G. 푸만티/고요한 저녁바다
- 나운영/달 밤
- 최석태/참 좋으신 주님, 갈보리의 사랑
- 레온카발로/오페라 '팔리아치' 중 'Recitar!.. Vesti la giubba(의상을 입어라)'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의 오동주(010-4556-5058)

MUSIC

BMIMF와 신세계 센텀시티가 함께하는 미니콘서트

7월 31일(토)~8월 1일(일), 7일(토) 오후 4:00
신세계 센텀시티 1층 센텀광장



콰르텟 아이네

세계 수준의 음악축제로 마련되는 제 1회 부산 마루국제음악제(BMIMF) 기획무대.

부산지역 실내악단의 다채로운 앙상블 무대가 펼쳐진다.

- ▶ 7/31일(토) 콰르텟 아이네
- ▶ 8/1일(일) 플루트콰르텟 '클랑'
- ▶ 8/7일(토) BMIMF앙상블

- 관람료 무료
- 문의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추진위원회 (070-7687-8292, www.bmimf.co.kr)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8:00 가톨릭센터 소극장

▶ 3일 The Night of Piano 4Hands 'Piano 4S'
2007년 10월 피아니스트 김영지, 노경원, 유영욱, 조현선 등으로 결성된 'Piano 4S' 초청무대. 'Piano 4S'의 S는 'Study, Sound, Spirit & Seele'를 의미한다.

프로그램

그리그/페르컨트 조곡

림스키 코르사코프/왕벌의 비행 등 수곡

- ▶ 10일, 17일 코믹 뮤지컬 오페라 'Cosi fan tutte(여자는 다 그래)'

남녀간의 신뢰와 사랑을 주제로 한 모차르트의 오페라 '코지 판 투테'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무대.

· 예술총감독/유형광 · 음악감독/장진규

▶ 24일 Quintet & Quartette '고전과 낭만'

바이올리니스트 장철근, 최미경, 비올리스트 전영규, 첼리스트 최영준이 들려주는 실내악의 향연.

프로그램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1번 라장조 드보르작/현악사중주 '아메리카' 등

▶ 31일 배득신 플루트 독주회

'My Favorite Flute Songs 2010'

로뎀플루트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셀라노래 선교단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있는 플루티스트 배득신 독주회.

· 출연/배득신(플루트), 하영화(피아노), 이지혜(바이올린), 조경아(첼로), 로뎀플루트오케스트라

- 관람료 균일 10,000원 (10일, 17일 공연은 균일 20,000원)
- 문의 가톨릭센터(441-3788)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4:00,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음악회로 마련되는 금정수요음악회.

▶ 4일 효원국악관현악단 연주회



2000년 3월 부산, 경남지역의 젊은 국악연주자들로 결성된 효원국악관현악단이 들려주는 퓨전국악 무대.

프로그램

양방언/국악관현악 '제주의 왕자'

해금과 피아노를 위한 이중주/드라마 '추노',

'신데렐라 언니' 주제곡

25현가야금 3중주/렛잇비, 오블라디 오블라다,

언더 더 씨 등 수곡

· 지휘/홍희철

▶ 11일 필 오퍼스와 함께하는 노래세상

'Love in Opera'

소프라노 이은미, 메조소프라노 강희영, 테너 이승우, 바리톤 심정부가 마련하는 유명 오페라 아리아 무대.

· 피아노/최성근

▶ 18일 부산 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

'애니메이션 음악회'

부산 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가 마다가스카, 라이온킹, 폴라 익스프레스, 유령신부 등 애니메이션 영화 OST곡을 들려준다.

· 지휘/김병수

▶ 25일 테너 김화정 리사이틀



동의대학교와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마에스트리, 경남이마에스트리, 부산성악아카데미 회원으로 있는 테너 김화정 리사이틀.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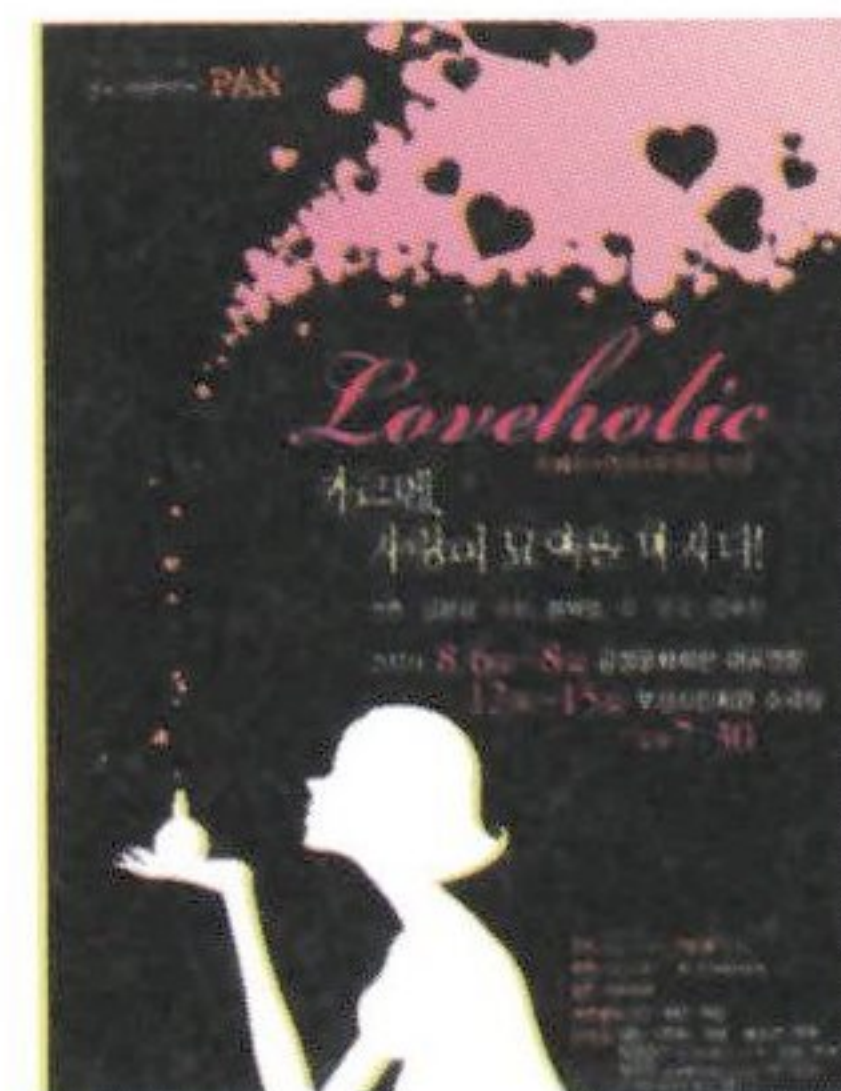
크로스오버예술단 장르-버라이어티 PAN 러브홀릭 카르멘, 사랑의 묘약을 마시다!

8월 6일~8일 금-일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8월 12일~15일 목-일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오페라와 연극, 무용이 만나는 크로스오버 무대 '러브 홀릭-카르멘, 사랑의 묘약을 마시다!'.

소프라노 김수현, 이민희, 장은녕, 메조소프라노 성미진, 테너 이승우가 출연, 재미와 감동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무대를 선보인다.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 작/정재영 · 연출/심문섭
- 작, 편곡/김수진
- **관람료** 일반 30,000원 · 청소년 10,000원 (예매시 30% 할인)
- **문 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을숙도문화회관 토요일뮤직점프

매주 토요일 오전 11: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뉴프라임오케스트라 연주로,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명곡과 부산지역 작곡가들의 창작곡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7일 프로그램

비발디/합주협주곡 '사계' 중 '여름'
스베리도프/눈보라
· 협연/강미경(플루트)

▶14일 프로그램

브루흐/클라리넷, 비올라, 피아노를 위한 8개의 소품
리스트/교향시 제 3번 전주곡(Les Preludes) 등
· 협연/권병옥(클라리넷), 강경희(비올라), 임보라(피아노)

▶21일 프로그램

글린카/루슬란과 루드밀라
차이코프스키/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35 등
· 협연/강아연(바이올린)

▶28일 프로그램

무소르그스키/교향시 '민둥산의 하루밤'
백승태/폭풍 등 수곡
· 협연/임정은(비올라)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 의** 을숙도문화회관(220-5811~3)

토요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7일 프로그램

포구락, 판소리 '심청가' 중 '심청이 물에 빠지는 대목', 평조단소 독주 '헌천수', 동래한량무, 실내악 '신밧놀이', 장구춤, 사물놀이 등



▶14일 프로그램

수제천, 태평무, 가야금병창 '적벽가' 중 '화룡도', 진주교방굿거리, 남도민요 '동해바다' '각시풀타령', 태평소와 관현악, 설장구가락

▶21일 프로그램

향발무, 판소리 '수궁가' 중 '고고천변', 25현가 야금 4중주 '신관동별곡', 좌수영 어방놀이 중 '어부춤' '아낙춤', 실내악 '소리놀이', 부채춤 등

▶28일 프로그램

승전무 중 '검무', 가곡 '태평가', 동래학춤, 해금독주 '어린왕자', 동부민요 '쾌지나칭칭나네' '밀양아리랑' '옹헤야', 삼고무, 사물놀이
▪ **관람료** 1층 8,000원 · 2층 6,000원
▪ **문 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제 5회 청소년을 위한 여름방학 음악 축제

8월 7일(토), 14일(토) 오후 5:00, 29일(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글로벌아트홀이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음악축제.

▶7일 오후 5:00 김한솔 첼로연주회

글로벌전국음악콩쿠르 전체대상을 수상한 부



산예술고등학교 3학년 김한솔의 무대.

▶프로그램

드보르작/협주곡 나단조 작품 104
슈베르트/아르페지오네 소나타 D.821
쇼스타코비치/소나타

라단조 작품 40

· 특별출연/노영현(색소폰)

▶14일 오후 5:00

타악앙상블 'S. Modern Ensemble' 연주회

타악앙상블 'S. Modern Ensemble'과 글로벌전국음악콩쿠르 우수입상자인 임정은, 배정윤, 김민준이 함께하는 무대.

▶프로그램

존 벅/타악앙상블을 위한 서주

네이 로사우로/마림바와 타악기 앙상블을 위한 협주곡 제 2번

생상/바이올린 협주곡 제 3번

쿨라우/소나티네 작품 55 제 6번 등 수곡

· 출연/송희철(리더), 송학(피아노), 공소성, 이요섭, 김효원, 이찬욱, 채광호, 양진일

· 특별출연/임정은(바이올린), 배정윤(바이올린), 김민준(피아노)

▶29일 오후 3:00 부산 시민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제 32회 행복음악회

중요무형문화재 제 45호 대금산조 이수자로 현재 부산민속예술단 단장으로 있는 대금주자 박용섭과 글로벌전국음악콩쿠르 최우수상 수상자인 피아니스트 정창현 등이 함께 하는 무대.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6,000원

▪ **문 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창업 55주년
(1955년 2월 1일)

문우당서점 지도센터
에서 연구 개발하여 획득한 세계지도 발명특허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처음 나온 세계지도입니다

이 세계지도는 문우당서점에서만 판매하나, 서점, 문구점에서 판매를 원하시면 도매합니다
(소매가격 ₩7,000)

전화 241-5555(대표)

전국최고의 종합지도센터!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Since 1955

문우당서점

남포동 자갈치시장 정문아 보이는 아지탑 앞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476-1

각종일부안내
3층 해사도서, 기술전문서적, 국정교과서, 경제경영잡화, 서고, 컴퓨터 관리실
1층 문화, 청소년, 만화, 여성도서

2층 각종지도, 각종외국어서적, 각종사전

동건물 국산자구본 수입자구본 소·중·대형

18 이상, 유아, 장애인, 도서문화상품권

Since 1955

문우당

MUN WOO DANG BOOK STORE
www.munbook.co.kr

문우당서점

Tel: 241-5555(대표)
245-2714(공원문의)

남포동 자갈치시장 정문아 보이는 아지탑 앞
[미니를 건너편]

각종 공연 예매처
CGV 10%적립, 통도환타지아, 경주월드 할인판매처

제 5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애니메이션 음악회

8월 10일 화요일 오후 4:00, 7:00
시민회관 대극장



제 5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개최를 기념해 열리는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 '애니메이션 음악회'.

마다가스카, 라이온 킹, 플라 익스프레스, 핑크 팬더, 유령신부 등 많은 사랑을 받은 애니메이션 영화 주제곡을 영화 속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들려준다.

- 지휘/김병수(상임지휘자)
- 관람료 균일 15,000원
- 문의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 (070-7727-0188)

코믹 뮤지컬 오페라 Cosi fan tutte(여자는 다 그래)

8월 10일(화)-23일(월) 오후 8:00
가톨릭센터 소극장

남녀간의 신뢰와 사랑을 주제로 한 모차르트의 오페라 '코지 판 투테'를 현대적으로 각색, 모차르트 음악의 화려한 선율과 함께 웃음과 감동을 전해주는 코믹 뮤지컬 오페라 무대.

- 예술총감독/유형광 · 음악감독/장진규
- 출연/장은경, 장은영, 안선희, 황윤정(피오르 딜리지), 이순정, 박소연, 김혜빈, 박소영(도라벨라), 송말자, 윤현숙, 장문선, 이수진(데스피나), 박창수, 정필윤, 이신범, 황성학(페란도) 외
- 피아노/박정미, 하영화
- 해설/장진규
- 관람료 균일 20,000원(사랑티켓 참가작)
- 문의 가톨릭센터(441-3788)

청소년음악회 국악 숲을 뛰놀다!

8월 11일-12일 수-목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국립부산국악원이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국악과 전통춤의 만남.

프로그램

태평가, 포구락, 삼고무, 청소년을 위한 난타, 관현악 '청산', 설장고협주곡 '모리' 등

- 관람료 균일 3,000원
-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제 1112회 MBC목요음악회 부산교사합창단과 함께하는 교과서 음악회

8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여름방학을 맞아 부산교사합창단이 청소년들을 위해 들려주는 교과서 음악회.

프로그램

국현/계절이 그리는 풍경소리
교과서 합창 1/모차르트 슈베르트 그리고 김대현, 송어(슈베르트), 아름다운 강산
교과서 합창 2/남촌, 봄이 오면, 나이 서른에
우리, 웅해야, 경상도 뱃노래 등 수곡

- 지휘/김강규(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 특별출연/김자연(마림바)
-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 문의 (사)문화도시 네트워크(760-1494)

청소년을 위한 교과서음악회 들리는 교과서 보이는 음악회

8월 14일 토요일 오후 1:00, 3:00
해운대문화회관 대극장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부산콘서트콰이어가 마련하는 교과서음악회.

우리에게 친숙한 국내외 가곡 및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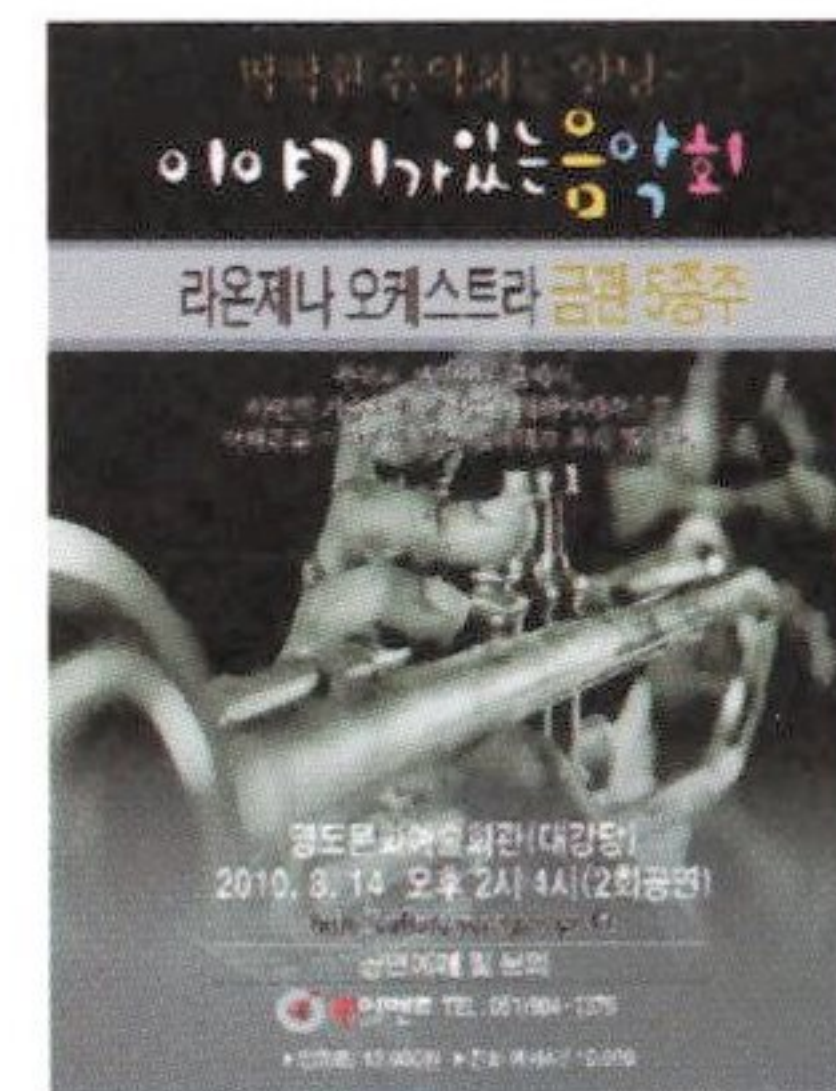
프로그램

생상/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
아일랜드 민요/대니보이, 아 목동아
헨델/오페라 '리날도' 중 '울게하소서' 등 수곡
· 해설/이종석(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 출연/황혜진(소프라노), 이현지(소프라노), 조은아(메조소프라노), 강은태(테너), 구명금(베이스), 안지훈(바이올린), 박새론(첼로), 원지성(피아노), 이아름(피아노)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7,000원
- 문의 클래식아트매니저(010-5555-3825)

라온제나 오케스트라 금관 5중주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

8월 14일 토요일 오후 2:00, 4:0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순우리말로 '기쁜 나, 즐거운 우리'라는 뜻으로, 음악으로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라온제나 오케스트라 금관 5중주가 마련하는 이야기가 있는 가족 음악회.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에서부터 추억의 팝, 영화주제곡을 들려준다.

- 관람료 균일 12,000원(전화예매시 2,000원 할인)
- 문의 원이벤트(904-1379)

(사)이지무스오페라단 청소년 해설음악회 바로크에서 영화음악까지

8월 14일 토요일 오후 3:00,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김지호 장은녕 김성은

바로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과서에 나오는 시대별, 장르별 음악을 선곡, 상세한 해설과 함께 들려주는 청소년 해설음악회.

프로그램

브람스/헝가리무곡 제 5번

베르디/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모차르트/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 등

· 출연/김지호(테너), 장은녕(소프라노), 김성은
(바이올린), 박정미(피아노), 아마빌레앙
상블, 브릴란테 금관 5중주단, 에버그린
오카리나앙상블, 크로체 남성중창단

· 해설/김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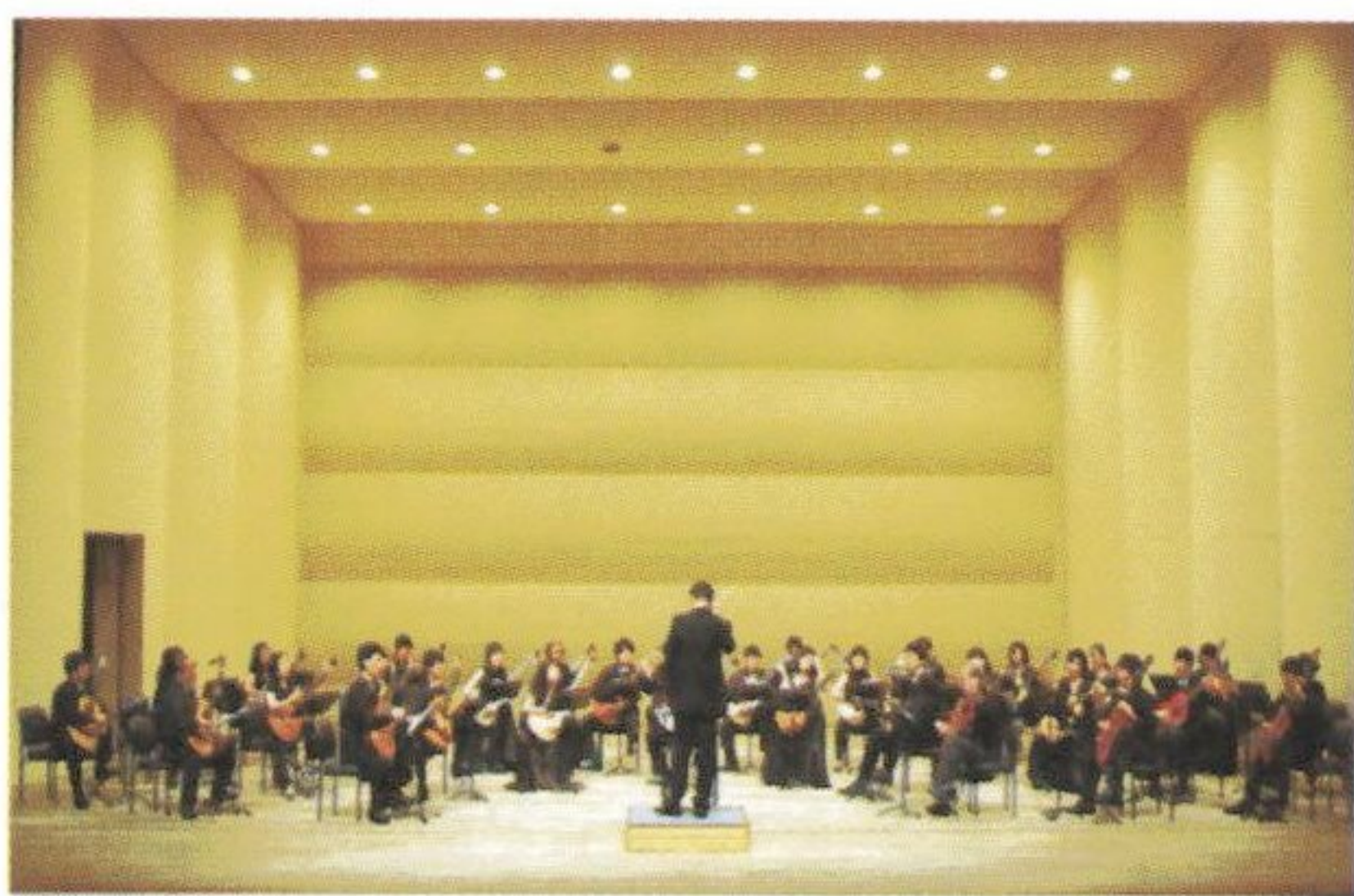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사)아지무스오페라단
(070-7522-4649)

2010 부산기타페스티벌

8월 15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매년 여름 부산에서 펼쳐지는 클래식 기타의
향연 2010 부산기타페스티벌.

올해는 부산페스티벌기타앙상블과 남원청소년
기타앙상블, 클래식기타리스트 서승완, 김경태의
폴리포니기타듀오, 클래식기타리스트 심주연 등
4개팀이 참가한다.

프로그램

J. 히메네스/알론소의 결혼식

A. B. 망고레/대성당

모차르트/교향곡 제 25번 사단조 등 수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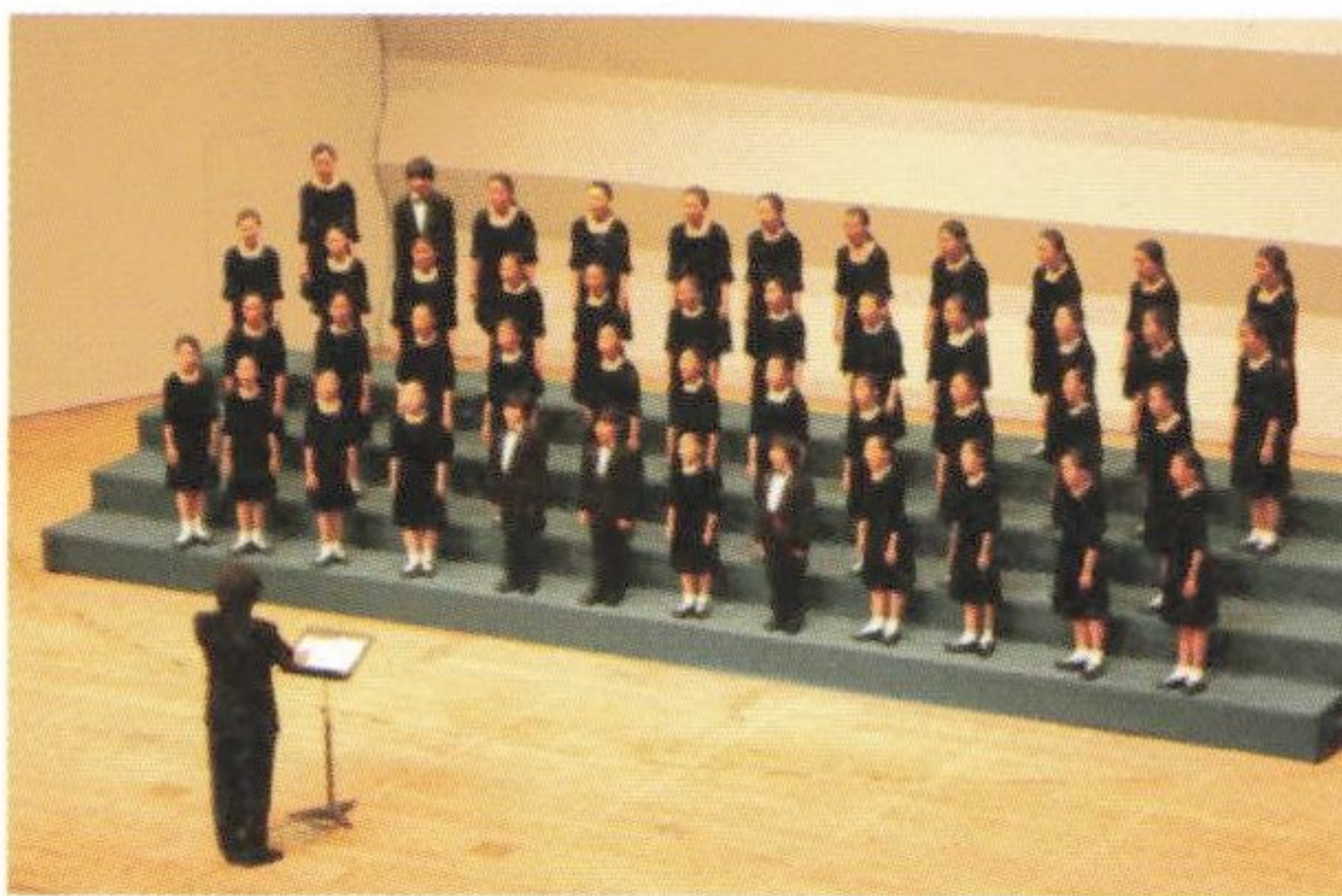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서승완(010-5198-0074)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음악회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8월 17일 화요일 오후 7:00 북구문화빙상센터

19일 목요일 오후 7:00 영도문화예술회관



교과서에 나오는 친근한 곡들과 맞춤 해설로
청소년들을 클래식음악의 세계로 이끄는 부산시
립소년소녀합창단의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프로그램

이현철(편곡)/동요 '사계'

영국민요모음/한떨기 장미꽃, 갠웨이의 피리사
이태리민요모음/산타루치아, 돌아오라 소렌토
로, 오! 나의 태양

이선택(편곡)/아리랑 모음곡 등 수곡

· 지휘/전상철 · 반주/이영옥

· 해설/오동주(부산시립합창단 기획담당)

· 특별출연/김윤호(부산시립무용단 단원)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자(합창)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

Ko-Asia 유스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10 청소년 해설음악회

8월 17일 화요일 오후 3:00, 7:00

시민회관 대극장



2008년 3월 창단된 후 2008 일본 다카마쓰 오
케스트라축제 초청연주회, 김해교향악단 송년음
악회, 구덕병원 초청연주회 등 다수 무대에 서온
Ko-Asia 유스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프로그램

베토벤/교향곡 제 5번 '운명' 중 1악장

생상/피아노협주곡 제 2번 작품 22

비발디/두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 사단조

비탈리/샤콘느 등 수곡

· 지휘, 해설/김종진

· 연주/Ko-Asia 유스오케스트라

· 협연/양욱진(첼로,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이리나(바이올린, 마산시립교향악단
악장), 박종관(오보에, 부산시립교향악
단 단원), 이지선(피아노), 정혜주(첼
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

▪ **관람료** 균일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Ko-Asia오케스트라(442-1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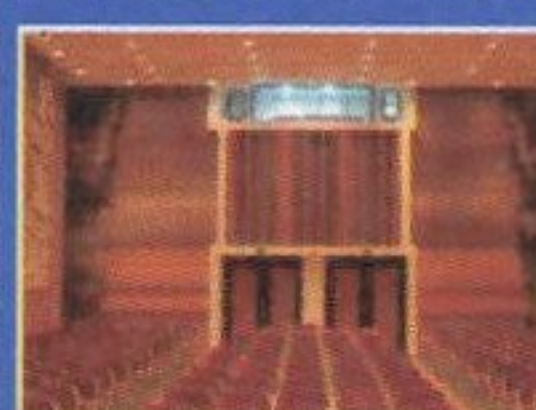
국제찬양신학대학원

음악목사과정(M.Div.)학생모집 (음악목회/찬양사역/음향영상)

- **전공**: 음악목회 찬양사역 음향영상 ■ **접수기간**: 2010년 8월 1일~31일(인터넷접수 홈페이지참조)
- **특전**: 목사안수(여자목사안수가능) / 국내외 정상급 신학 음악 교수진 / 직장인도 입학
- **입학자격**: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 찬양과경배팀 교회음향영상종사자 선교사 전도사



전 경



연 주 출



멀티미디어실



연 습 실



음향조정실



세미나실



국제찬양신학대학원 www.glovil.org / email:glovil@paran.com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1243-21 글로벌아트홀 Tel. 051-505-5995

2010 부산·울산·경남 교류음악회 한여름밤 꿈의 합창축제

8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수준높은 합창무대를 선사해온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립합창단 교류음악회 2010년 무대.

올해는 창원시립합창단과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이 연합합창단을 구성, 부산, 울산, 경남지역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존 루터/글로리아

여성합창/Fly Me to the Moon, Skylark,

Cantate Domino

남성합창/칸초네, 칸초네!

피날레무대/투우사의 노래, 개선행진곡, 축배

의 노래 등

· 지휘/윤의중(창원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 협연/김원(오르간), 금관앙상블

▪ 관람료 균일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4)

방학을 맞이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음악회 '타로'

8월 21일 토요일 오후 4:00,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퓨전 국악단 타로가 펼치는 신명나는 우리소리 한마당.

프로그램

사물놀이, 국악가요 '천지여 천지여, 배 띄워라',

장구합주 '다드리', 모듬북합주 '새울림' 등

· 해설/배양현(부산대학교 교수)

· 연출/강열우(부산예술대학 교수)

▪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7,000원

▪ 문의 타로(518-7958, 010-3282-8014)

부산우드윈드앙상블 청소년을 위한 특별 연주회 내악기를 소개합니다 시즌Ⅳ

8월 21일 토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 경남에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목관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우드윈드앙상블이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하는 해설음악회.

바순, 잉글리쉬 혼, 마림바 등 악기소개와 함께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 연주/원준연(클라리넷), 최낙주(플루트), 박지연(오보에), 이민정(혼), 장보영(바순)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의 원준연(010-5660-3917)

제 21회 부산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청소년 해설음악회

8월 22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92년 창단 후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부산플루트앙상블이 마련하는 청소년 해설음악회.

프로그램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서곡, 간주곡, 하바네

라, 투우사의 노래, 거리소년의 합창, 보

헤미안 상송

모차르트/피아노소나타 K.545 다장조 등 수곡

· 해설/이하롱

· 연주/박찬엽, 장극태, 정옥경, 조진학, 김성은, 김인호, 정병태, 박예니, 강미경, 이진향, 길명훈, 유주영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의 장극태(011-582-5189)

디토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디토 카니발

8월 24일 화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대극장



국내외 실력있는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된 디토오케스트라가 청소년들에게 클래식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무대.

동물원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비주얼 아티스트의 영상포퍼먼스가 연주회의 재미를 더한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뮤직

브리튼/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생상스/동물의 사육제 등 수곡

· 지휘/크리스토퍼 리

· 영상 특별출연/리처드 용재 오닐

· 영상/최종범(비주얼 아티스트)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초·중·고등학생 본인에 한해 50% 할인)

▪ 문의 부산시민회관(630-5200)

2010 대통령상 수상 기념 초청공연 박성희의 판소리 다섯마당 눈대목

8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퓨전국악단 '타로' 공동대표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리꾼 박성희의 무대.
지난 5월 '제 12회 전통가무악 전국제전'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박성희는 이번 무대에서 판소리 다섯마당 중 대중적으로 알려진 '눈대목'만을 발췌, 우리 전통음악의 신명과 멋을 들려준다.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2010년 제 11회 부산을 대표하는 실내악단의 만남

8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극장



부산현대음악앙상블, 비르투오조앙상블, 브릴란트앙상블, 뮤즈앙상블, 로템플루트앙상블이 출연, 다채로운 실내악의 향연을 펼친다.

- 관람료 1층 20,000원 2층 10,000원
- 문의 부산음악협회(634-1295)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조현선 피아노 연주회

8월 27일 금요일 오후 7:00 고은사진미술관



독일 쾰른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경성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조현선은 그동안 13차례 독주회를 비롯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 통영국제음악제, 부산국제음악제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 프로그램 모차르트/소나타 KV 570

- 쇼팽/녹턴 작품 9
- 라벨/라 발스 등
- 관람료 사전예약(주최측 문의)
- 문의 고은사진미술관(010-4781-5959)

아르고 윈드오케스트라 제 3회 정기연주회 영화음악이 있는 가을의 향기

9월 1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007년 창단 후 두차례의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초청연주회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아르고 윈드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정통 윈드오케스트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클래식 명곡에서부터 영상이 있는 영화음악까지 다채로운 연주곡을 들려준다.

- 지휘/이상용
- 협연/소프라노 남지희, 테너 이민호
- 관람료 무료
- 문의 이상용(010-4576-4844)

BN그룹과 함께하는 제 3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9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문화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기업 메세나 운동의 일환으로 열리는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세 번째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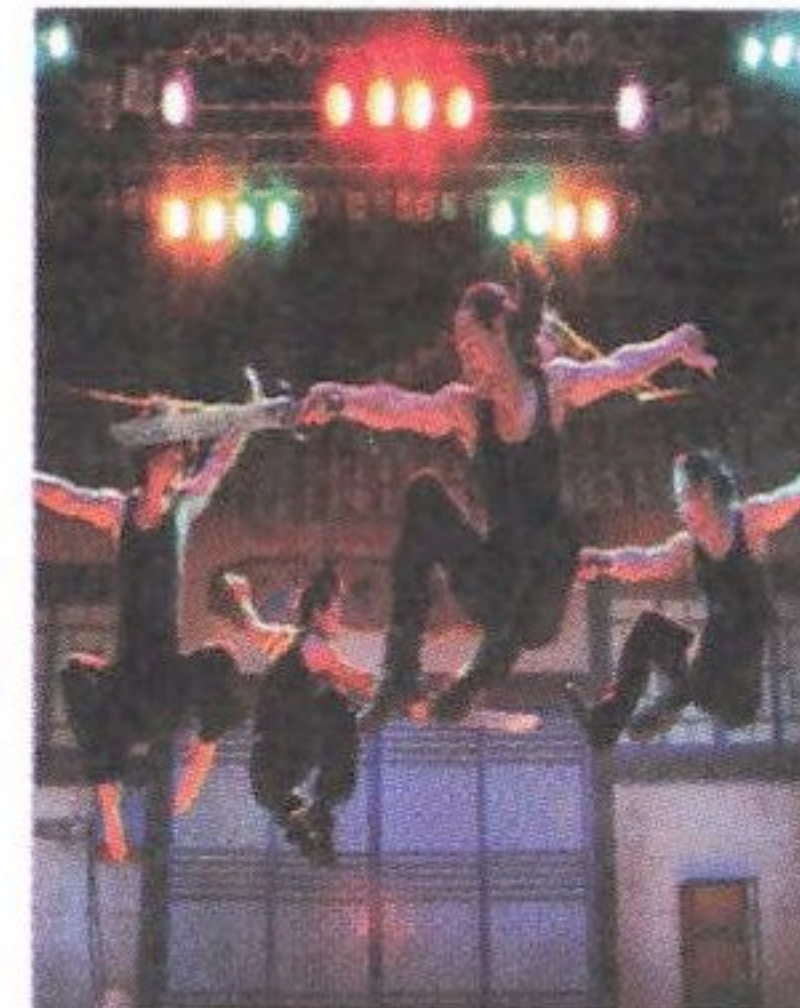
- '유럽 음악여행'이라는 테마로 오스트리아를 시작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 지휘/오충근(고신대학교 교수)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협연/소프라노 유미숙, 테너 박현재, 플루티스트 박지은, 하피스트 박라나
- 관람료 VIP 10,000원 · R석 7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KNN(1577-7600)

PLAY

2009 점프 부산

2009년 9월 10일(목)-오프런 평일 오후 8:00, 토·공휴일 오후 5:00, 8:00, 일요일 오후 6:00
IBK 점프부산전용극장(부산롯데호텔 롯데아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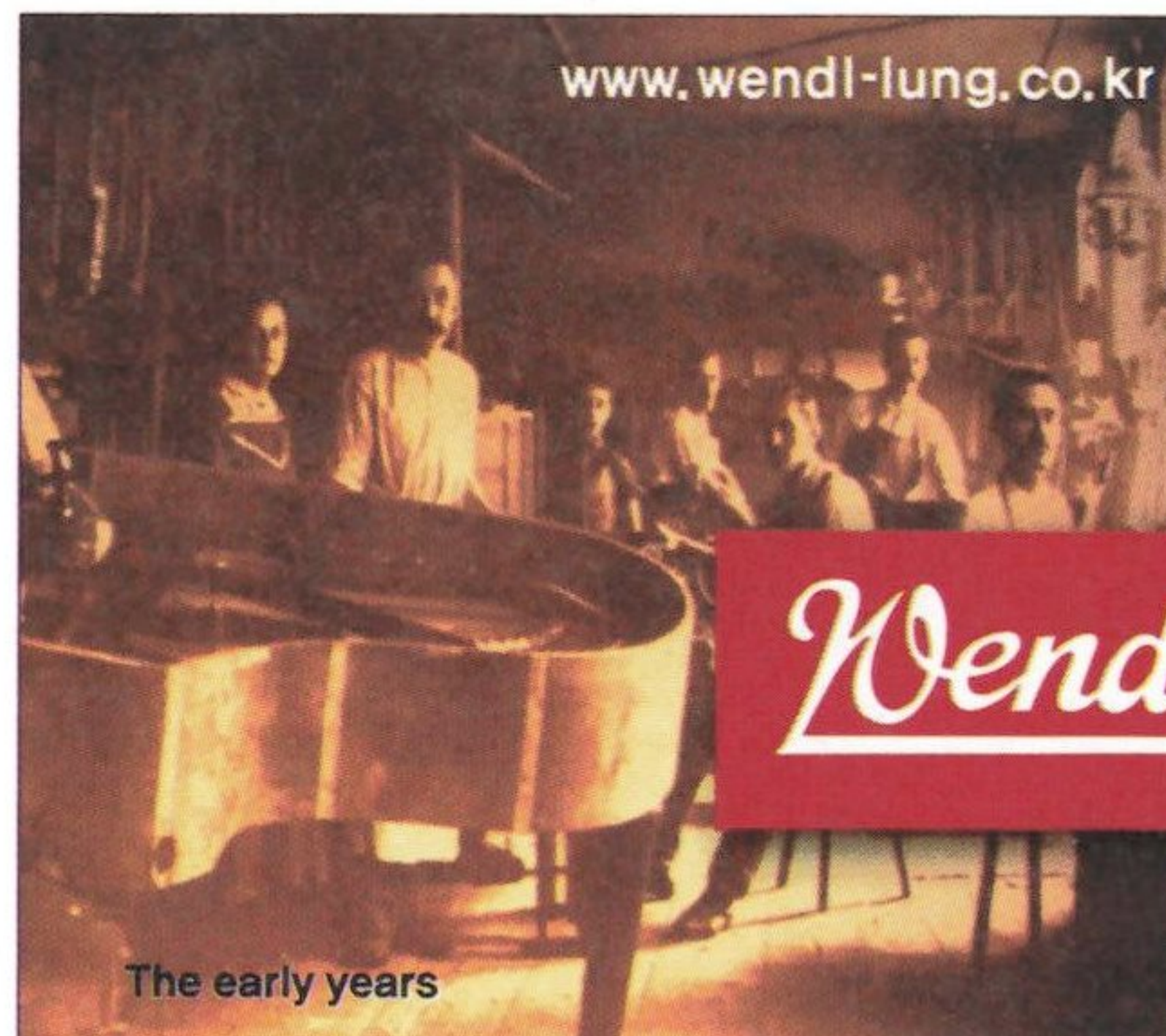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과 유쾌한 코미디가 혼합된 난버벌 퍼포먼스 '점프'.

- 관람료 R석 50,000원 S석 4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IBK점프부산전용극장(810-7000)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2009년 12월 18일-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휴관) BB씨어터

비보이와 사랑에 빠진 발레리나가 비결이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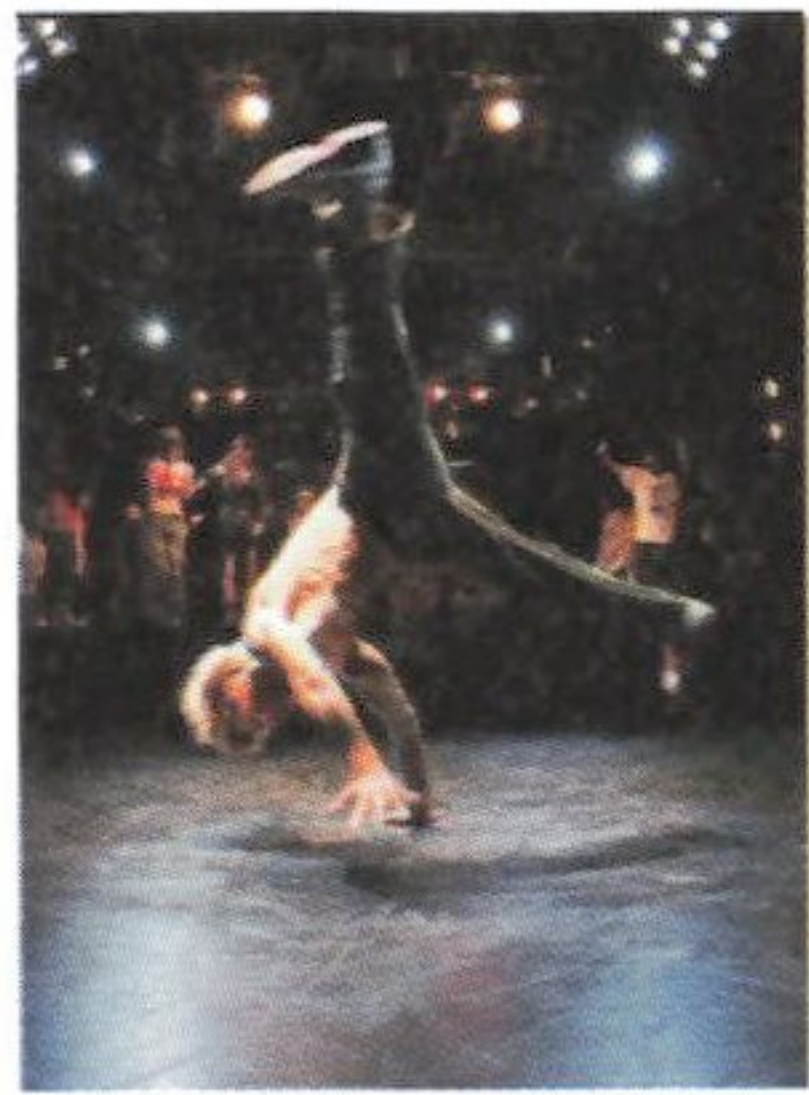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051-441-7474



어가는 과정을 그린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2005년 초연 이후 우리나라에 비보이 열풍을 일으키며 국내외 무대에서 꾸준한 호평을 받아왔다.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BB씨어터(804-2252)

연극 그 남자 그 여자

5월 27일(목)-오픈런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초콜릿 팩토리

달콤쌉싸름한 사랑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그린 연극 '그 남자 그 여자'.

- 작/이미나 · 연출/추상욱
- **관람료** 균일 25,000원
- **문의** 초콜릿 팩토리(621-4005)

뮤지컬 코미디 년센스

7월 15일(목)-10월 1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Red

식중독으로 숨진 동료 수녀들의 장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펼치는 수녀들의 이색공연 속에 포복절도 개그와 풍자를 쏟아내는 뮤지컬 코미디 '년센스'.

- 원작/단 고긴
- 출연/엄지영, 안나연, 최유진, 이내영, 채진명
- **관람료** 균일 35,000원
- **문의** (주)WSM(1600-1716)

호민의 모노드라마 닭잡아먹고 오리발

7월 16일(금)-10월 3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4:00
(화요일 공연없음) 미리내소극장



스스로의 인생을 단 한번도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온 주인공 '오리발'의 인생여정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나약한 현대인의 자화상을 그려낸 세태풍자 모노드라마.

극단 아센 대표로 있는 중견배우 호민이 10대에서 50대까지 세월을 넘나드는 열연을 선보인다.

- 작/김문홍 · 연출/구민주, 최성우
- **관람료** 균일 25,000원
- **문의** 미리내소극장(1600-1716)

로맨틱코미디극 잇츠유

7월 20일(화)-8월 28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2:00, 5:00(매주 월요일 공연
없음)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지역방송사 보도국을 배경으로, 가슴따뜻한 사랑이야기를 통해 감동과 웃음을 전하는 로맨틱 코미디극 '잇츠유'.

- 작, 연출/허재영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SM기획(1600-1602)

공포연극 오래된 아이

7월 30일(금)-8월 29일(일) 화-목요일 오후
8:00, 금요일 오후 7:30, 9:30, 토요일 오후
7:00, 9:30, 일요일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15년 전 실종된 아이가 청년이 되어 마을로 돌아온 후 그날의 사건을 파헤쳐가는 과정을 그린

연극 '오래된 아이'는 치밀한 구성과 반전으로 관객들에게 섬뜩한 공포를 선사한다.

- 작, 연출/오승수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2010 소극장 페스티벌 소극장으로 통한다

8월 3일(화)-28일(토) 공간소극장,
미리내소극장, 소극장 실천무대,
액터스소극장, 일터소극장

'연극도시, 부산'을 꿈꾸며 부산 연극의 관객계 발과 창작수준 향상을 위해 부산지역 연극인들로 결성된 소극장연극운동협의회가 마련한 '2010 소극장 페스티벌-소극장으로 통한다'.

- **아마추어 연극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3일(화)-7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6:00 소극장 실천무대



부산연극 관객모임인 '부산연극지기'의 아마추어 연극모임이 선보이는 무대.

다섯 명의 여성 등장인물을 통해 이 시대, 이 땅의 여성들에게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성찰을 시도하는 작품이다.

- 작/주찬욱 · 연기지도/이성민
- 출연/문혜정, 구현정, 안유진, 류애린, 권민경
- **부대공연 '닭 잡아먹고 오리발'**
4일(수)-28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4:00
(화요일 공연없음) 미리내소극장
오늘을 살아가는 나약한 현대인의 자화상을 그려낸 호민의 모노드라마.
- **신인작가전 I '11시 55분 & 밤이면 밤마다'**
7일 토요일 오후 4:00,
10일-11일 화-수요일 오후 8:00 공간소극장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 11시 55분(작/채지하·연출/김만중·출연/김선관, 이수옥)

지하철 승강장에서 만난 상처입은 남녀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는 관계의 힘을 그린 작품.

▶ 밤이면 밤마다(작/김효민·연출/변현주·출연/차동희, 김재형, 김병철)

불면증에 시달리는 남자와 기면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여자, 상반된 상황에 놓인 각 인물의 일상을 재기발랄하게 그려낸 작품.

■ 신인작가 발굴을 위한 낭독공연

9일(월), 16일(월), 23일(월) 오후 8:00

일터소극장

2011년 소극장페스티벌 '신인작가전'에 오를 이덕희 '고리'(연출/김문홍), 김지숙 '열렬한 청취자'(연출/호민), 최미혜 '봄을 아느냐 물으시면' 등 세 편의 작품이 선보인다.

■ 신인배우전 '신의 아그네스'

8월 17일(화)~27일(금)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일-월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실천무대

'현대연극의 고전'이라 불리는 연극 '신의 아그네스'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깊은 상처와 불안을 그려낸 작품이다.

· 작/존 필모어 · 연출/이성민

· 출연/이아름, 전지은, 이선민

■ 연출가전 '비계 낀 감자'

8월 17일(화)~27일(금)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액터소극장

1984년 창단 후 연극 '에쿠우스', '고도를 기다리며' 등 실험성 있는 작품을 고집해온 연출가 이성규가 이오네스코의 원작 '자크 혹은 굴종'을 무대화한 연극 '비계 낀 감자'를 선보인다.

· 작/외젠 이오네스코

· 연출/이성규 · 안무/양효윤

· 출연/최웅, 강경희, 이현식, 박정아, 전상미, 박훈영, 서경화, 김하영, 진소영

■ 신인작가전 II '절벽'

18일(수)~28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일-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외모 콤플렉스로 성형수술을 선택한 '하영'이라는 인물을 통해 행복과 욕망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

· 작/주란 · 연출/김세환

· 출연/옥은화, 김서현, 최윤희, 은상욱, 최영무

■ 연극학교 워크숍 '관객모독'

18일(수)~26일(목)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일, 월요일 공연없음) 일터소극장

소극장연극운동협의회 '제 1기 연극학교' 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의 첫 무대 연극 '관객모독'.

· 작/피터 한트케 · 연기지도/이성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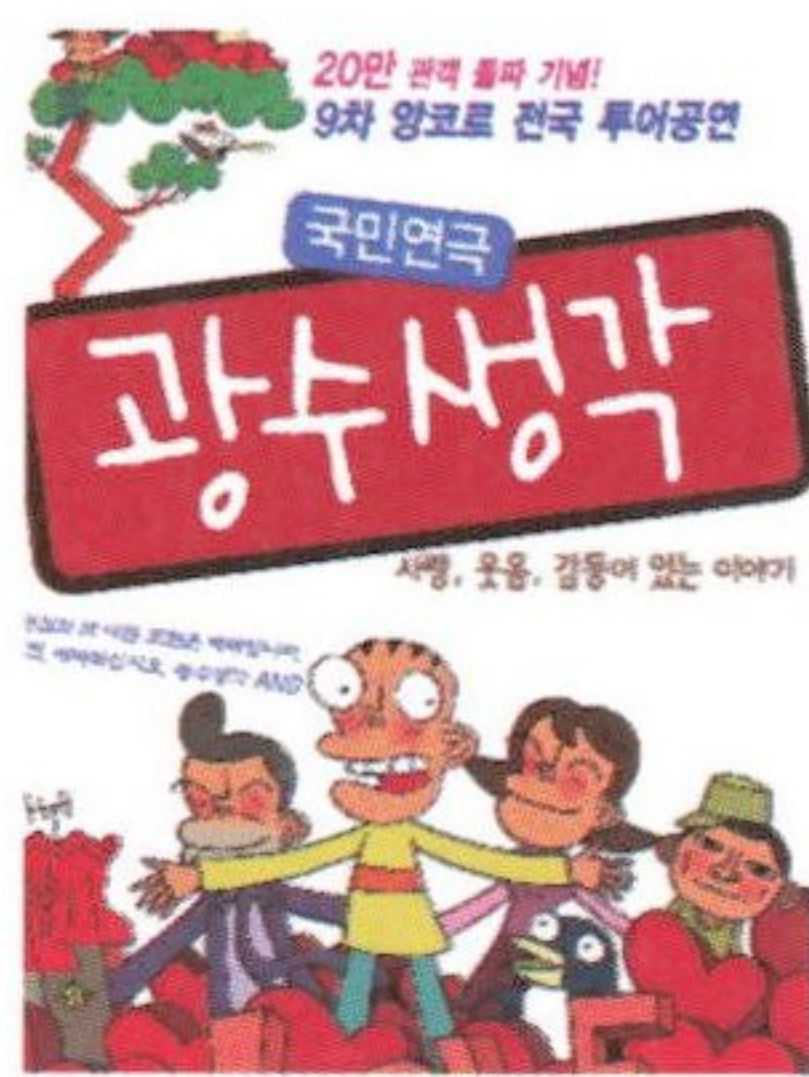
· 출연/김미영, 김진모, 강성진, 이승미, 남소라

■ 관람료 균일 20,000원(예매시 30% 할인)

■ 문 의 소극장연극운동협의회(611-8518, 245-5919, cafe.daum.net/sotongs)

연극 광수생각

8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4일 수요일 오후 3:00,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일간지 인기 연재 만화를 무대화한 작품으로, 소심한 무명 만화가 광수의 사랑과 가족애를 그린 작품이다.

■ 관람료 일반 15,000원 학생 8,000원

■ 문 의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61~5)

2010 전통연희 상설공연 필판·놀판·살판

8월 3일(화), 17일(화)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 3일 극단 민들레 '마포사는 황부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황부자 앞에 가난한 백성을 도와주는 하얀 복면의 도적이 나타나면서 펼쳐지는 가족 연희극.

▶ 17일 예술공장 두레 '강'

구성진 소리와 신명나는 춤사위, 맛깔스런 재

담을 통해 수많은 질곡을 겪어온 우리 민족의 한과 신명, 강인함을 그려낸 창작연희극.

■ 관람료 초대(전화예약 필수)

■ 문 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어린이뮤지컬 후다닥 동물학교

8월 6일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미국의 교육학자 리브스의 '동물학교 우화'를 바탕으로, 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무시하는 현재의 교육현실을 풍자한 가족뮤지컬.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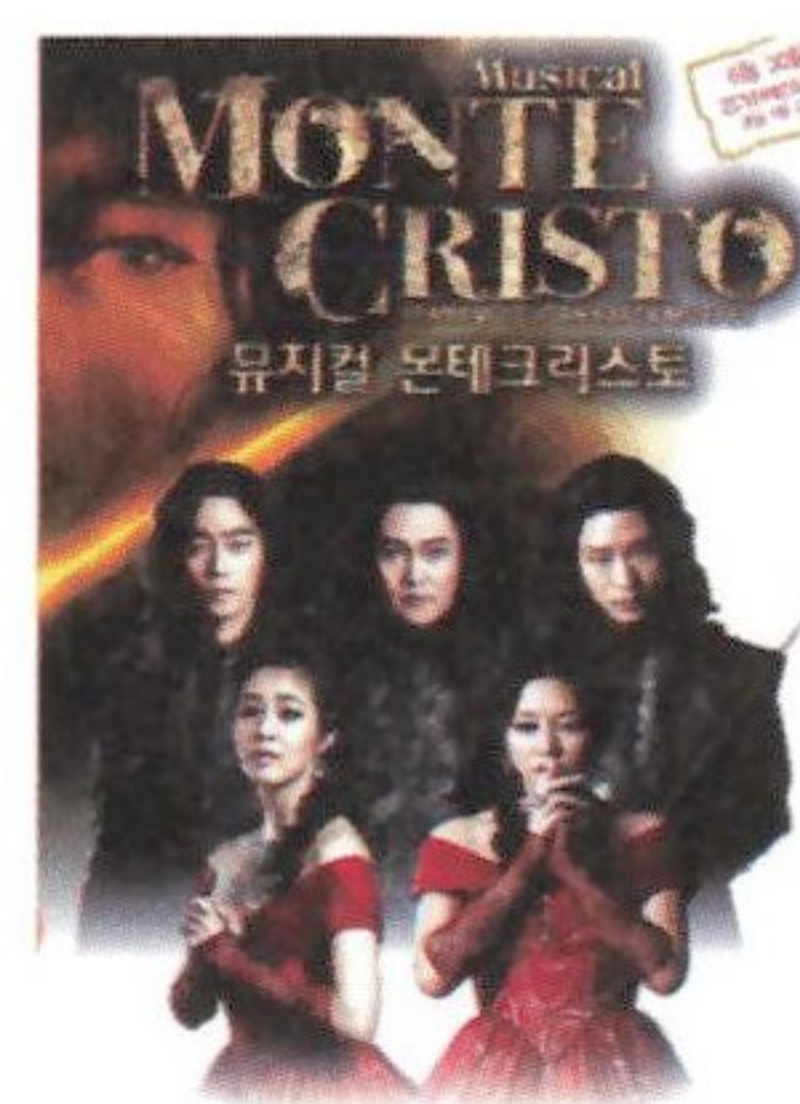
■ 문 의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61~5)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8월 6일 금요일 오후 8:00, 7일 토요일 오후

3:00, 7:30, 8일 일요일 오후 3:00

시민회관 대극장



사랑과 야망, 배신과 복수의 강렬한 주제를 지닌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을 브로드웨이의 대중적인 감성과 유럽의 클래식한 무대로 탄생시킨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의 감성을 울리는 음악과 류정한, 엄기준, 신성록, 옥주현 등 국내 최고의 배우들이 펼치는 화려한 무대가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 연출/로버트 요한슨

■ 관람료 VIP 120,000원 · R석 100,000원 S석 80,000원 · A석 60,000원

■ 문 의 SPA엔터테인먼트(1588-07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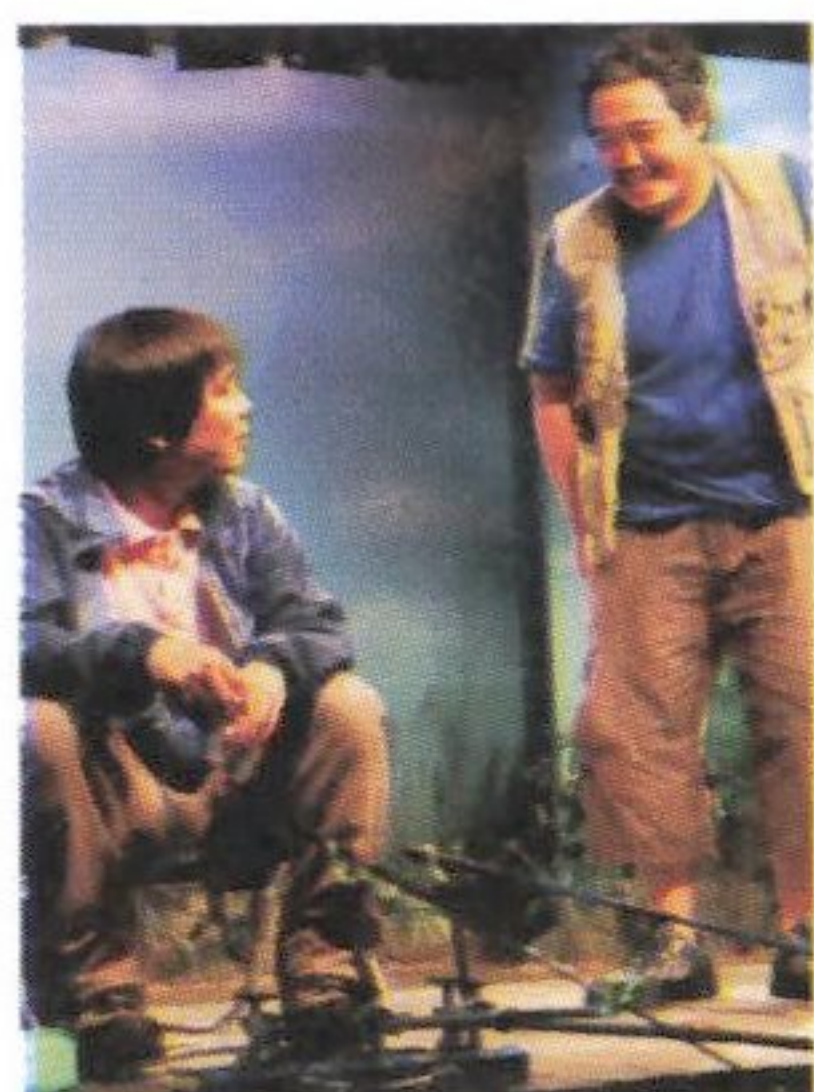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뮤지컬 락시터-즐거운 시절

8월 6일(금)-9월 1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3:00,
6:3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낙시터에서 만난 60
대와 30대 두 남자의
대화를 통해 바라본 우
리시대 자화상을 유쾌
하게 그려낸 창작뮤지
컬 '낙시터'.

· 작, 연출/위성신
· 작사, 작곡/강민호

· 출연/오종훈, 이봉련, 오의식, 박태성, 김탄현,
김시권, 김국희 외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가족뮤지컬 빨간모자와 늑대

8월 7일(토)-15일(일) 평일 오후 2:00, 4:00,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22일 일요일
오후 12:00, 2:00(금요일은 오후 2:00 1회 공연,
월요일 공연없음) 신세계아트홀

엄마의 당부를 무시하고 숲속길로 가다가 늑
대를 만난 빨간모자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에
게 재미와 교훈을 선사하는 가족뮤지컬.

- 연출/오계영
- 관람료 균일 15,000원
- 문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코믹극 뉴보잉보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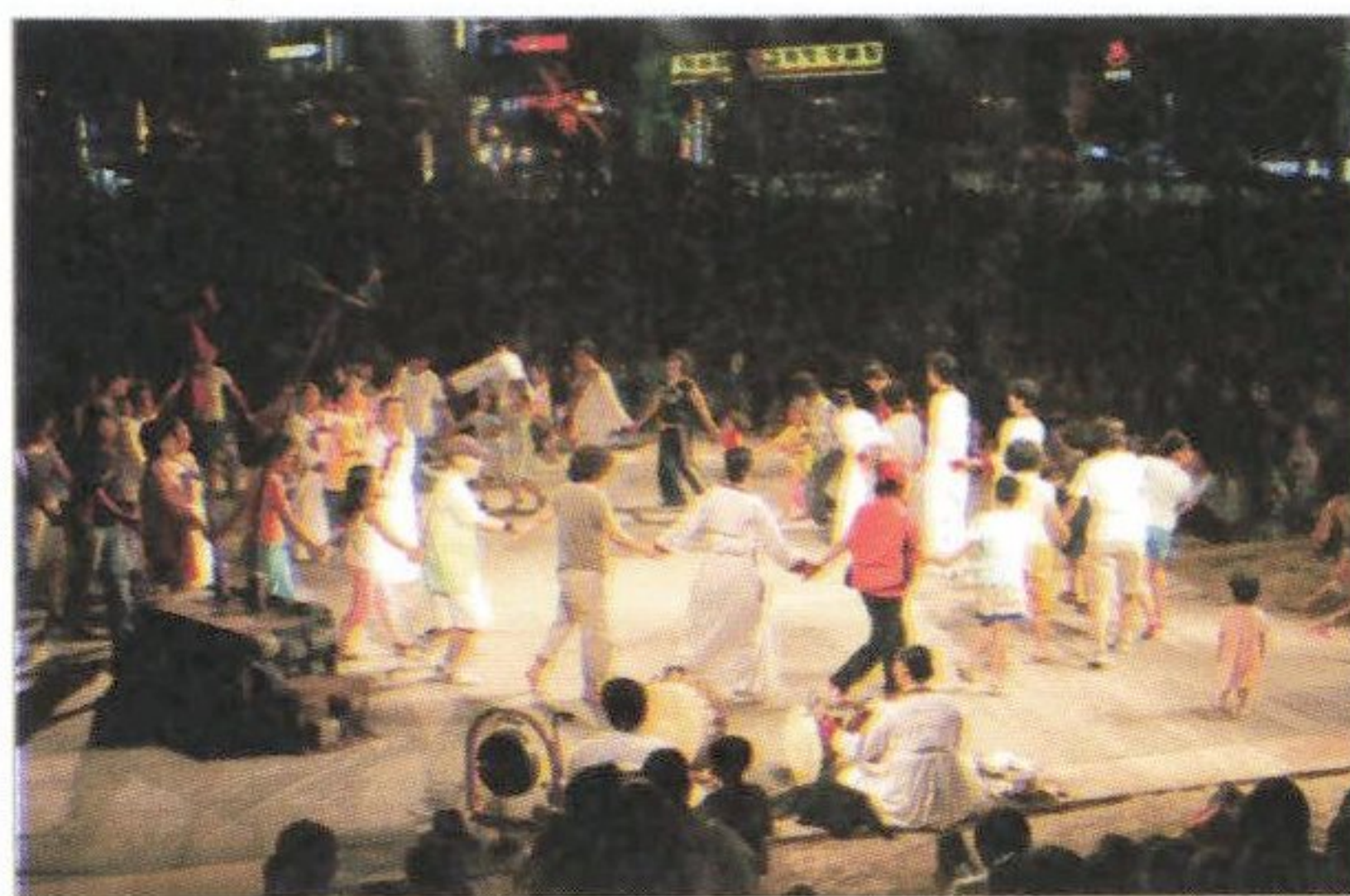
8월 10일(화)-9월 12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월요일 휴관)
숨사탕아트홀

3명의 스텐디스를 약혼자로 둔 바람둥이 주
인공의 아슬아슬한 연애행각이 코믹하게 펼쳐지
는 코믹극 '뉴보잉보잉'.

- 원작/마르꼬까 블레띠
- 번안, 연출/손남목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의 숨사탕아트홀(922-4545)

2010년 제 7회 부산마당극잔치

8월 12일(목)-14일(토) 평화장터 특설무대 ·
글라라홀 · 명석마당



나눔장터인 평화장터에서 펼쳐지는 2010 부산
마당극잔치.

주요일정

- ▶ 12일(목) 오후 7:00 평화장터 곳곳
길놀이 및 개막 퍼포먼스
- ▶ 12일(목) 오후 8:10 야외마당
열림굿 '배김허튼춤'
· 출연/남산놀이마당, 춤패 배김새
- ▶ 12일(목) 오후 8:30 야외마당
개막작-목포극단 갯돌 '품바품바'
각설이들이 세상을 떠돌며 해학과 풍자, 신명
으로 풀어 쓴 풍류일기.
- ▶ 13일(금) 오후 3:00 글라라홀
극단 사계 어린이극 '토끼의 이솝이야기'
신나는 노래와 함께 펼쳐지는 토끼의 이솝 우
화 여행기.
- ▶ 13일(금) 오후 5:30 글라라홀
극단 자갈치 마당극 '가물치왕자'
환경 파괴를 되돌아보고 후손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족마당극.
- ▶ 13일(금) 오후 8:00 야외마당
노동문화예술단 일터 '달밤블루스'
서민들의 삶과 애환 그리고 노동의 고단함과
기쁨을 춤과 노래로 풀어낸 창작뮤지컬.
- ▶ 14일(토) 오후 3:00 글라라홀
인형극단 코딱지 '우리동네 호박넝쿨'
동네 한 귀퉁이에 떨어진 호박씨가 싹을 틔우
고 넝쿨로 자란 뒤 자신이 뿌리내리고 살 곳을 찾
아다니며 겪는 이야기를 그린 창작인형극.
- ▶ 14일(토) 오후 5:30 글라라홀
김헌근 모노드라마 '호랑이 이야기'
노벨문학상 수상자 다리오 포의 원작을 우리
민족의 이야기로 각색, 모노드라마로 풀어낸 김

헌근의 '호랑이 이야기'.

▶ 14일(토) 오후 8:30 야외마당

폐막작-안산극단 걸판 '원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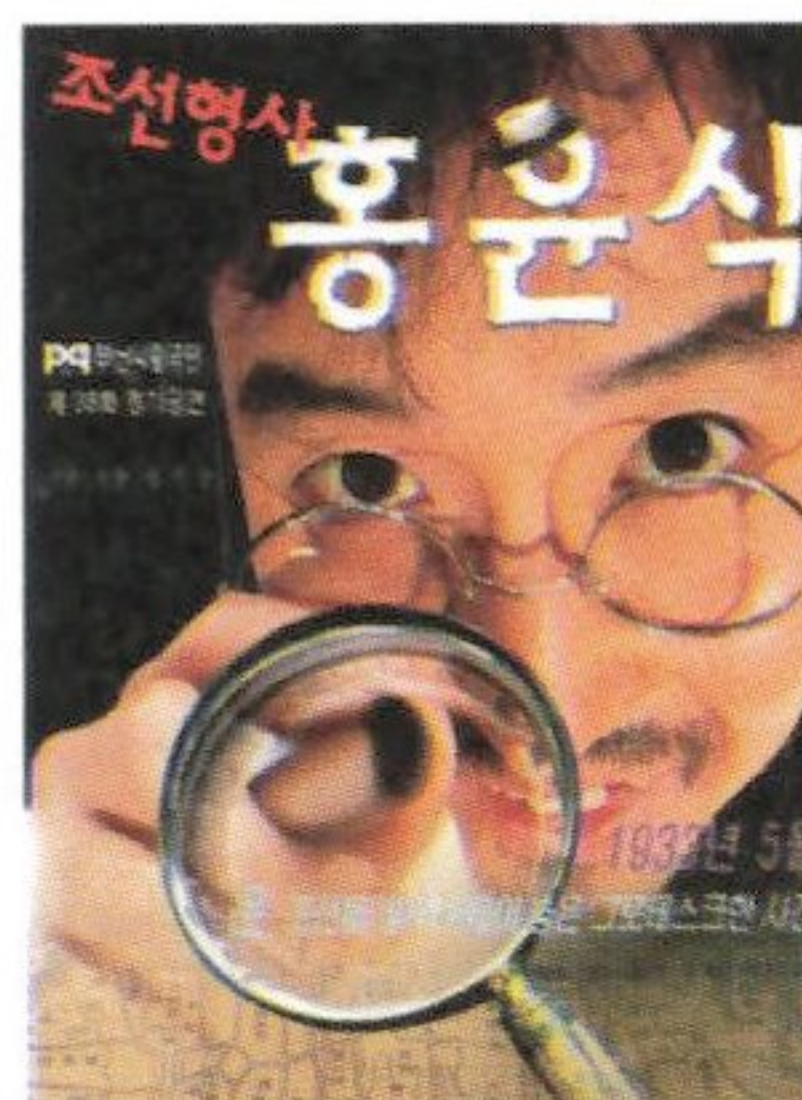
자주적 평화통일을 선언했던 6.15 공동선언 발
표 10돌을 맞아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든
자그마한 변화들을 코믹하게 엮은 옴니버스극.

- 관람료 초대(평화장터 이용자, 물품기증 및 기부자)
- 문의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부산지회 연
극위원회(635-5370,
www.openart.or.kr)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조선형사 홍운식

8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33년 지금의 서울
총정로인 경성 죽점정
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죽점정 영아머리 유기
사건'을 소재로, 1930년
대 근대 역사의 격동기
를 재조명한 작품.

· 작, 연출/성기웅

- 출연/이혁우, 염지선, 유성주, 박찬영, 이돈희,
정행심, 이현주, 김은희, 황창기, 유재명
(객원배우), 김상균, 허철녕, 이남희 외
- 관람료 초대
- 문의 부산시립극단(607-3151~3)

2010 대형뮤지컬 피터팬

8월 14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시민회관 대극장



특수제작된 와이어를 이용한 플라잉 기술로
무대 위를 나는 피터팬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는 가족뮤지컬 '피터팬'.

- **관람료** R석 25,000원 · S석 20,000원
(예매시 20% 할인)
- **문의** 플러스기획(080-071-1212)

영어뮤지컬 리틀 드래곤

8월 20일 **금요일** 오후 8:00, 22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5:00 MBC롯데아트홀

아기용이 친구를 찾아 지구 곳곳을 다니면서 겪는 모험이야기가 3차원 입체영상과 재미있고 배우기 쉬운 율동과 노래, 반복되는 영어대사 속에 펼쳐지는 어린이 영어연극 '리틀 드래곤'.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MBC롯데아트홀(760-1357)

라이브뮤지컬 어린이 캣츠

8월 21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22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시민회관 대극장



다양한 개성을 지닌 고양이들의 행복찾기가 신나는 음악과 화려한 안무 속에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어린이 캣츠'.

- **관람료**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문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드라마콘서트 천변살롱

8월 27일 **금요일** 오후 8:00, 28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9일 **일요일** 오후 3:00 MBC롯데아트홀

일상생활을 자유로운 가사에 담아냈던 1930년대 만요(漫謠) 레퍼토리에 극과 라이브연주가 가



미된 새로운 형식의 드라마 콘서트.

'뮤지컬계의 빅마마' 뮤지컬 배우 박준면과 가수 하림이 이끄는 어쿠스틱 살롱밴드의 라이브연주 속에 1930년대 천변살롱으로 시간

여행을 떠난다.

-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MBC롯데아트홀(760-1357)

영어연극

오즈의 마법사-도로시 따라가기

8월 31일(화)-11월 30일(화) 매주 **토-일요일** 오후 2:00 솜사탕아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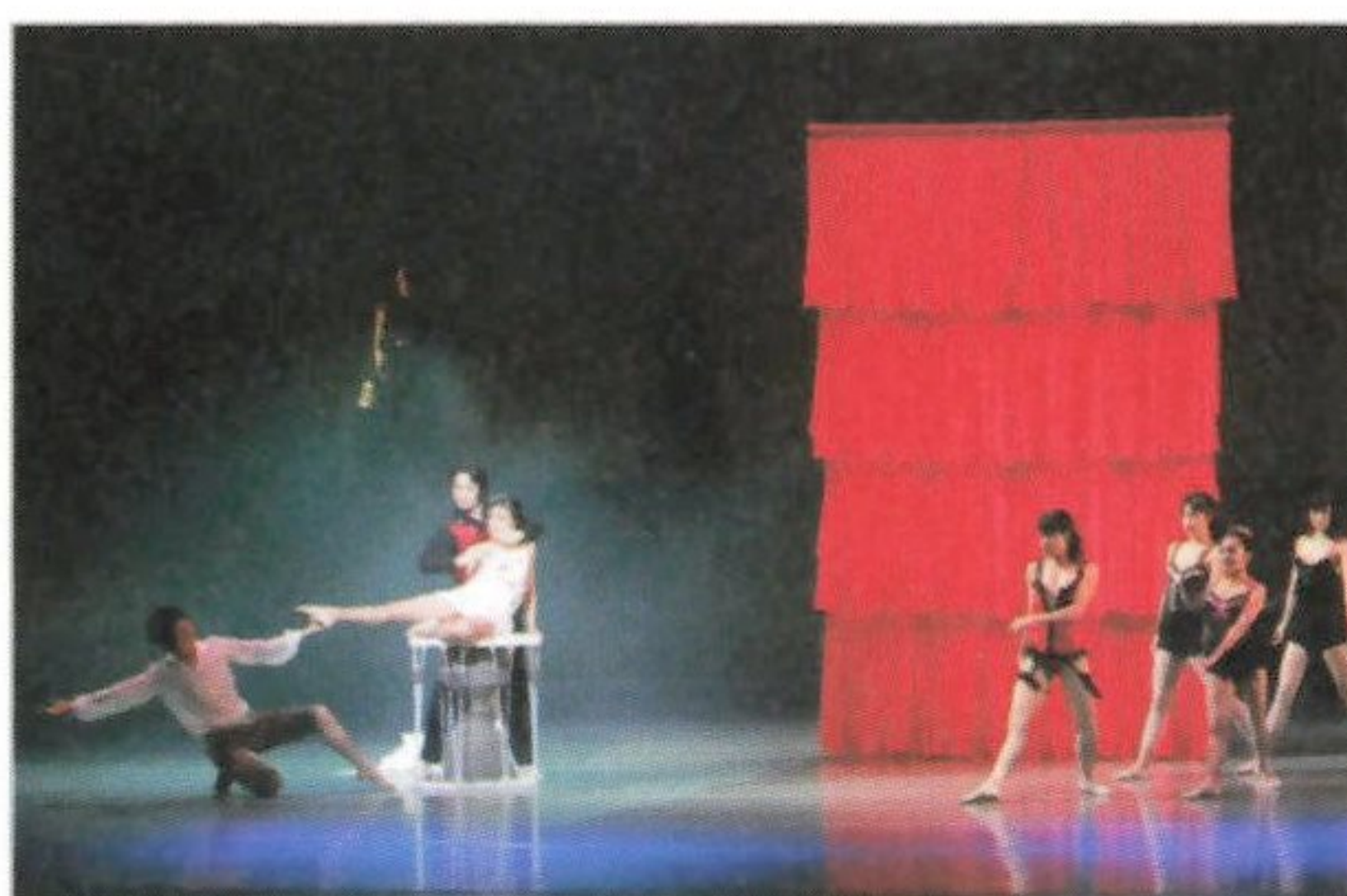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오즈'에 가게된 도로시와 그의 친구들이 펼치는 꿈과 모험의 세계가 영어대사로 펼쳐지는 영어연극.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솜사탕아트홀(922-4545)

DANCE

청소년을 위한 여름방학 빅 이벤트 발레공연 **李箱 날개**

8월 6일-7일 **금-토요일** 오후 4:00, 8: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1991년 창단 후 부산지역 창작발레 활성화에 힘써온 김옥련발레단이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

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무대.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 모더니스트 이상의 대표작 '날개'를 발레극으로 재구성한 '李箱 날개'를 선보인다.

- 안무/김옥련 · 연출, 대본/유상홀
- 특별출연/이원국, 최예원
- 출연/박재현, 정진우, 강용기, 강정일, 안유리, 최연순, 김서은, 이세라, 김옥련
- 연주/송용창(아코디언), 박종환(타악)
- 낭송/이진희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중고생 10,000원(문화바우처 대상자 무료)
- **문의** 김옥련발레단(626-9486)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김명자 명인 초청공연'

8월 31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중요무형문화재 승무, 살풀이춤 전수자, 우봉 이매방춤 보존회 회장으로 있는 김명자 명인 초청무대.

작품

기원무, 검무, 살풀이춤, 산조, 장검무, 승무

- **관람료** 균일 6,000원
-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MOVIE

씨네 리플레이 2010

7월 8일(목)-8월 8일(일) 시네마테크 부산(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7/27일~29일-월요일 휴관)

2010년 상반기에 개봉한 예술영화 중 다시 보고 싶은 영화와 부산에서 개봉되지 않은 영화를 선정, 상영하는 시네마테크 부산 여름영화축제.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구로사와 아키라 탄생 100주년 특별전

8월 10일(화)~29일(일) 시네마테크 부산
(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월요일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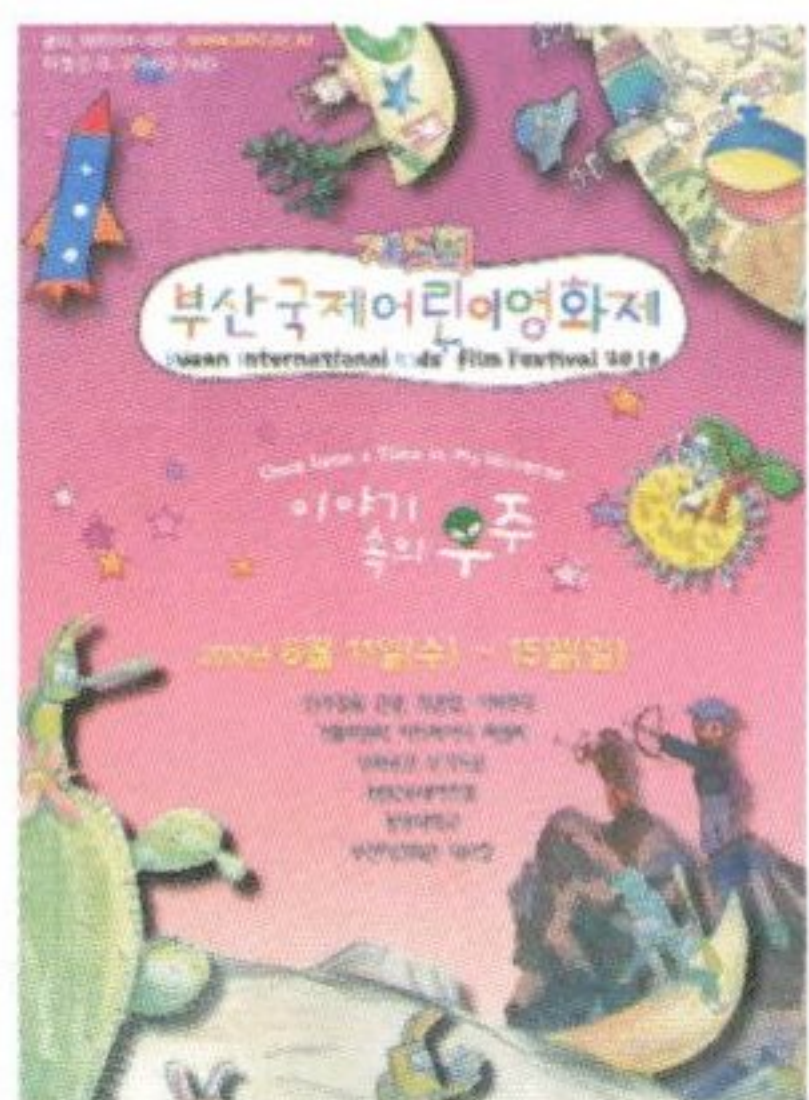
세계적 거장으로 추앙받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 탄생 100주년을 맞아 열리는 특별전.

영화 '7인의 사무라이', '라쇼몽' 등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대표작에서부터 데뷔작 '스카타 산시로',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생존의 기록' 등 총 21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 관람료 무료
-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 (742-5377, cinema.piff.org)



8월 11일(수)~15일(일) 부산민주공원 큰방·작은방·야외광장, 가톨릭센터 아트씨어터 씨앤씨, 영화공간 보기도문, MBC롯데아트홀 외



참여, 나눔, 즐거움의 어린이 영화잔치 제 5회 부산국제영화제.

'이야기 속의 우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세계 23개국 136편의 초청작이 상영된다.

개막작으로는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우주모험 이야기가 펼쳐지는 세르긴 세르게이 감독의 '엘리사의 생일'이, 폐막작으로는 월드컵의 열기에 감독의 드라마를 선사한 김태균 감독의 '맨발의 꿈'이 상영된다.

- 관람료 개막작 7,000원 · 일반상영작 5,000원
- 문의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743-7652)

CONCERT

한여름 밤의 7080 Summer 콘서트

8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추억의 명곡 '유리창엔 비'로 데뷔한 햇빛촌의 고병희와 '친구야'의 박진광, '그날'의 김연숙이 출연, 추억의 그 시절 그 노래를 들려준다.

- 관람료 일반 15,000원 · 학생 8,000원
- 문의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61~5)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록 동호회 덴타폰 창단 30주년 기념 공연 History

8월 14일 토요일 오후 6:00 MBC롯데아트홀



1980년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학생들의 그룹사운드로 출발, 현재 동문 12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록 동호회 '덴타폰'의 창단 30주년 기념공연.

- 관람료 초대
- 문의 그랜드오페라단(853-2341)

Jazz 와인에 빠지다 20번째 콘서트

8월 27일 오후 8:00 시민회관 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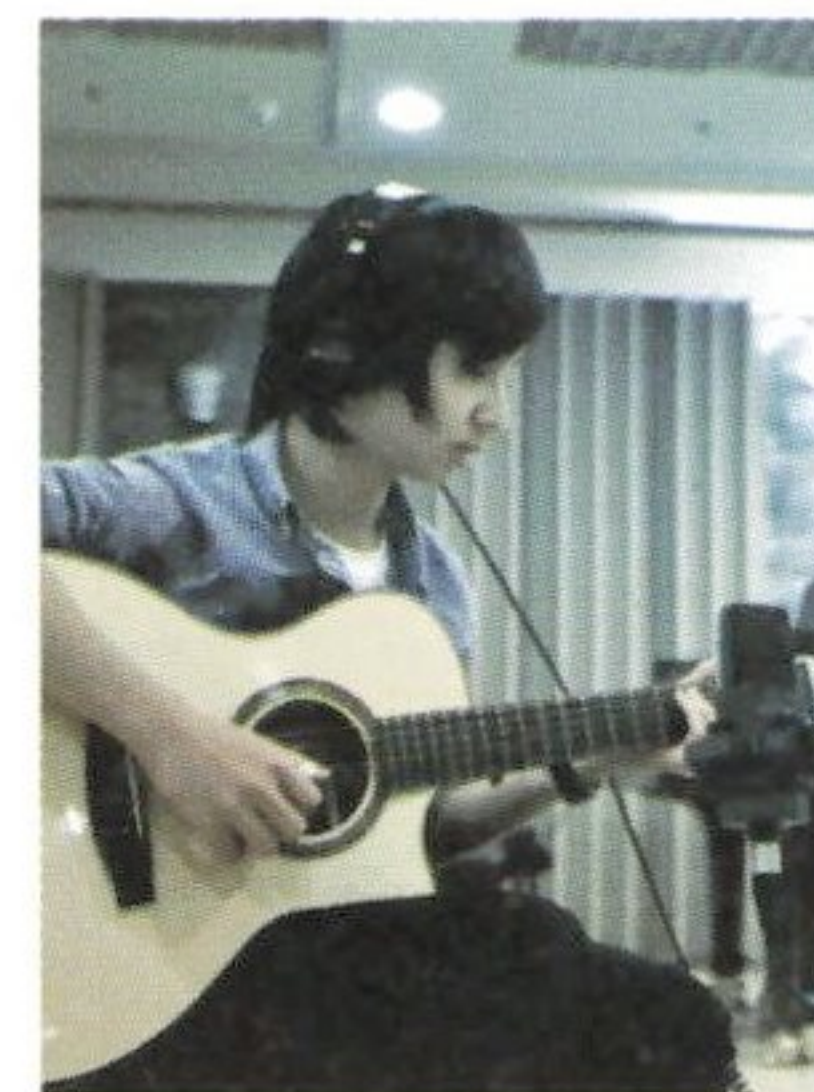
한달에 한번 재즈와 와인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 'Jazz 와인에 빠지다' 20번째 콘서트.

재즈피아니스트 김성관, 베이스주자 김성배, 드럼주자 김철의 연주로 정통 뉴욕재즈의 진수를 들려준다.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의 무대공감(623-0678)

기타신동 정성하 1집 발매기념 투어콘서트

8월 28일 토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모은 기타신동 정성하의 1집 음반 발매를 기념하는 국내 첫 투어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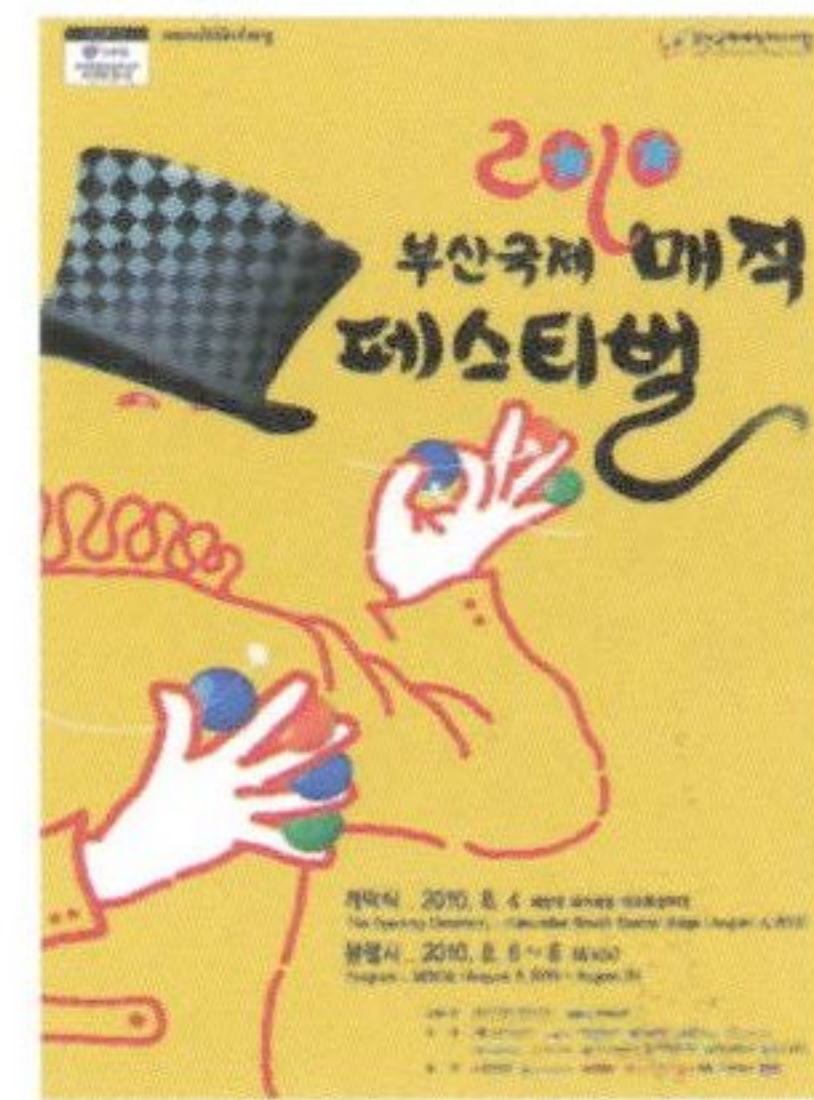
마이클 잭슨 '빌리진', 퀸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 익스트림 '모어 댄 워즈' 등 1집 음반에 수록된 팝 명곡을 들려준다.

- 관람료 R석 33,000원 · S석 22,000원
- 문의 프리덤콘서트(752-5547)

EVENT

2010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8월 4일(수)~8일(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국내외 유명 매지션들이 참가하는 화려한 마술축제 2010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주요일정
▶ 5일(목)~8일(일)
오후 7:30
나이트 갈라쇼

마술의 살아있는 전설들이 펼치는 최고의 쇼.
▶ 5일(목)~8일(일) 오후 1:00 데이터타임 갈라쇼
국내외 최정상급 매지션들과 저글러가 만들어가는 프로젝트 공연.

▶ 5일(목)~7일(토) 오후 3:00
부산국제마술경기대회
아시아 마술계의 신성들이 모여 기량을 펼치는 아시아 최고 권위의 마술대회.

▶ 5일(목)~8일(일) 오전 10:00 명인 렉처
세계 최고 명인들의 마술강의.

▶ 5일(목)~8일(일) 오전 11:00
이홍선 옹(翁) 회고전
한국 마술계의 살아있는 전설 이홍선 옹(翁)의 마술세계를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

▶ 5일(목)~8일(일) 오후 1:40, 4:40
명인 클로스업

유명 매지션을 초청,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매직쇼 공연.

- **관람료** 일반 10,000원 · 어린이 8,000원 (데이타임 갈라쇼 R석 20,000원 S석 15,000원, 나이트 갈라쇼 R석 30,000원 · S석 25,000원)
- **문의**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626-7002, www.hibimf.org)

세계민속악기 체험활동

8월 8일(일), 15일(일), 21일(토)-22일(일)
세계민속악기박물관

우리 전통악기인 장구와 아프리카 드럼인 켄베, 아일랜드의 틴휘슬 등 세계 민속악기를 배워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 8일, 22일 오후 2:00 두드려~쎄베!!!
- 15일 오후 2:00, 4:00 우리가락 줄을씨구!!!
- 21일 오후 3:00 맑고 고운소리 틴휘슬!
- **관람료** 균일 10,000원(틴휘슬은 5,000원)
- **문의** 세계민속악기박물관(245-5025, www.busantower.org)

2010 인디고 유스 북페어

8월 18일(수)-8월 22일(일) 인디고서원, 누리마루 APEC하우스, 부산전시컨벤션센터

'가치를 다시 묻다-새로운 시대의 가치혁명을 꿈꾸며'라는 기획으로, 강연과 심포지움, 공연과 시낭송,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는 2010 인디고 유스 북페어.

- **관람료** 무료(단, 필독서를 읽은 후 신청서 작성)
- **문의** 인디고서원(628-2897, www.indigoyouthbookfair.net)

GALLERY

부산근대역사관 특별기획전 부산의 근대 자본가, 청운 윤상은의 일생

7월 3일(토)-8월 29일(일) 부산근대역사관

- **문의** 부산근대역사관(253-3845~6)

궁리(窮理)-장영실과 과학의 나라

7월 10일(토)-8월 15일(월) 부산박물관

- **문의** 부산박물관(610-7111)

2010 오픈 투 유 국제레지던스 전시 프로그램

The Ramblers in Pearville

7월 17일(토)-8월 15일(일) 오픈스페이스 배

- **문의** 오픈스페이스 배 (724-5201, www.spacebae.com)

맛과 향기가 있는 그림전

7월 20일(화)-8월 20일(금) 갤러리 나무

- 초대작가/김광한, 이용학, 정창기
- **문의** 갤러리 나무(242-5123)

1973갤러리 개관기념 초대전

7월 23일(금)-8월 31일(화) 1973갤러리

- **문의** 1973갤러리(555-1973)

박미영 개인전 바람이 머무는 곳

7월 30일(금)-8월 5일(목)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 **문의**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박정혁 개인전

8월 2일(월)-8월 31일(화)

부산프랑스문화원 전시실

- **문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고희자 초대전

8월 3일(화)-8월 12일(목) 타워갤러리



-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이영옥 작품전

8월 3일(화)-8월 25일(수) 교문갤러리

- **문의** 교문갤러리(805-5114)

오진국 - 크로스 미디어전

8월 6일(금)-8월 19일(목)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 **문의**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박경자 개인전

8월 13일(금)-8월 18일(수) 타워갤러리

-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최광호 사진전:사진적 사색

8월 14일(토)-10월 31일(일) 고은사진미술관



- **문의**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2010 선면전(부채그림전)

8월 19일(목)-8월 24일(화) 타워갤러리

-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아프리카 현대미술 쇼나 조각전

8월 20일(금)-9월 2일(목)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 **문의**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입주작가 이자연 개인전 '사이의 경계'

8월 21일(토)-8월 31일(화)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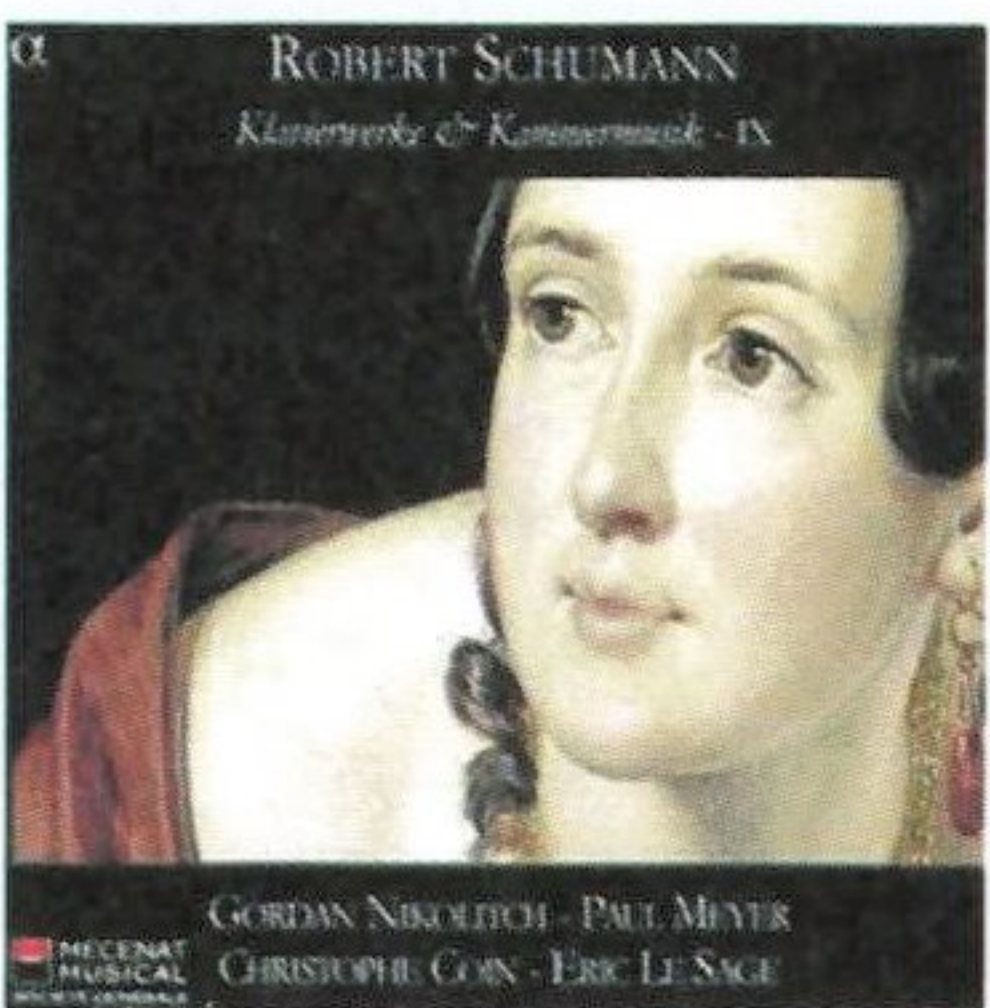
- **문의**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266-0646)



바그너:신들의 황혼

연주/카타리나 달라이만(소프라노), 라르스 클레브만(테너), 피터 콜맨-라이트(베이스바리톤), 전승현(베이스), BBC 심포니 합창단, 할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마크 엘더(지휘) 외

할레 오케스트라 2009년 시즌의 최고 하이라이트로 기록되는 바그너 '신들의 황혼' 공연을 담은 실황음반이다. 이미 완전매진으로 공연 전부터 화제를 모은 이 음반은 리뷰를 통해 브뤼헨데 역의 카타리나 달라이만, 하겐역의 전승현 등 완벽한 배역과 지휘자 마크 엘더의 섬세함과 열정적인 힘으로 많은 찬사를 받았다. 발매와 함께 그라모폰 에디터스 초이스로 선정되고, BBC 뮤직매거진에서 추천음반으로 화제를 모은, 바그네리안이라면 놓칠 수 없는 걸작 음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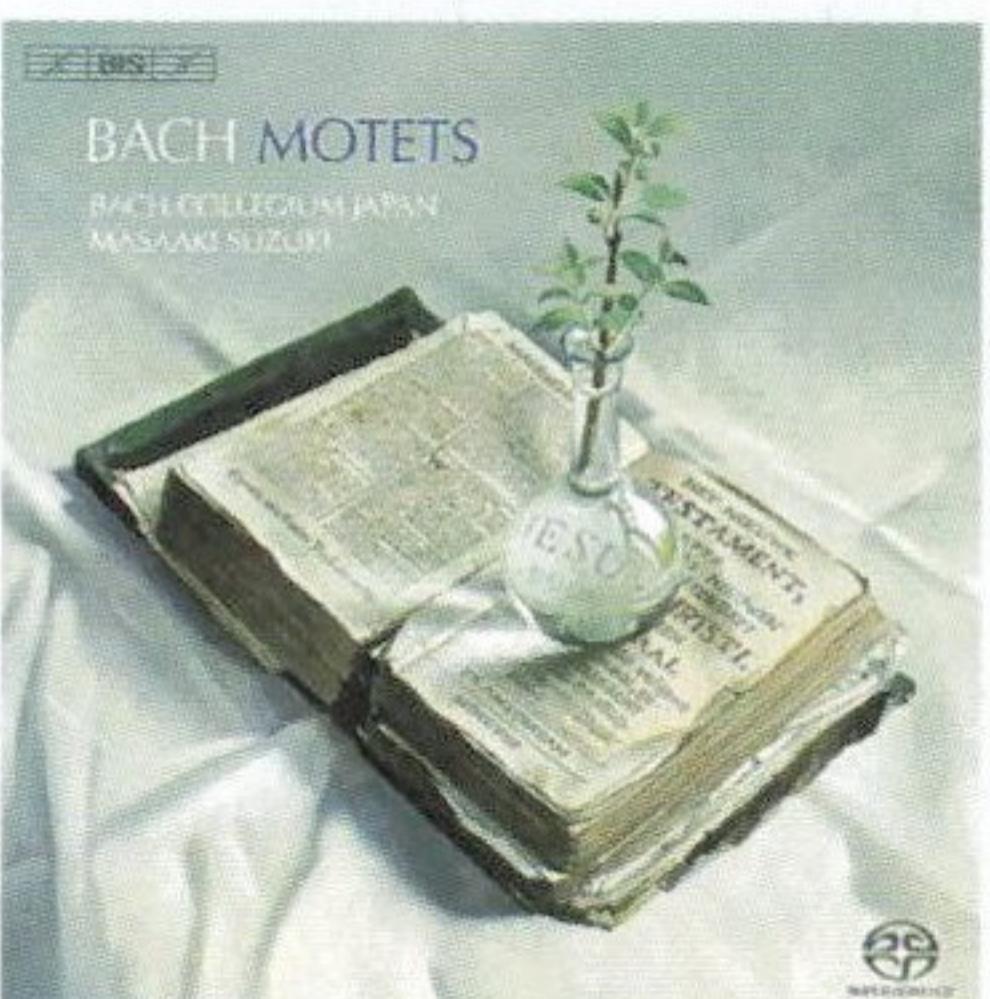


슈만-피아노와 실내악 작품집 Vol.9

연주/에릭 르 사쥬(피아노), 고르단 니코리치(바이올린), 크리스토프 코인(첼로), 폴 메이어(클라리넷)

▶ 수록곡 : 피아노 삼중주곡 No.1 Op.63, No.2 Op.80, No.3 Op.110 / 환상소곡집 Op.88 / 6개의 캐논 풍의 소품집 Op.56

에릭 르 사쥬, 고르단 니코리치, 폴 메이어 등 연주자들의 이름만으로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음반으로 19세기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피아노 트리오 형식의 작품들을 담았다. 풍부한 울림과 음색의 아름다운 선율들과 한시도 놓을 수 없는 긴장감, 성숙하다 못해 농익은 표현의 깊이가 가슴 뭉클해지는 한편 형언할 수 없는 무한감동으로 다가온다. 바이올린 대신 클라리넷으로 연주하는 '캐논 풍의 소품집'의 부드럽고 신비한 매력 또한 이 음반에서만 만날 수 있는 백미이다.



바흐 '모테트'

연주/마사키 스즈키(지휘), 바흐 콜레기움 저팬, 유카리 노노시타(소프라노), 아키 마츠이(소프라노) 외

▶ 수록곡 : 주님께 새로운 노래를 BWV 225, 오소서 예수여 오소서 BWV 229, 예수는 나의 기쁨 BWV 227, 주를 찬양하라 모든 이방인이여 BWV 230, 두려워 말라 내 너와 함께 있으니 BWV 228 외

정기적으로 꾸준히 발매되고 있는 스즈키, 바흐 콜레기움 저팬 조합의 바흐 칸타타 시리즈가 짧은 휴식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마저도 음악으로 채워야 했는지 또 하나의 바흐 작품을 완성하기에 이른다. 바로 지금 소개하는 모테트(Motets) 작품집이 그것. 대중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주님께 새로운 노래를 BWV 225'와 '예수는 나의 기쁨 BWV 227'을 포함해 8개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Wir sind das Volk(우리가 인민이다)'-1989년 10월 9일 기념공연 실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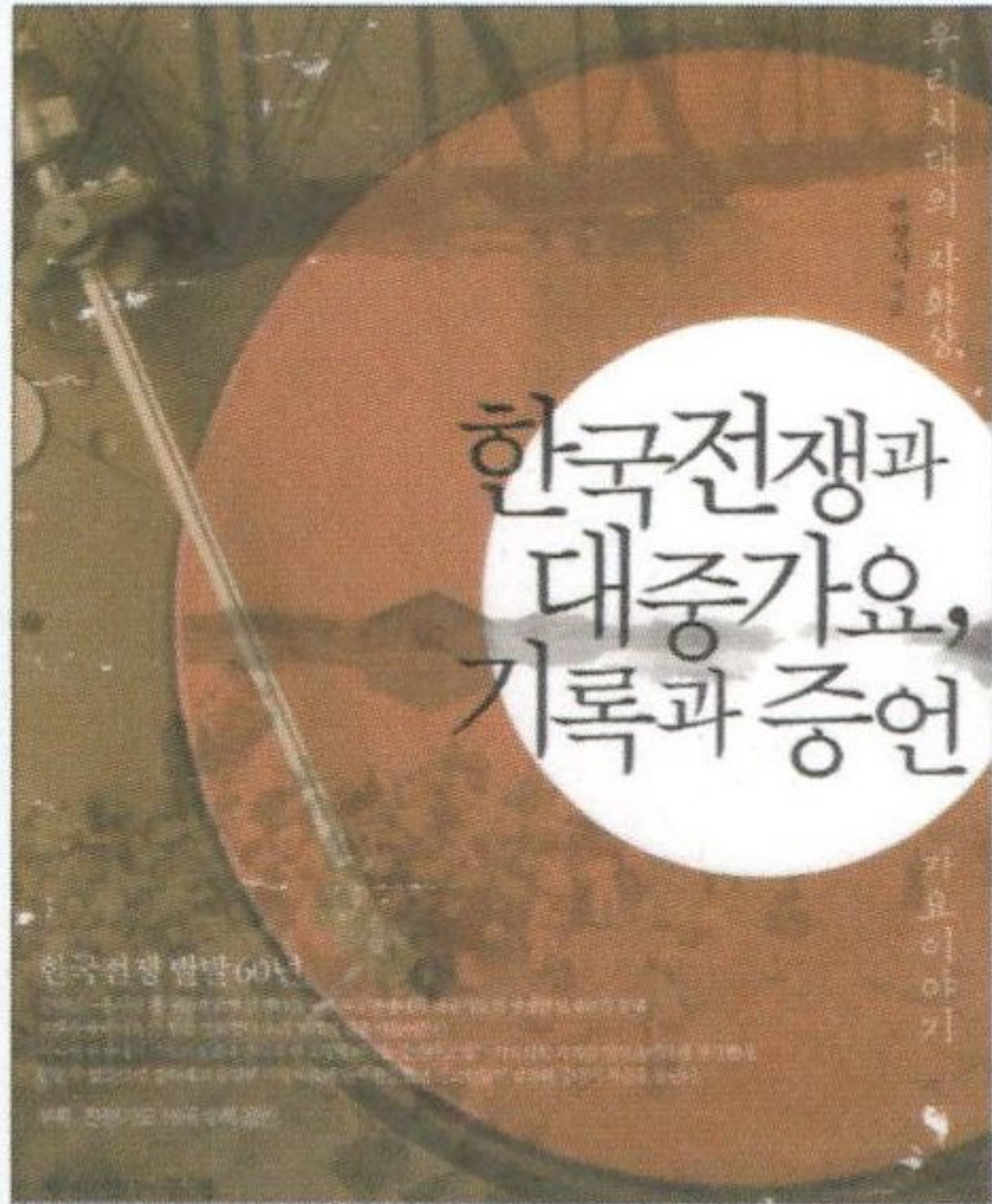
연주/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지휘/쿠르트 마주어)

▶ 수록곡 :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R.슈트라우스), 교향곡 2번 D장조 Op.73(브람스), 트럼펫, 팀파니,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지그프리트 마투스)

독일 통일의 단초가 되었던 역사적인 거리집회 현장의 순간을 기념한 음악회 실황음반. 1989년 10월 9일, 7만명이라는 참가자가 행진했던 라이프찌히 시위 도중 시민들이 군인들에 둘러싸였을 때 두려움에 맞서 'Wir sind das Volk(우리가 인민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反동독 데모를 펼친 첫 날이었다. 이 역사적인 날에 공연된 쿠르트 마주어 지휘의 연주를 담은 실황 음반으로, 브람스의 교향곡은 부당한 권력에 대한 민중의 승리처럼 들리는 듯 하다.

NEW BOOK

박현주 _ 동보서적 <웹진 책소식> 편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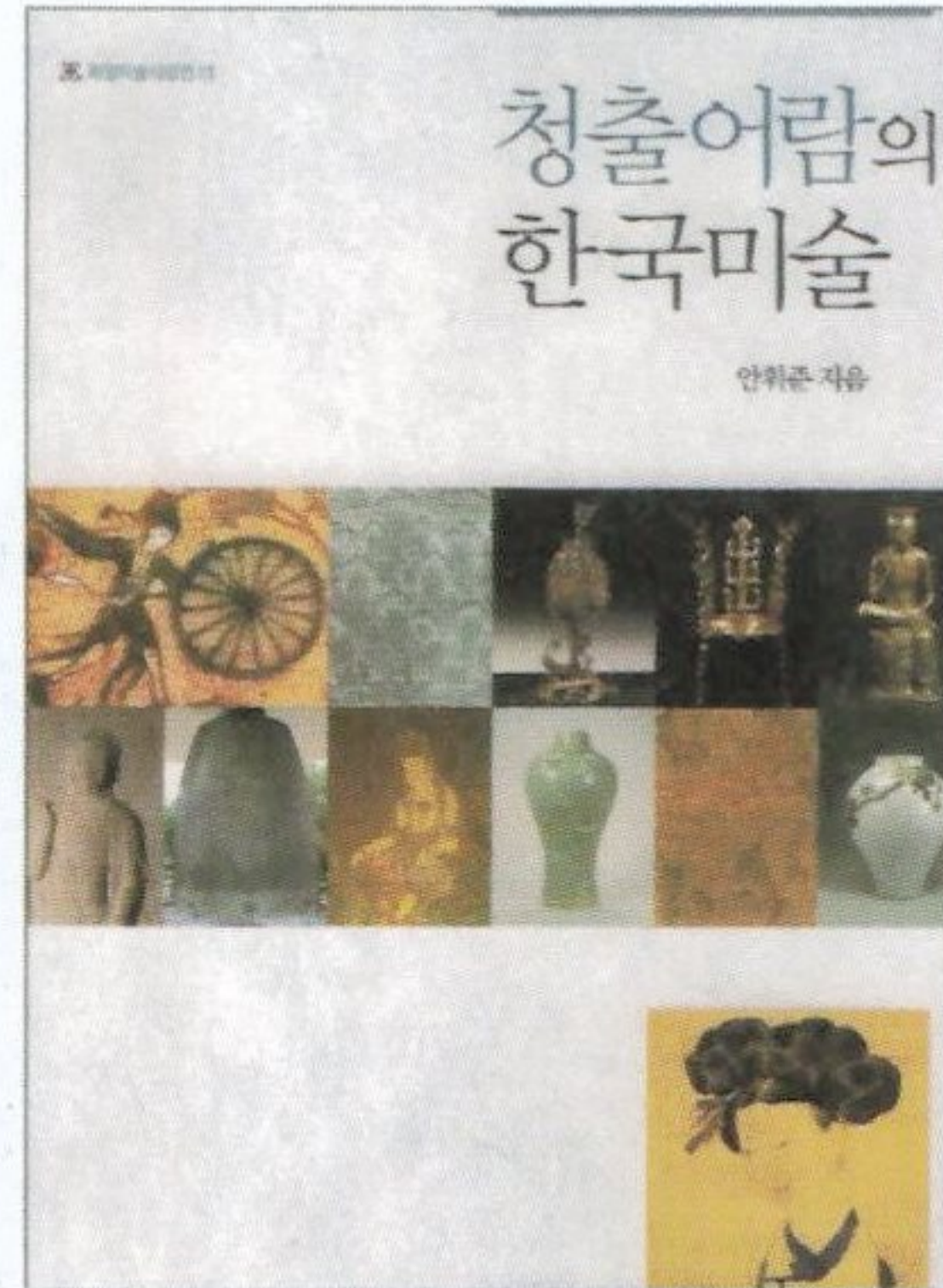


한국전쟁과 대중가요, 기록과 증언

박성서 지음

책이있는풍경 / 351p / 25,000원

‘한국 전쟁 당시, 아내가 5살 어린 딸을 업고 화약이 터지는 미아리 고개를 넘던 중 딸이 영양실조로 눈을 감고 말았다. 9·28 수복이 돼서야 서울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서 그 말을 전해 듣고 어린 딸을 생각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노래를 만들었다.’ 원로 가수 겸 작사가 반야월 선생이 만든 노래 <단장의 미아리 고개>에 얽힌 이야기이다. 선생은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찢어질 것 같다고 한다. 민족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겪으며 고단하고 서러운 세월을 견뎌내어야 했던 사람들을 달래주었던 노래에는 이렇듯 수많은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다. 대중음악평론가 겸 저널리스트인 박성서 씨가 6·25 전쟁 60주년을 맞아 펴낸 이 책은 전쟁가요의 역사와 발자취를 실증자료와 증언을 통해 생생히 보여준다. 저자는 “대중가요는 시대상과 생활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시대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전쟁이 활취고 간 상처가 우리 가요 속에 선명히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6·25 전쟁 당시 발행된 음반과 사진 자료, 각종 공연 포스터와 전단 등 당시 가요계를 엿볼 수 있는 희귀한 자료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전쟁가요 16곡을 수록한 음반도 부록으로 제공된다.



청출어람의 한국미술

안휘준 지음

사회평론 / 391p / 18,000원

회화사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안휘준 교수는 한국미술의 특질을 찾기 위해 중국, 일본을 비롯 동서양의 다양한 문화미술을 연구하며 한국미술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왔다. 이 책은 한국미술의 기원과 주변 국가들에 미친 영향 등을 공평하게 바라보고 저평가된 한국미술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한국미술에 대한 올바른 위상과 가치를 대중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저자가 말하는 ‘청출어람의 한국미술’은 중국미술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경지에 올랐던 한국미술을 말한다. 책에서 소개하는 작품들을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창의성, 예술성, 작품성, 수월성이 뚜렷하고 독보적이어야 할 것. 한국적 특성, 독자성이 분명하고 국적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할 것. 역사적 가치와 사료성 및 기록성이 높아야 할 것.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용도가 분명해야 할 것. 이런 까다로운 원칙으로 선정한 작품들을 통해 중국미술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미술의 정확한 위상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본다. 또한 중국미술보다 한 차원 높게 도약할 수 있었던 한국미술의 실체를 실증적이고 객관적으로 밝혀낸다. 한국미술사의 새로운 이해를 돕고 안목을 넓혀줄 책이다.



위대한 음악가들의 기상천외한 인생 이야기

엘리자베스 룬데이 지음, 도희진 옮김

시그마북스 / 366p / 14,000원

학교에서 배우거나 음악회의 팸플릿에서 읽은 음악가들은 보통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훌륭한 모습들이다. 이름 앞에 붙여진 수식어도 얼마나 화려한가. 그러나 그들은 구도자가 아니라 인간이었다. 어쩌면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기에 일탈과 기행도 더 기상천외할 지도 모른다. 위대한 작곡가 34명의 음악 밖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자. 베토벤은 호텔 스위트룸을 박살낸 적이 있었고, 리스트는 브뤼셀부터 부다페스트까지 열렬한 팬들을 몰고 다니며 추문을 일으켰다. 모차르트는 입이 거칠기로 유명했고, 슈만은 매독 환자였으며, 번스타인은 알아주는 고집불통이었다고 한다. 오페라 <나비부인>을 작곡한 푸치니는 어린 시절 담배를 사기 위해 교회 오르간의 파이프를 빼내 팔았다. 그리고 도둑질을 숨기기 위해 파이프가 없어도 연주할 수 있도록 찬송가 악보를 몰래 고쳤다. 그의 악동기질은 커서도 이어졌다. 친구 아내와 불륜에 빠져 야반도주를 했다. 친구가 사망한 뒤 어렵게 결혼했지만 부인을 놔두고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았다. <나비부인>은 그 와중에 쓰여졌다. 이같은 거장들의 참모습이 이들의 음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산시립예술단 미국 자매도시 초청 공연 활발

무용단 시카고 자매도시 국제페스티벌 개막 공연 참가
청소년교향악단 로스앤젤레스 제 9회 KYCC 자선음악회 참가

부산시립예술단이 8월 부산시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미국 초청공연을 갖는다.

로스앤젤레스 한인 사회의 복지기금 마련을 위해 KYCC(코리아타운 유스 & 커뮤니티센터)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자선음악회에 초청받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8월 3일 6박 7일의 일정으로 먼저 미국 연주길에 오른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Korean American Youth Symphony(한미 청소년심포니)와 연합 오케스트라를 구성, 8월 5일 세계 굴지의 공연장인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펼친다.



부산시립무용단은 부산시 자매도시인 시카고의 자매도시 국제페스티벌에 초청받아 8월 21일 4박 6일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8월 23일 Millennium Park 야외공연장에서 열리는 시카고 자매도시 국제페스티벌의 개막 무대를 장식하게 될 부산시립무용단은 해외공연에서 인기가 높았던 천하태평지무, 설장고춤, 부채춤, 화중신선, 천지현황과 부산의 전통춤인 동래학춤, 마당놀이 흥부 VS 놀부를 선보일 예정이다. 개막식 공연에 앞서 8월 22일 Northeastern University Auditorium에서 '시카고 교민의 날 축하공연' 에도 참가, 우리 교민들에게 우리문화의 진수를 선보인다.

시립무용단의 이번 공연은 양 도시간의 우호 증진은 물론 문화 도시 부산을 알리고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평가된다.

부산문화회관 제 4기 문화대학 개강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문화적 감성계발과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하는 부산문화회관 문화대학 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8회에 걸쳐 실시되는 제 4기 문화대학은 음악, 연극, 철학, 문화비평 등 각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고품격 강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는 9월 1일 철학자 강유원의 '자각적 삶을 위한 인문학 공부', 9월 8일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회장 차재근의 '예술의 힘 런던, 베를린, 카라카스, 부산', 9월 15일 연극배우 변지연의 '심장의 소리를 찾아요', 9월 29일 동화작가 박경효의 '전래 설화 다시 보기', 10월 6일 문화평론가 김갑수의 '인생이 의외로 아름다운 이유', 10월 13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이동신의 '연주에서 지휘자의 역할', 10월 20일 문화유산 해설가 최승욱의 '우리문화의 대동소이', 10월 27일 성악가 오동주의 '내 맘의 가곡'으로 진행된다.

- 신청기간 : 2010년 8월 2일(월) ~ 8월 27일(금)
- 수 강 료 : 30,000원(교재비 포함)
- 문 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46, 6057)



2010년 제 23회 부산합창제 참가단체 모집

부산시립합창단에서는 2010년 제 23회 부산합창제에 참가할 부산지역내의 합창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합창’을 통해 즐거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합창인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 모집부문

- 행사명 : 제 23회 부산합창제
- 모집부문 : 부산지역을 연고로 한 합창단(혼성, 남성, 여성)

■ 행사일시

- 2010년 10월 28일(목)~2010년 10월 29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2010년 8월 16일(월)~2010년 8월 31일(화)(토, 일요일 제외)
- 접수처 : 부산시립합창단 사무실(부산문화회관 관리동 2층)
-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 단체프로필, 악보제출

■ 선정발표

-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 서류심사 후 결정
- 발표일자 : 2010년 9월 6일(월) 오전 10:00
- 통보방법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및 개별통보

■ 문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4)

부산문화회관 셔틀버스 이용안내

부산문화회관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을 찾는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7번가 피자 앞) 출발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요일 19:00(공연 있는 날에 한함)
-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222)



국립부산국악원 전통연희상설공연 극단 큰돌 '허도령'

아이와 처음으로 국립부산국악원을 찾았다. 국악공연을 본적 없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갔지만 공연을 보는 내내 내 생각이 너무 편협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허도령'은 온갖 횡포를 일삼는 사또와 이방에 맞서는 동네사람들의 이야기를 해학적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장면 중간 중간 객석의 아이들을 참여시키며 재미있게 이끌어갔다. 다음 상설 공연도 기대된다.

- 김민정(연제구 연산5동)

부산시립교향악단 '찾아가는 음악회'

7월 7일 시립교향악단의 현악4중주팀과 금관 5중주팀의 찾아가는 연주회가 LG유플러스(구 통합LG텔레콤) 부산고객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일하는데, 그날의 공연이 좋은 청량제가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공연을 해주신 연주자 여러분과 스텝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 김우현(LG유플러스 부산고객센터)

연극 '서툰사람들'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떼 수 없게 만드는 배우들의 천연덕스런 연기, 주위 어딘가에서 일어날 수도 있을 법한 일상 안에서의 소소한 얘기들. 그리고 교훈(?) 이랄지, 숨겨진 진실이랄지요 ㅋㅋ. 웃음 뒤에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해주어 더욱 좋았던, 그리고 공연 뒤 프로포즈 이벤트까지... 살짝 부럽기도 했지만 이 리얼한 상황에 너무 감동해 손에 불이 날 정도로 박수를 쳐댔습니다.

- 박정은(부산진구 부전동)

부산시립합창단 '도병찬과 함께 하는 팝 합창이야기'

요즘은 7080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열린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아이돌 위주로 편성되고 있는 터라 부산시립합창단의 '도병찬과 함께 하는 팝 합창이야기'에 기대가 컸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팝음악들, 특히 성악을 전공한 합창단 단원들이 팝을 부르니 새로운 느낌이 들었다. 공연이 끝난 후 갑자기 내린 소나기 마저도 즐거웠다. Singin' in the Rain~~.

- 백영선(사상구 학장동)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

씩씩씩을 놈 씩을 놈 석봉이~♪ 죽죽죽일 놈 죽일 놈 주봉이~♪ 먹칠이야! 먹칠! 가문의 먹칠~♪ 노래를 들었을 때는 '형제는 용감했다'는 그저 웃기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공연보기 전에는 더운 여름 유쾌하게 한바탕 웃고 올 거 같다는 예상을 했었죠(노래를 찾아서 한 번 들어보세요!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저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예상이 틀린 것 아니었지만 예상외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공연의 후반부로 갈수록 객석에서는 여기저기 손수건을 꺼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억지로 유도해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가슴이 울었습니다.

- 김미영(사상구 모라1동)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공방 전문점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나랏소랑?
그 옛날 나랏님께서 드시던 우리
나랏소 한우를 드립니다.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 모집(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부산문화회관

제4기 문화대학 수강생 모집안내

부산 문화의 메카인 부산문화회관이 문화·예술 교육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계발과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코자 고품격 강좌를 개설합니다. 한국문화예술계 최고의 리더들과 함께하는 제4기 문화대학 강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운영기간 2010. 9. 1 ~ 10. 27
- ✓ 시 간 매주 수요일 14:00~16:00
- ✓ 장 소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 ✓ 모집인원 100명(일반인)
- ✓ 신청기간 2010. 8. 2(월) ~ 8.27(금)
- ✓ 신청방법 부산문화회관(공연과) 방문접수 or 팩스(607-6049) 접수
 - 문화대학 수강자 최종 명단은 2010. 8. 30(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
 - 수강료 납부 순서로 선착순 모집 마감하며, 접수명단은 매일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게시
 - 신청서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
- ✓ 교육강사 국내문화예술계 저명인사
- ✓ 수 강 료 30,000원(교재비 포함)
- ✓ 문 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051)607-6046, 6057 문화대학 담당자
- ✓ 강좌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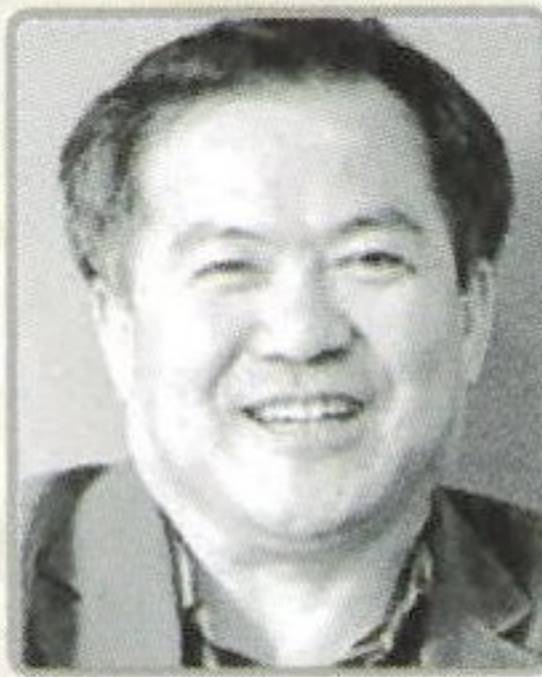
첫째주 강유원 철학자
(9. 1) 자각적 삶을 위한 인문학 공부



다섯째주 김갑수 문화평론가
(10. 6) 인생이 의외로 아름다운 이유



둘째주 차재근 부산문화예술 교육연합회 회장
(9. 8) 예술의 힘
런던, 베를린, 카라카스, 부산



여섯째주 이동신 부산시향 부지휘자
(10.13) 연주에서 지휘자의 역할



셋째주 변지연 배우
(9.15) 심장의 소리를 찾아요



일곱째주 최승욱 문화유산 해설가
(10.20) 우리문화의 대동소이



넷째주 박경호 동화작가
(9.29) 전래설화 다시보기



여덟째주 오동주 성악가
(10.27) 내맘의가곡



가깝고도 먼 역사의 섬 가덕도

7월 9일 테마여행을 떠나는 날, 오랜 장맛비 끝에 화창한 하늘이 열렸다. 7월 테마여행지는 가덕도. 그러나 가덕도로 떠나는 길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행정구역상 부산이지만 길이 좁아 대형버스 진입이 허용되지 않아 마을버스와 등대까지 가는 선편예약까지 다른 여행 때보다 사전 준비가 까다롭다. 가덕도의 최고봉인 연대봉을 찾는 등산객이나 낚시꾼들이 주로 찾았던 가덕도는 최근 거가대교 공사와 신공항 부지로 주목을 받으며 물사람들에게 그 문을 조금씩 열고 있다.

7월 여행에 동행한 정기회원 가족은 모두 40명. 부산민학회 주경업 회장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선희, 김소현, 손한별 단원이 7월 여행에 동행했다.

부산문화회관을 출발해 1시간 남짓 달려 가덕도 선창에 도착했다. 부산문화회관에서 함께 출발하지 못한 회원들은 선창에서 만나 함께 천성행 마을버스에 올랐다.

신항만 공사로 가덕도를 연결하는 다리가 놓이면서 이제 더 이상 섬이 아니지만 가덕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쯤 가보고 싶은 '섬'으로 남아있다. 꼬불꼬불 산길을 돌아 멀리 드넓은 바다가 눈에 들어오자 모두 탄성을 자아낸다.

어둠이 등대를 세우듯/바람이 섬을 낳았다//천진한 신석기의 바람이 불면/꽃으로 뒤덮이는 섬//섬을 키운 건 물너울/꽃내음 흩뿌리며/흰 물꽃 머리에 이고 달려오는/물마루//(이하 생략)

제 8 회 한국해양문학상을 수상한 김형술 시인의 '가덕도 시편'으로 만난 가덕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천성으로 가는 길 여기저기에 가덕도○○민박, ○○펜션과 한창 공사 중인 정체불명의 건물들까지 개발의 흔적이 눈에 띈다.

천성에서 배를 타고 오늘 여행의 목적지인 가덕도 등대로 가기 위해 외양포로 향했다. 외양포까지 뱃길은 10분 남짓. 외양포에 내려 가덕도 등대까지는 도보로 40분을 걸어 올라간다.

“낙타 등 2개를 지나면 가덕도 등대가 나옵니다” 함께 동행한 주경업 회장과 가덕도의 자연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가덕도 등대에 도착했다.

가덕도 등대는 해군부대 안에 있기 때문에 방문하려면 부산 지방해양청(609-6801, pusan.momaf.go.kr)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대까지는 두 번의 검문을 받는데 두 번째 초소에서는 신분증을 맡겨야 한다. 두 번째 초소를 지나 군부대를



돌아가면 드디어 가덕도 등대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가덕도에는 두 개의 등대가 있다. 대한제국의 말기인 1909년 불을 밝힌 옛 등대와 2002년 지은 지금의 등대가 그것. 옛 등대 시설은 사무실과 숙소, 등탑이 연결된 복합건물 형태로 중앙에 높이 9.2m의 등탑이 세워져 있고 출입구 천정에는 그 당시 일본 황실의 상징인 오얏꽃 모양의 문장이 새겨져 있다.

가덕도 등대건물은 서구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건축물의 하나로 2003년 9월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 50호로 지정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도 영구보존 시설로 지정해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 2002년 새로 지어진 지금의 등대는 팔각으로 된 돌출형이며 등탑높이는 40.5m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등대이다.

주경업 회장의 해설을 들으며 등대 기념관을 둘러보았다. 가덕도 등대 100년을 기념해 건립된 이 기념관에는 가덕도 탕건 제작 등 사라져 가는 가덕도 주민의 생활사와 농기구, 어업에 사용하던 유물 등을 전시한 '가덕도 생활문화전시실'과 가덕도 등대의 100년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등대유물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또 등대체험숙소와 세미나실 등에서는 여름등대학교, 등대 체험 등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가덕도 기념관에 이어 가덕도 등대 김홍수 소장의 안내로 옛 등대와 지금의 등대를 둘러보았다. 나선 계단을 돌고 돌아 새 등대 꼭대기에서 오르면 쉬 만날 수 없는 절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금강산도 식후경. 등대를 내려온 회원 가족들은 기념관 세미나실과 숙소 등에서 김밥으로 점심식사를 마치고 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의 공연을 기다렸다.

7월 여행의 백미는 탁트인 바다와 시원한 바닷바람과 어우러진 국악선율. 청성곡과 아리랑 연곡에 이어 단가 '사철가'까지 가덕도에서 열린 특별한 음악회에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돌아가는 길은 진영호 김성복 선장의 배려로 가덕도 등대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천성까지 이동했다. 천성에서 다시 마을 버스를 타고 선창으로 이동, 기다리고 있던 부산문화회관 버스에 올라 10분을 달리니 어느새 익숙한 도시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가깝고도 멀었던 가덕도에서 보낸 7월의 어느 날, 그 특별한 하루가 도시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글/백경옥, 사진/정복엽)



2010년 9월에는 **합천**으로 역사기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마감 8월 15일)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8월 테마여행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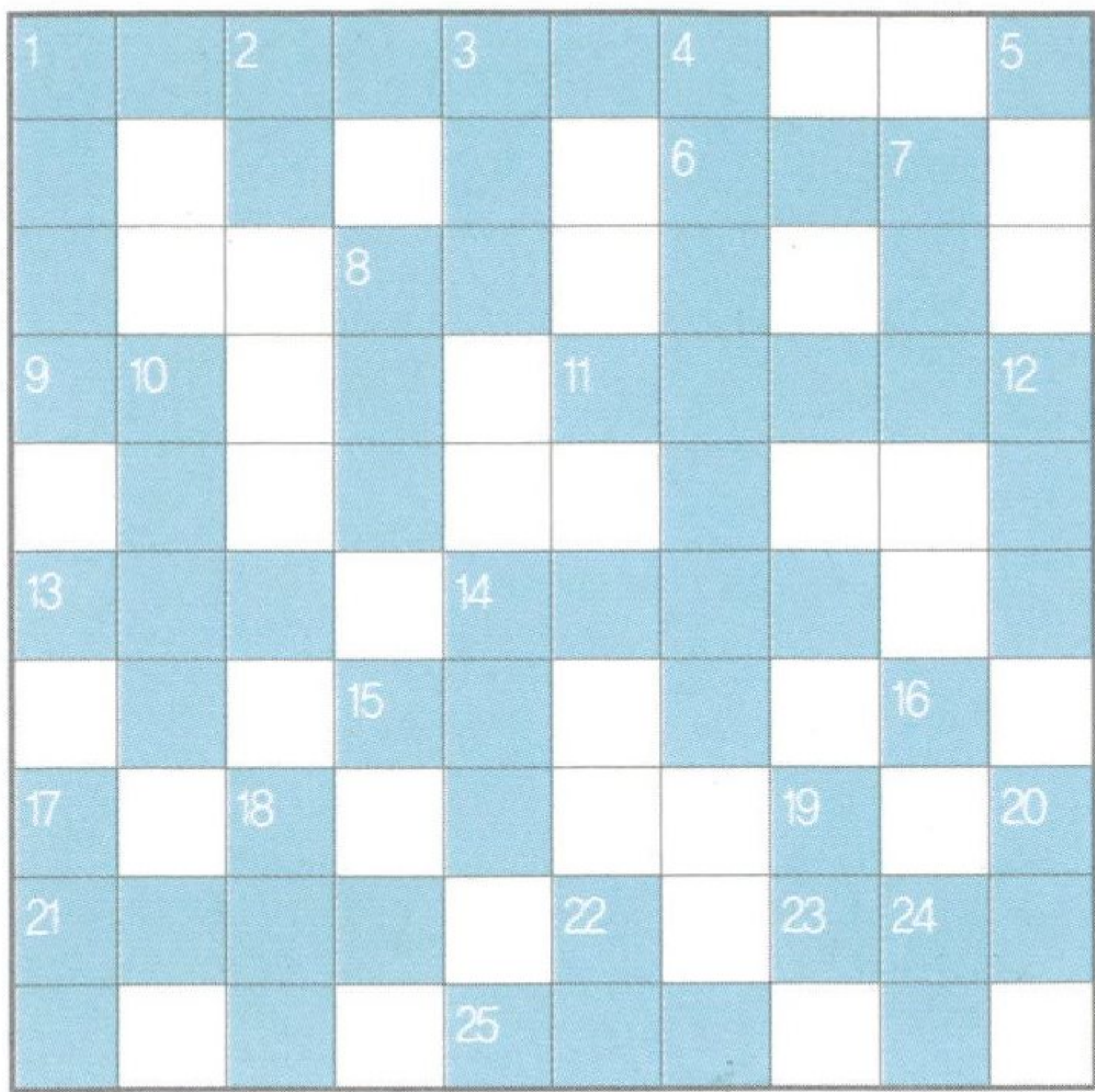
엽서당첨자

곽기만(영도구 청학동)
곽서연(북구 화명2동)
김민서(남구 용당동)
김성미(부산진구 연지동)
김영란(연제구 연산8동)
류기쁨(수영구 망미동)
박현비(남구 대연동)
성지민(부산진구 전포동)
안정숙(기장군 기장읍)
이윤희(연제구 연산5동)

신규가입자

박상희(수영구 남천동)
안문희(남구 문현3동)
안혜정(북구 구포3동)
오정필(동래구 사직동)
옥다빈(연제구 연산5동)
장복순(수영구 남천2동)
정용주(부산진구 범천1동)
주희린(연제구 거제1동)
최연옥(해운대구 좌동)
최향재(연제구 망미1동)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열쇠

- 1_ 8월 24일과 25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지휘자 금난새의 재미나는 해설과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로 열리는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 5_ 2010년 칸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한 이창동 감독, 윤정희 주연의 영화.
- 6_ 길들이지 아니한 말이나 소를 탄 채 버티거나 길들이는 경기.
- 8_ 이탈리아 토스카니주에 위치한 도시. 천문학자 갈릴레이의 이름과 더불어 '기울어진 탑'으로 유명하다.
- 9_ 미니 노트북 컴퓨터를 뜻하는 말. 노트북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무게가 가벼워 휴대성이 좋다.
- 11_ 뱀파이어와 인간의 사랑을 그린 스테프니 메이어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할리우드 대작, 최근 세 번째 시리즈가 개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흥행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13_ 일본 홋카이도 서부에 있는 도시, 영화 '러브레터'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 14_ 이탈리아의 작가 C.콜로디의 동화.
- 15_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부르는 말. 일반적으로 석가모니를 가르킨다.
- 16_ 영화 '왕의 남자'의 원작인 연극.
- 21_ 경상남도 하동군과 전라남도 구례군, 광양시의 경계지점에서 열리던 전통적인 재래시장.
- 23_ 남태평양 중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자리한 화산성 섬. 폴리네시아 민족의 중심 거주지로, 화가 고갱이 말년에 작품활동을 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 25_ 2010년 5월 안타깝게 자살로 생을 마감한 1980년대 한국 멜로영화의 거장. 대표작으로 데뷔작인 '겨울 나그네'와 '그후로도 오랫동안' '젊은 날의 초상' '청춘' 등이 있다.

세로열쇠

- 1_ 원통형의 목관 악기. 아름다운 음색과 넓은 음역으로 각종 합주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
- 2_ 갖가지 음식과 요리 대결을 주제로 한 허영만 화백의 만화, 드라마와 영화로도 제작되어 사랑받았다.
- 3_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에 있는 사찰. 전나무 숲길과 아름다운 대웅전 꽃문살이 유명하다.
- 4_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는 일본의 영화감독, 1950년 베니스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 '라쇼몽'을 비롯 '7인의 사무라이' '요짐보' 등을 연출했다. 8월 10일부터 시네마테크 부산에서 기념영화제가 열린다.
- 7_ 태양에서 방출된 대전입자(플라스마)의 일부가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 대기로 진입하면서 공기분자와 반응하여 빛을 내는 현상. 북반구와 남반구의 고위도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다.

- 8_ 입체주의 미술양식을 창조한 20세기 최고의 거장. 대표작으로 '아비뇰의 아가씨들' '게르니카' 등이 있다.
- 10_ 태어난 뒤 첫 건강진단을 받으러 오는 아기와 양육자에게 그림책이 든 가방을 무상으로 선물하는 사회적 육아지원 운동.
- 12_ 지역방송사 보도국을 배경으로 감동과 웃음을 전하는 로맨틱 코미디극. 8월까지 해운대문화회관에서 장기상연된다.
- 14_ 주로 대중음악 분야에서 다른 가수의 앨범작업에 참여해 노래나 연주를 도와주는 것을 가리키는 말.
- 17_ 1865년(고종 2년) 경북궁 중건 당시 원형으로 복원되어 광복절인 8월 15일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경북궁의 정문.
- 18_ 사람들의 위선을 통렬히 고발하는 홍상수 감독 특유의 연출력이 돋보인 김상경, 엄지원 주연의 영화. 2005년 칸영화제 공식 경쟁부문 초청작이다.
- 19_ 음식점 주방에서 일어나는 요리사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국 전통사물놀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언버벌 퍼포먼스.
- 20_ 1982년 제작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공상과학 영화. Extra-Terrestrial의 머리글자를 딴 약어로 '외계인'(外星人)이라는 뜻이다.
- 22_ 한말에서부터 일제강점기 및 근·현대사를 지주가문의 후손인 최서희와 그 주변 인물들의 삶을 통해 재조명한 박경리의 장편대하소설.
- 24_ 아랍권의 이슬람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베일. 머리부터 검은 천을 둘러 얼굴 전체를 가리는 것은 '차도르', 온몸을 두르는 것은 '부르카'라 불린다.

지 난 후 정답

악	기	가	족	이	야	기	생	황
덕	외	네	통					
오	감	도	수	상	스	키	사	
드	애	하	위	도				
리	우	데	자	네	이	루	병	목
헵	칼	팔	브	찬				
번	코	카	르	멘	파			
차	마	고	도	박	사	주		
슈	니	교	물	마				
만	종	비	아	관	파	천		

퍼즐당첨자 명단

부산은행 조은극장

- 김서영(동래구 사직동)
- 백영선(해운대구 채송동)
- 윤신해(사하구 당리동)
- 이현영(영도구 봉래동 4가)
- 임대룡(강서구 명지동)

공간 소극장

- 김길희(동래구 명륜1동)
- 김지연(연제구 연산5동)
- 안진영(사상구 학장동)
- 오영주(연제구 연산동)
- 이서진(연제구 거제동)

나랏소

- 김현주(부산진구 연지동)
- 나종일(부산진구 가야동)
- 배은정(부산진구 전포동)
- 신희주(남구 용당동)
- 최지연(남구 문현동)

큰집

- 김민정(동래구 사직동)
- 류미숙(연제구 연산5동)
- 이수현(영도구 동삼1동)
- 정승일(서구 아미동 2가)
- 신한내(중구 중앙동)

그리움이 있는 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남포동과 광복동의 새로운 문화공간

BS 부산은행 조은극장

TEL.1588-2757

세계적 문화공연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곳 부산에는 공간 소극장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사계

공간소극장

(051)611-8518

문화공간사계 cafe.daum.net/say012

최고급 부산만을 고집하는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금당 전문점

TEL.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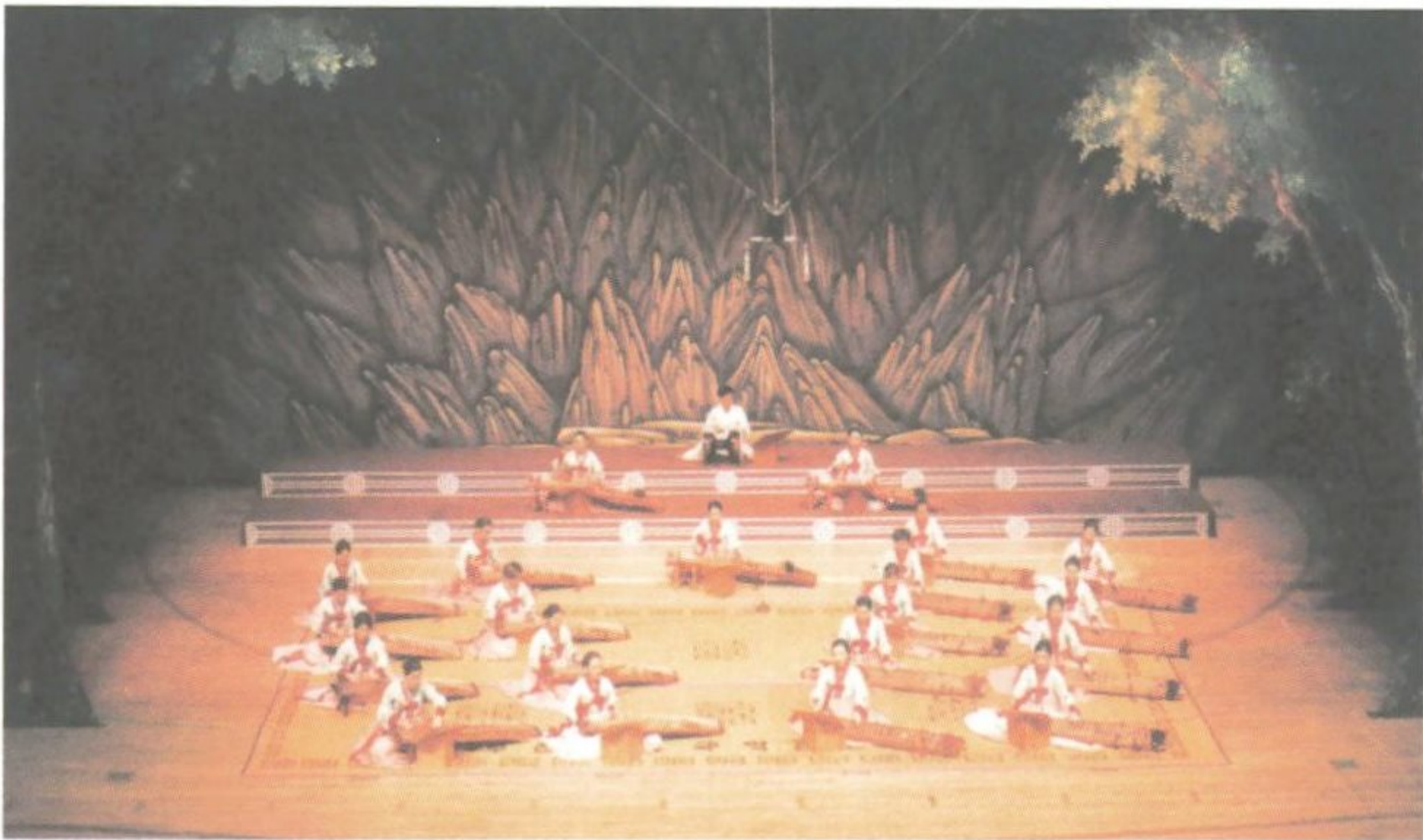
© 보내실곳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0년 8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8월 14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프로그램

수요남극(가야금/정미자, 정세희, 김지현, 하지희 · 거문고/한정임, 이유진, 이대하, 박하혜 · 양금/장미진·장구/이장우)
 박종선류 아쟁산조 제주(아쟁/권혜정, 최희정, 홍영혜, 최영훈, 박일, 하성진 · 장구/송강수)
 중광지곡 중 엽불, 타령(대금/김수일 · 피리/박영은 · 해금/최윤희 · 단소/조은경, · 양금/장미진 · 가야금/송영남 · 거문고/엄애리 · 장구/이장우)
 흥겨운 민요(민요/박성희, 정선희 · 대금/황두호 · 피리/박순자 · 해금/윤해승 · 아쟁/최영훈 · 가야금/윤경선 · 거문고/오상훈 · 장구/송강수)
 사물놀이(팽과리/이주현 · 장구/전학수 · 징/최오성 · 북/신문범)
 · 해설/전현진(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8월 21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무용협회 공연



프로그램

윤정미 무용단 '한영숙류 태평무'(출연/윤정미, 김예린, 윤현정)
 윤정미 무용단 '강태홍류 산조춤'(출연/강미선, 송화련, 김연희)
 뫼브르 발레연구회 '해적' 3막 중 '오달리스크'(재구성)(출연/김수련, 박소진, 이유하)
 현대무용단 주-□ 창작무용 'Secret'(안무/강소정·출연/안희경, 최정화, 임선희, 지숙정)
 윤정미 무용단 '이매방류 살풀이'(출연/강미선)
 윤정미 무용단 '풍류 장구춤'(출연/윤정미, 김예린, 윤현정)
 · 해설/김정원

8월 28일 토요일 오후 4:00

(사)서울전통타악진흥회 연주회



프로그램

사물놀이(출연/이봉우, 김태현, 이경희, 권보름, 권두술, 최정욱, 박민지, 강우담)
 대금시나위(대금/이중희 · 장구/신문범 · 징/김태현)
 가야금병창 '수궁가' 중 '고고천변'(소리/조경화 · 장구/신문범)
 장구합주 '다드리'(출연/이봉우, 김태현, 이경희, 권보름, 권두술, 최정욱, 박민지, 강우담)
 모듬북과 사물놀이(출연/강미선, 윤정미 무용단)
 · 해설/이일록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9월 10일 (금) 역사의 고장 합천, 고대역사기행



합천박물관

가야산을 중심으로 화려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역사의 고장 합천으로 떠나는 여행. 가야시대 다라국 터에 세워진 합천박물관을 시작으로 합천의 문화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른 가을 여행을 떠난다.

- ▷ 07: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합천박물관(옥전고분군), 합천읍 대아성, 죽죽비 등 합천 문화유적 탐방
- ▷ 12:00 중식
- ▷ 13:00 합천 영상테마파크
- ▷ 15:00 바람흔적미술관 방문
-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6:30 부산으로 출발

▶ 10월 8일 (금) 별빛이 아름다운 영천 가을 여행



시안미술관

'별의 수도' '별의 도시' 영천으로 떠나는 가을 여행. 포은 정몽주를 배향하는 임고서원을 시작으로 폐교에서 아름다운 미술 휴식공간으로 변신한 시안미술관, 영천의 자랑 별빛 포도 수확 체험, 영천 와이너리 체험으로 가을을 만끽한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영천도착, 영천 와이너리 사업단 방문, 포도따기, 와인체험
- ▷ 12:00 중식
- ▷ 13:00 임고서원, 조양각, 시안미술관 등 방문
-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 만남
- ▷ 17:00 부산으로 출발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우편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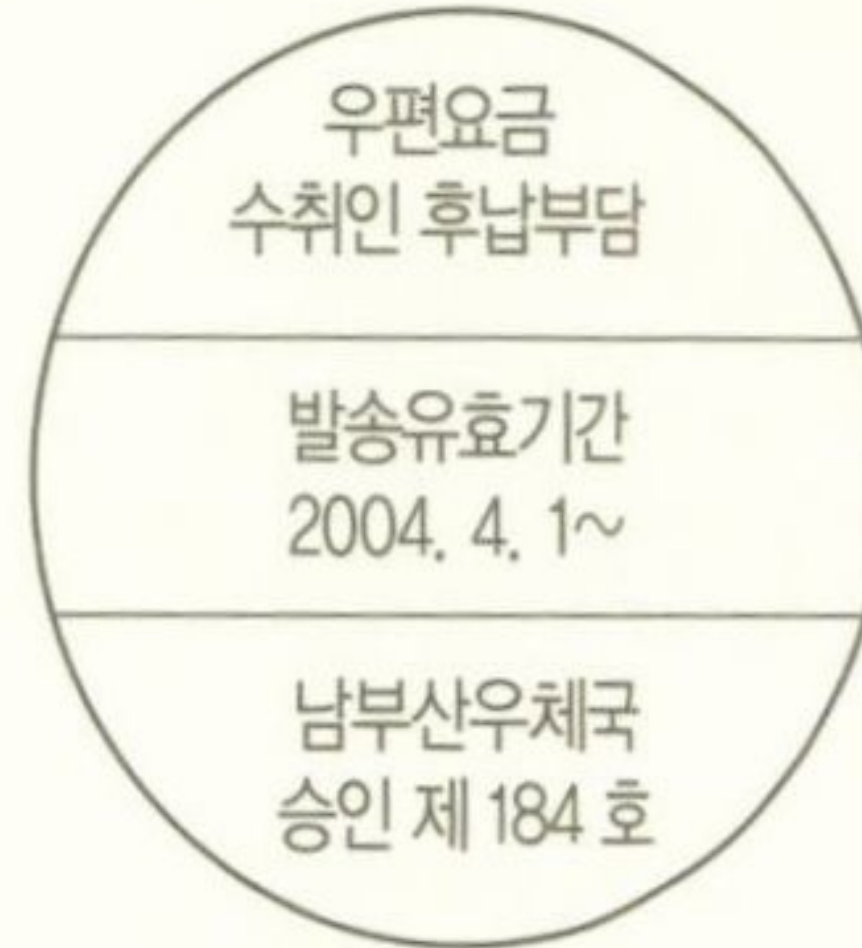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 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 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0 웰빙콘서트 시리즈III

11시에 만나요

Dance in Classic

미뉴에트와 스케르초
교향곡의 식구가 된 댄스

2010. 9.30(목)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051) 607-3111~3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WineBeer치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뮤지컬 '락시터-즐거운 시절' 20% 할인



2010. 8. 6(금) ~ 9. 12(일)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3:00, 6:30

(월요일 공연없음)

▶ 입장권 : 균일 30,000원

▶ 장 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 문의 및 예매 : 1588-2757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 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전망대+세계민속악기 박물관

: 대인 5,500원, 소인 4,500원)

▶ 날짜 : 2010. 1. 1(금)~12. 31(금)

▶ 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 제시 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 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예매 및 문의
051) 810-7000



점프 20% 할인

평일 20:00 / 토·공휴일 17:00, 20:00 / 일요일 18:00

IBK (부산롯데호텔 롯데아트리움) 50,000원(R석) / 40,000원(S석)

* 쿠폰 제시 시 1매 4인까지 할인 가능 * 전화 및 현장 예매 시 할인 가능 * 타 쿠폰, 할인카드 중복사용 불가

참존 직영점 참존 스킨타운 부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마사지무료 체험권



부산시 남구 대연4동 733번지 유안빌딩 051-626-676

금경 (한식퓨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박물관 옆 ☎ 051-611-1960

예매 및 문의
051) 804-2252

THEATER
서면 구.은아극장

비보이를 발레리나

20% 할인

▶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 화~금 20시 / 토 16.20시 / 일 및 공휴일 15.18시(월 휴관)

* 쿠폰 제시 시 1인 4매까지 할인/전화 및 현장 예매 시 할인/타 할인과 중복 불가

악기 가족 타 모여라!



지휘 이 동 신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극단 동그라미그리기

2010. 8.17 화 오전 11시 오후 4시 (2회 공연)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함께 울동하며 동요를 불러요
- 이야기 감상 함께 해서 행복해요, 악기 마을 가족들!
- 생상 「동물의 사육제」
- 지휘자가 되어 보아요
- 함께 울동하며 동요를 불러요



주최 부산광역시 예매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입장권 R석 5,000원 / S석 3,000원 문의 607-3111~3 (부산시립교향악단) 관람대상 어린이 및 학부모 대상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PROGRAM
비제 오페라 「카르멘」 하이라이트
「아들의 여인」 모음곡 中



메조 소프라노 김정화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 친구

지휘 및 해설 금난새

2010. 8.24 (화)~ 25 (수) 오전 11:00 ·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입장권 균일 10,000원 (정기회원 20% 할인)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부산은행 전자점 문의 607-3111~4 (부산시향) 607-3100 (홍보마케팅부)

BuSan
Ulsan
GyeongNam

2010 부산·울산·경남 교류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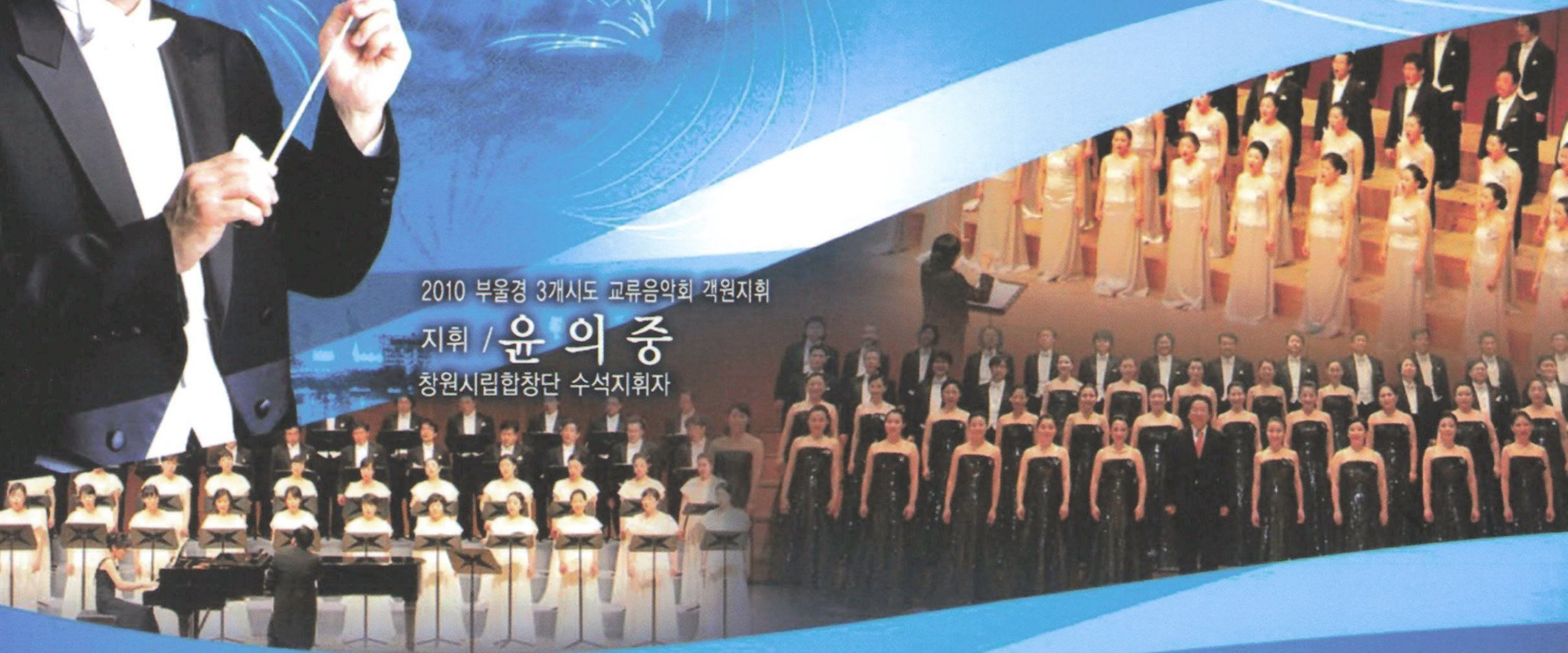
한여름밤 꿈의 합창축제



2010 부울경 3개시도 교류음악회 객원지휘

지휘 / **윤의중**

창원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2010. 8. 19 (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강당

2010. 8. 17 (화) 오후 7:30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

2010. 8. 24 (화) 오후 8: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출연 | 부산시립합창단 · 울산시립합창단 · 창원시립합창단 주최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주관 | 부산시립합창단

공연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Tel.607-3100 / 부산시립합창단 607-3141~4
www.bschorus.or.kr

예매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www.bsculture.busan.kr